Happiness for ALL, with Global KOICA

KOICA의 MDGs 이행실적 및 시사점

2017. 1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KOICA의 MDGs 이행실적 및 시사점

2017. 12.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조 한 슬

- KOICA ODA연구원 통계전문관 (hcho@koica.go.kr)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주요 연구 실적

▷ 2015. Post-2015체제의 ODA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공저)

▷ 2014. 「한국형 ODA 모델」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저)

▷ 2013. 개도국 무역촉진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개선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2012.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김 아 리

주요 경력

- KOICA ODA연구원 통계전문관 (arikim02@koica.go.kr)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협력학 석사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이 인 호

주요 경력

- KOICA ODA연구원 통계전문관 (inho@koica.go.kr)
- 중앙대학교대학원 북한학 석사(북한개발협력전공)

주요 연구 실적

▷ 2015.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공저)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요약 ····· ix

Abstract ····· xi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 2
3. 연구방법 ····· 4
4. 한계점 ····· 6

Ⅱ. MDGs 개관 ····· 10

1. MDGs 수립 배경 ····· 10
2. MDGs 세부목표 및 달성 결과 ····· 12
   1) MDGs 세부목표 ····· 12
   2) MDGs 달성 결과 분석 ····· 15
3. MDGs 의의 및 한계 ····· 19

Ⅲ. 공여국의 MDGs 정책 및 실적 분석 ····· 20

1. 타공여국의 MDGs 이행 정책 ····· 20
2. 타공여국의 MDGs 이행 실적 ····· 23
   1) OECD DAC의 MDGs 지원 ····· 24
   2) 영국의 MDGs 지원 ····· 26
   3) 미국의 MDGs 지원 ····· 29
   4) 호주의 MDGs 지원 ····· 32
   5) 일본의 MDGs 지원 ····· 34

3. 한국의 MDGs 정책 및 실적분석 ····· 38
1) 한국의 MDGs 이행 정책 ····· 38
2) 한국의 MDGs 이행 실적 ····· 43

Ⅳ. KOICA의 MDGs 정책 및 실적 분석 ····· 47

1. KOICA의 MDGs 이행 정책 ····· 47
2. KOICA의 MDGs 목표별 이행 실적 ····· 52
1) MDGs 1번 목표 :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 57
2) MDGs 2번 목표 :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62
3) MDGs 3번 목표 :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 69
4) MDGs 4번 목표 : 아동사망률 감소 ····· 73
5) MDGs 5번 목표 : 모성보건 증진 ····· 79
6) MDGs 6번 목표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85
7) MDGs 7번 목표 :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 91
8) MDGs 8번 목표 :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 96
3. KOICA의 MDGs 세부목표별 이행 실적 ····· 101
4. KOICA의 MDGs 지표별 이행 실적 ····· 109
5. 결어 ····· 114

Ⅴ. 시사점 및 결론 ····· 115

1. SDGs 총괄 정책 수립 및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115
2. SDGs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 115
3. SDGs 관련 지표수집 확대 및 성과측정 도입 ····· 116
4. KOICA의 비교우위가 높은 부분에 전략적 지원 필요 ····· 117
5. 데이터 관리 강화 및 이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 필요 ····· 117
6.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 사업 지원 확대 필요 ····· 118

참고문헌 ····· 119

부록 ····· 122

표 목차

〈표 1〉 MDGs - CRS코드 연결 기준 ····· 8
〈표 2〉 OECD 국제개발목표와 UN MDGs 비교 ····· 11
〈표 3〉 MDGs 세부목표 및 지표 ····· 12
〈표 4〉 MDGs 목표별 주요 달성현황 ····· 17
〈표 5〉 영국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 28
〈표 6〉 미국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 31
〈표 7〉 호주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 34
〈표 8〉 일본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 36
〈표 9〉 한국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 45
〈표 10〉 2011–2015년 KOICA 사업계획 중 MDGs 관련 사항 ····· 50
〈표 11〉 MDGs 1번 목표 연도별 지원 실적 ····· 58
〈표 12〉 MDGs 1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 59
〈표 13〉 MDGs 1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 59
〈표 14〉 MDGs 1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 60
〈표 15〉 MDGs 1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 61
〈표 16〉 MDGs 1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 62
〈표 17〉 MDGs 2번 목표 연도별 실적 ····· 63
〈표 18〉 MDGs 2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 64
〈표 19〉 MDGs 2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 65
〈표 20〉 MDGs 2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 65
〈표 21〉 MDGs 2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 67
〈표 22〉 MDGs 2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 68
〈표 23〉 MDGs 3번 목표 연도별 지원실적 ····· 69
〈표 24〉 MDGs 3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 70
〈표 25〉 MDGs 3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 71
〈표 26〉 MDGs 3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 71
〈표 27〉 MDGs 3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 72
〈표 28〉 MDGs 3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 73
〈표 29〉 MDGs 4번 목표 연도별 지원 실적 ····· 74

〈표 30〉 MDGs 4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 75
〈표 31〉 MDGs 4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 76
〈표 32〉 MDGs 4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 76
〈표 33〉 MDGs 4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 77
〈표 34〉 MDG 4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 79
〈표 35〉 MDGs 5번 목표 연도별 지원 실적 ····· 80
〈표 36〉 MDGs 5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 81
〈표 37〉 MDGs 5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 82
〈표 38〉 MDGs 5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 82
〈표 39〉 MDGs 5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 83
〈표 40〉 MDGs 5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 84
〈표 41〉 MDGs 6번 목표 연도별 지원실적 ····· 85
〈표 42〉 MDGs 6번 목표 지역별 지원실적 ····· 86
〈표 43〉 MDGs 6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 87
〈표 44〉 MDGs 6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 88
〈표 45〉 MDGs 6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 89
〈표 46〉 MDGs 6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 90
〈표 47〉 MDGs 7번 목표 연도별 지원실적 ····· 91
〈표 48〉 MDGs 7번 목표 지역별 지원실적 ····· 92
〈표 49〉 MDGs 7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 93
〈표 50〉 MDGs 7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 93
〈표 51〉 MDGs 7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 95
〈표 52〉 MDGs 7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 96
〈표 53〉 MDGs 8번 목표 연도별 지원실적 ····· 97
〈표 54〉 MDGs 8번 목표 지역별 지원실적 ····· 98
〈표 55〉 MDGs 8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 98
〈표 56〉 MDGs 8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 99
〈표 57〉 MDGs 8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 100
〈표 58〉 MDGs 8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 101
〈표 59〉 주요 세부목표별 지원금액(2000–2015) ····· 102
〈표 60〉 세부목표 4의 지원 실적 ····· 103
〈표 61〉 세부목표 8의 지원 실적 ····· 103
〈표 62〉 세부목표 9&10의 지원 실적 ····· 104

〈표 63〉 세부목표 11의 지원 실적 ····· 105
〈표 64〉 세부목표 12의 지원 실적 ····· 105
〈표 65〉 세부목표 13의 지원 실적 ····· 106
〈표 66〉 세부목표 14의 지원 실적 ····· 107
〈표 67〉 세부목표 15의 지원 실적 ····· 107
〈표 68〉 세부목표 21의 지원 실적 ····· 108
〈표 69〉 소규모 도서지역 지원액 및 지원 비율 ····· 111
〈표 70〉 내륙국 지원액 및 지원 비율 ····· 112
〈표 71〉 LDC 지원액 및 지원 비율 ····· 113

글상자 목차

〈글상자 1〉 2006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중 MDGs 관련 사항 ····· 38
〈글상자 2〉 ODA 중기전략 중 MDGs 관련사항 ····· 39
〈글상자 3〉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 ····· 40
〈글상자 4〉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중 MDGs관련 주요 내용 ····· 41
〈글상자 5〉 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 41
〈글상자 6〉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42
〈글상자 7〉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 47
〈글상자 8〉 KOICA 교육 분야 지원전략 (2011–2015) ····· 47
〈글상자 9〉 KOICA 보건 분야 지원전략 (2011–2015) ····· 48

그림 목차

〈그림 1〉 OECD DAC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 24
〈그림 2〉 OECD DAC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 25
〈그림 3〉 영국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 26
〈그림 4〉 영국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 27
〈그림 5〉 미국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 29
〈그림 6〉 미국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 30
〈그림 7〉 호주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 32
〈그림 8〉 호주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 33
〈그림 9〉 일본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 35
〈그림 10〉 일본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 35
〈그림 11〉 한국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 43
〈그림 12〉 한국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 44
〈그림 13〉 2000–2015년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 53
〈그림 14〉 2000–2015년 MDGs 목표별 지원액 추이 ····· 54
〈그림 15〉 MDGs 목표별 지역별 지원 비중 ····· 55
〈그림 16〉 MDGs 목표별 유형별 지원 비중 ····· 56

국문 요약

지난 2015년 MDGs 달성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KOICA의 MDGs 이행 실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KOICA의 MDGs 목표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SDGs 이행 및 모니터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은 MDGs 달성 시한 내, 보다 효율적인 이행 성과를 이루어내고 국제사회 내 다른 공여국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국 정부의 기조에 맞춘 전략과 정책적 방향을 세워서 이행하여 왔다. 다만, 이들 공여국은 달성 기한 내 특정 목표만을 위한 MDGs만의 고유 정책 수립 방식이 아닌, 자국의 기존 정책을 활용하여 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성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중점 지원 지역이나 특정 분야를 설정하여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실적 확인 결과, DAC 공여국은 각 공여국마다 원조 전략이나 분야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별 지원 양상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영국의 경우 일부 중점 분야와 지역이 있었으나 함께 분석한 나머지 3개국에 비해 모든 목표에 대하여 고른 지원 노력을 보여주어 대체로 수립된 정책이 잘 이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 가장 큰 지원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분야별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목표 6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며, 호주의 경우, CAPF를 통하여 드러난 세부적인 원조 계획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각 분야에 따른 구체적 실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도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목표 1, 7, 8에 약 80% 지원액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 2006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수립 이후 여러 정책에서 MDGs 관련 사항을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총괄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KOICA도 한국의 원조정책 방향에 맞춰 기관 자체 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KOICA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다년간 반복하여 나온 MDG 관련 전략은 ① LDC 지원 강화, ② 아프리카 지역 지원을 통한 MDGs 달성, ③ 서남아시아 지역 지원 강화, ④ 민간단체 비교우위 활용한 MDGs 달성, 빈곤층 BHN 충족, ⑤ 봉사단 : 개도국의 인적, 제도적 역량개발 통한 MDGs 달성지원, ⑥ 모자모건, 전염병 퇴치지원, ⑦ 국제기구 지원 사업으로 MDGs 달성 기여이다.

KOICA의 MDGs관련 지원액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기간동안 KOICA가 지원한 ODA 총액의 약 89.0%에 해당하는 4조 5,068억 원이 MDGs

기여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OICA는 MDGs 중 1번 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MDGs 8번 목표(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많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CRS코드를 해당 목표로 분류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한 MDGs 2번 목표에 대한 지원은 16년간 약 4,076억원 규모로, KOICA 교육분야 지원전략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MDGs의 3번 목표인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MDGs 4번 목표인 '아동사망률 감소'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보다는 간접적으로 아동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DGs 5번 목표인 '모성보건 증진' 분야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6천 9백억 가량의 ODA를 지원하였는데, KOICA 보건분야 지원전략(2011-2015) 수립을 전후로 모자보건에 초점을 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MDGs 목표 6번,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약 530억 정도로, KOICA의 경우 소외열대질환 등의 기타 전염병 지원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MDGs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에 대한 지원은 약 7천 7백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2010년 이후 녹색 ODA 강조로 인한 지원액 증가가 확인되었다. 또한, 소규모 도서국가, 내륙국, LDC 지원비율 확대의 경우, 한국과 KOICA 모두 2000년에 비해 지원비율이 확대되고 있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 지원 강화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강조되었으나 KOICA의 지원 확대를 확인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SDGs 달성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 이행 및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총괄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총괄부처, 범정부 T/F 등의 조직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SDGs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SDGs 관련 지표수집을 확대하고, 성과측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분석을 통해 수집가능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분류하고, 수집불가항목 중 향후 KOICA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은 선별하여 해당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KOICA의 비교우위가 높은 부분에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담당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SDGs의 정확한 달성현황 및 개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 사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year 2015 marks the deadline for the achievement of the MDGs, and this raises the need to look back on the progress KOICA has made with regards to the MDGs and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ICA's progress for each of the MDGs, introduce the efforts made in order to achieve them and draw relevant implications so that further contributions can be made for establishing and executing future projects, and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SDG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have implemented strategies and policies in line with the respective government's basic tendencies for ODA in order to achieve more efficient progress before the deadline for the MDGs and facilitate cooperation with other donor countries and relevant institution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rather than formulating a dedicated policy to achieve a specific MDG before the deadline, these donor countries have prioritized their efforts toward a specific region or sector based on a clear direction or a focus on a certain country so that they could take advantage of the existing policies to achieve the MDGs.

The findings show that due to the different priorities set by each donor country in terms of ODA strategy or support by sector, the DAC donors pursued contrasting ways of supporting each goal. Although the United Kingdom focused its efforts on certain areas and regions, all goals were subject to relatively equal support compared to the other three countries that were compared, which implies that in general the formulated policies have been well implemented. While the United States had the largest amount of disbursement with concrete strategies for each sector, much of the support was concentrated on Goal #6. In the case of Australia, there weren't much distinct progress when compared with the detailed ODA plan outlined in the CAPF. Japan too, had established policies for each area; nevertheless approximately 80% of the disbursement was made in relation to Goal #1, #7 and #8.

Korea has incorporated MDGs related topics in various polic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06, although this study affirmed the absence of an overarching policy. In line with Korea's overall ODA policy directions, KOICA has pursued diverse policies and projects of its own. From 2000 to 2015, MDGs related strategies that have recurred over the years as part of KOICA's ODA plan are as follows; 1. Strengthen support for LDCs 2. Achieve MDGs by supporting the African region 3. Strengthen support for the Southwest Asian region 4. Achieve MDGs and meet the BHN of the poor by leveraging comparative edge of private organizations 5. Leverage the Volunteer; Support MDGs by fostering developing

countries' human and institutional competences 6. Support maternal health and eradication of contagious diseases 7.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MDGs through projects that suppor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OICA's disbursement in relation to each MDG is as follows. First of all, a total of 4.5068 trillion KRW or 89.0% of total ODA from KOICA during this period has been channeled towards supporting MDGs. More specifically, KOICA has provided the largest amount of disbursement to MDG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followed by MDG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his is largely due to how the CRS codes work by design, as more of them were categorized into these goals. Disbursement for MDG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amounted to 407.6 billion KRW during the period of 16 years, which supported various projects executed under KOICA's strategy for the education sector. MDG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was subject to less support compared to other goals.

As for MDG #4 'Reduce child mortality', there were more projects that indirectly, rather than directly, contributed to bringing down child mortality. From 2000 to 2015, ODA worth about 690 billion KRW has been provided to achieve MDG #5 'Improve maternal health'. A point of optimism is that projects focusing on improving maternal health have continued to be identified and implemented around the time when KOICA's strategy for health was formulated from 2011 to 2015. While the disbursement for MDG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was 53 billion KRW, KOICA has focused its efforts on other contagious diseases such as NTD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pproximately 770 billion KRW in disbursement targeted MDG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amount has been increased after Green ODA was highly emphasized from 2010. In addition, support for small island and developing countries, land-locked countries and LDCs are being provided to a larger degree compared to 2000, both on a national level and from KOICA's perspective. Also, extended support for the African region by KOICA, despite continued policy emphasis, could not be verified, which leavesroom for improv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achievement of SDGs going forward. First, an overarching policy is required to implement and measure the progress of SDGs, in addition to organizational institutions such as a department acting as a control tower for the policy coherence. Second, an appropriat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lement and monitor the SDGs. Third, more SDG related indicators need to be collected and a progress measurement tool should be introduced. To do so, the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under the SDGs first need to be analyzed in order to distinguish those that can or cannot be collected. Items that cannot be gathered but require monitoring by KOICA need to be specified so that relevant materials could be collected. However considering the feasibility of such approach, a few indicators could be tested first and then expand in phases to compile other indicators. Fourth, strategic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areas in which KOICA has a comparative edge. Fifth, capacity building of project managers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data. Lastly, there is a need to empower the developing countries' statistical capabilities to accurately measure the actual progress toward achieving SDGs and the impact of development.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0년 수립된 MDGs(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1996년 개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7대 국제개발목표에 글로벌 파트너쉽을 더하여 총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로 수립되었고, 이행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왔다.

2015년으로 설정되어 있던 MDGs 목표 달성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서도 UN MDGs 보고서(UN, 2015)를 출판하여 전 세계적인 MDGs 달성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인 MDGs의 개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약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절대빈곤 상태를 벗어났으며, 여아의 초등학교 입학률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혁신적 파트너쉽이 구축되었고, 전 세계 공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ropian Union, EU),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등 일부 다른 공여기관에서도 달성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도 2000년부터 2015년간 KOICA의 MDGs 이행 실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KOICA 사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KOICA는 그간 MDGs 이행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정리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ICA의 MDGs 목표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000년 UN의 MDGs 수립은 빈곤감소 및 개발을 위한 공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MDGs는 각 공여기관의 원조 정책 수립에 있어 주요 기준으로 고려되었으며 MDGs 달성시한인 2015년까지 직간접적으로 공여국의 원조 분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15년 MDGs 달성시한 종료 전후 많은 기관에서 MDGs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수원국 측면에서 MDGs 목표 및 지표 달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며, 또한 각 지표의 달성 척도는 그간의 원조와 수원국들의 개발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공여국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원조가 지난 15년간 MDGs 목표에 맞추어 제공되었는지를 연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수원국과 공여국 수의 차이도 있겠으나, 이는 MDGs 지표 자체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수립되고 그 관점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할 경우 해당 원조가 특정한 MDGs 목표 및 지표를 위해 제공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합의된 국제적인 기준이 없기에, 사실상 공여기관별로 자체의 기준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타 공여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MDGs 달성 기여를 위해 2010년 자체적으로 MDGs 이니셔티브(MDGs Initiative)를 수립하고, 동 이니셔티브에 맞춘 원조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기아, 모자보건, 유아사망률, 물과 위생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총 68개의 프로젝트를 46개 국가에서 운영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들에 10억 유로를 할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위원회(EC commission)에서 지원하고 EU 집행위원회 개발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의해 운영된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MDGs 목표별 성과를 측정하였다(EU, 2015). 수혜자와 산출물(output)을 위주로 목표별 성과가 측정되었으며 세부지표별 성과는 측정되지 않았다(European Commission, 2015). 한편, EU는 동 보고서에서 MDGs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EU가 제공한 약정액을 지역별, 분야별로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7,217백만 유로), 유럽(20,642백만 유로), 양자미배분(19,563백만 유로)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물 등 사회 인프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46,794백만 유로), 그 다음으로는 환경 등 다분야/크로스커팅 이슈(14,226백만 유로), 인도적 지원(14,032백만 유로) 순으로 집계되었다.

다른 예로 ADB의 경우, 2013년 평가보고서(Asian Development Bank, 2013)를 통해 ADB의 지원이 MDGs와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ADB는 그간 ADB 전략과 사업 운영이 MDGs와 얼마나 연계되어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MDGs 달성을 위한 ADB의 기여를 측정하여 소개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동 연구는 2002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ADB 사업을 바탕으로 MDGs 목표별 성과를 측정하였으며, 하나의 사업이 복수의 MDGs 목표와 연계될 경우 하나의 대표값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37%의 ADB 재원이 MDGs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별로는 55%의 ADB의 사업이 MDGs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15%가 사업의 일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MDGs 목표별로는 MDGs 목표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과 MDGs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를 위한 경제 성장 지원을 ADB 지원 전략의 우선순위로 둠에 따라 MDGs 관련 지원의 1/3이 MDGs 목표 1에 관련 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ADB의 지원이 대규모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환경 문제, 도시개발, 식수공급 및 위생 시설 등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기에, MDGs 관련 직접 지원의 1/2이 MDGs 목표 7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ADB는 그간 ADB 전략이 일부 MDGs 목표와 연계되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계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EU와 ADB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MDGs 기여를 측정하는 합의된 국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각 공여기관의 MDGs 기여 측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여기관은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의 MDGs 관련 실적을 분석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여기관의 입장에서 지난 15년간 공여기관이 제공한 원조가 MDGs 기여를 위해 얼마나 제공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5년간의 원조 배분과 정책을 돌아보고 그를 통해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공여국의 MDGs 성과 측정에 관한 분석 보고서는 산발적으로 공여기관의 자체적 기준과 함께 일부 특정년도에 성과를 나타낸 보고서는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성과 측정을 연구한 보고서와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OECD DAC의 원조 실적 통계자료 및 KOICA의 통계실적 자료, 그리고 각 공여국의 정책 및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할 경우 해당 원조가 특정한 MDGs 목표 및 지표를 위해 제공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데이터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MDGs 이행실적 분석을 원조 실적 데이터를 활용한 투입재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적데이터를 활용한 MDGs 성과 측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목표별 지원액 규모로 측정해 볼 수 있다. 또한 MDGs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 여러 지표 수준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MDGs는 목표, 세부목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수준마다 지원액을 가름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면 지원액을 각 목표나 세부목표, 지표별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표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방대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연구에서는 각 목표별 지원액 비중을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우선 목표(goals) 수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MDGs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8개의 목표로 구성된 MDGs의 가장 큰 범주에서 실적을 분류하고 간단하게 각 목표별 지원 규모나 지원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MDGs 목표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세부목표(targets) 수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8개의 목표 아래 21개의 세부목표 수준으로 실적을 배분한다면 앞선 방법보다 비교적 자세한 내용의 분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지표(indicator) 수준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도 있다. 21개의 세부목표 아래 60개의 지표가 할당되어 있으므로 가장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표 수준으로 실적을 세분화 하는 것이 가장 정교한 성과를 측정하여 도출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량화된 지표를 모두 확보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지표 25(5~24세 인구 중 HIV 감염 비율)의 경우 HIV 관련 분야의 지원 실적 외에도 연령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지표 25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지표 44(도시 빈민가 거주 인구 비율)에 대한 측정 역시 해당 수원국의 도시 빈민가 거주 인구 비율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연관되어 계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액 관련 통계만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KOICA의 MDGs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MDGs 목표 및 세부목표(일부) 수준에서의 지원 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목표 및 세부목표별 지원액을 가름하기 위한 정보는 각 사업별로 부여된 원조목적코드(이하 CRS코드)를 기준으로 삼았다.

KOICA는 개별 사업이 MDGs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적관리 항목에 MDGs 마커 항목을 추가하여 사업별로 입력, 관리하고 있다. 마커 값으로는 MDGs 각 목표(goals)인 1부터 8, 0(해당없음)을 부여하고, 각 목표와 CRS코드는 1:다수로 매칭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목표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에는 5개의 CRS코드 13040(성병 대책(HIV/AIDS포함)), 16064(AIDS 사회적 영향 완화), 12250(전염병 관리), 12262(말라리아 퇴치), 12263(결핵 퇴치)을 분류하였다. 여기서 세분화가 가능한 일부 목표의 경우 세부목표(targets)까지 CRS코드를 분류하였는데, 목표 6에서는 CRS코드 13040, 16040이 지표 9(2015년까지 AIDS 확산 방지 및 감소)와 지표 10(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 보편적 공급)에, 12250, 12262, 12263은 지표 11(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예방 및 감소)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기존에 수립된 기준을 출발점으로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기존 분류를 살펴본 결과 비교적 분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틀은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없음'으로 분류된 CRS코드를 MDGs 각 목표에 매핑 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사실상 수원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해 투입하는 지원액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MDGs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70000번대 CRS코드인 인도적지원의 경우 목표 1(절대빈공 및 기아퇴치)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없음에서 목표 1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최근 추가된 여성폭력철폐(15180)의 경우 기존 분류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가 명백하므로 목표 3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에너지 관련 코드(기존 230**)의 경우 코드체계의 변경 및 추가로 인해 이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목표6의 경우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의 경우 세부목표 수준으로 분리가 가능하여 기존 목표 분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부목표만 나누었다. MDGs와 CRS코드의 매핑 관계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이렇게 CRS코드를 통한 MDGs 분류 방식은 1개 사업이 1개의 CRS코드를 가지므로, 목표(또는 세부목표)별 지원 금액의 중복계상 문제를 해결하며 MDGs 목표별 지원액의 총액이 KOICA의 총 지원액과 일치하여 목표별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사업 목적이 여러 분야에 걸쳐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MDGs의 특정

목표만을 지원한다고 해석하기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CRS코드가 부여되는 지침 자체가 단위 사업 안에서 가장 우선되는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부여되므로 MDGs 코드를 CRS코드와 연결하여 관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비교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구에 앞서 KOICA의 MDGs-CRS 연결 관계를 검토하여 목표 및 세부목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CRS코드에서 정의한 내용 간 차이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목표 4(아동사망률 감소)의 경우 120**인 기초보건 분야로 성과를 측정할 경우 해당 목표보다 실적이 과대집계 될 우려가 있다. 반면 목표 5(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의 세부목표인 세부목표 5(초중등교육에서 2005년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2015년까지 교육 성별 균형 달성)를 측정할 경우 15170(성평등 조직 및 제도), 15180(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 근절)만으로 성과를 측정한다면 해당 목표보다 실적이 적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적통계를 활용하여 MDGs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 중 목표(goals)와 세부목표(targets)를 혼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목표 수준에서 분류 가능한 CRS코드를 기준으로 각 목표별 이행 실적 및 성과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부 목표의 과대 및 과소 집계의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ICA의 지원 실적을 일차적으로 MDGs 각 목표별로 구분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진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일부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각 세부목표 수준에서의 이행 실적 및 성과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4(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 기회 제공)의 경우 목표 2(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와 같은 CRS코드로 실적을 집계하고 있지만, 목표 2의 경우 111** 교육일반 및 112**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모든 코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11220(초등교육), 11230(비정규교육)만 집계해야 세부목표 측정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4. 한계점

본 연구는 실적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행실적을 분석하였고, CRS코드를 MDGs 목표 및 세부목표에 맞춰 연결시키는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다. 투입재원을 사용하여 실적분석을 실시하다보니, 성과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뤄지기 어렵고, CRS코드를 연결하는 기준 상 특정 목표나 세부목표에 과대 혹은 과소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으며, MDGs 달성시한 종료 후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MDGs 이행실적을 분석해야 하는 제약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행실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장에서 MDGs에 대해 살펴본 후, 3장에서는 공여국의 MDGs 정책 및 실적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4장에서는 KOICA의 MDGs 정책 및 실적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7장에서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표 1〉 MDGs – CRS코드 연결 기준

목표(Goals)	세부목표(Targets)	CRS코드 (기존)	CRS코드 (추가)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1.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1일 소득 1달러 미만 인구 비율 절반 감소	43040, 43050, 16020	43010, 43081, 51010, 720**, 730**, 740**
	2.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기회 및 일다운 일자리 제공	113**, 114**, 311**, 312**(31220 제외)	23310, 23320-23340
	3,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기아인구비율 절반 감소	313**, 321**, 322**, 323**, 520**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4.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 기회 제공	111**, 112**	
3.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5. 초중등교육에서 2005년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2015년까지 교육 성별 균형 달성	15170	15180
4. 아동 사망률 감소	6.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미만 사망률 2/3 만큼 감소	120**(12250, 12262, 12263 제외)	
5. 모성보건증진	7.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산모 사망률 3/4 만큼 감소	130**(13040 제외)	
	8. 2015년까지 임산부 보건 접근 기회 보편화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9. 2015년까지 AIDS 확산 방지 및 감소	12250, 12262, 12263, 13040, 16064	13040, 16064
	10.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 보편적 보급		
	11.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예방 및 감소		12250, 12262, 12263

목표(Goals)	세부목표(Targets)	CRS코드 (기존)	CRS코드 (추가)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12. 국가 정책에 지속가능 개발원칙 통합 및 손실된 환경자원 복원	140**, 210** 23210, 23065-23070, 31220	23***(23310, 23320-23340 제외)
	13. 생물다양성 멸종 예방 및 2010년까지 멸종율 완화		
	14.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 위생 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 절반 감소	16010, 16030, 16040, 16050, 43030	210**
	15.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여건 개선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16.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체제 개발	150**(15170 제외), 16061-16063, 220**, 240**, 25010, 331**, 530**, 600**	25020, 33210, 43082
	17. LDC의 특수한 문제 해결		
	18. 내륙국가 및 도서국가의 특수한 개발 문제 해결		
	19. 장기 안정적인 외채 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의 포괄적 해결		
	20. 민간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도국에 필수 의약품 제공		
	21.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 신기술 혜택 확산		
	CRS코드 210**과 23040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목표 1 또는 7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 적절히 판단하여 두 목표 중 하나로 입력		
0. 해당없음	25020, 230**(23030-23040, 23065-23070 제외), 33210, 43010, 43081, 43082, 51010, 910**, 930**, 998**, 720**, 730**, 740**		910**, 930**, 998**

출처: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 통계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Ⅱ. MDGs 개관

1. MDGs 수립 배경

MDGs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개발된 글로벌 목표로, 그 역사가 1996년에 발표된 OECD의 7대 국제개발협력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IDGs)까지 올라가게 된다. 냉전체제 종료이후 1990년대에는 기존의 경제개발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 사회개발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1] 또한 당시 미국 등 선진 공여국을 중심으로 ODA 규모가 줄어들고, 다수의 공여국이 원조 피로(aid fatigue)를 느끼는 상황을 반영하여, OECD DAC에서는 조화로운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제한된 재원의 지원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96년 OECD DAC은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간하였는데, 이 문서에서 향후 MDGs의 출발점이 된 7대 IDGs가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7가지 IDG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표 달성 기한을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파트너쉽, 주인의식, 공여국의 원조일치를 강조하였는데,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최초로 원조에 대한 공여국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서로 평가되고 있다.[2] 7대 IDGs의 세부사항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이후 UN 회원국들은 2000년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OECD의 '21세기 개발협력전략' 보고서 및 1990년대에 개최된 여러 국제회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

1) KOICA ODA교육원은 국제개발협력 입문편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성장과 식민 지배를 벗어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중요시하였다. 이후 국제사회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경제개발 이외의 기본적인 삶의 중요성을 개발협력 논의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양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1990년대는 글로벌화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어졌다. 1992년 환경개발회의,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5년 세계여성회의 등은 경제개발위주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사회 개발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다.(KOICA ODA교육원 2016)"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역사를 약술 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KOICA ODA교육원 2016'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2013' 등을 참조 바람.

2) 상세내용 'OECD (1996)' 참조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UN의 새천년선언은 인권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UN은 전 세계 공동의 개발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결정하였다(UN, 2000). 또한 UN의 새천년선언이 채택되던 때와 같은 해인 2000년에 OECD, UN, 세계은행(World Bank, WB),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계를 위해(Better World for All: Progress toward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라는 보고서를 합동 발간하여, OECD가 제시한 국제개발목표와 글로벌 파트너쉽을 강조하였다. UN 사무총장도 「21세기 UN의 역할(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전 세계 1일 소득 1달러 미만의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의 결과로 다음 해인 2001년 각국 정상들은 MDGs를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UN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MDGs 달성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2001년 수립된 MDGs는 1996년 개발된 OECD DAC의 7대 IDGs에 글로벌 파트너쉽을 더하여 총 8개의 목표로 최종 수립되었으며, OECD DAC 21세기 개발협력전략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던 7대 IDGs와 MDGs의 8대 목표는 다음 [표 2]에 비교하여 상술되어 있다.

〈표 2〉 OECD 국제개발목표와 UN MDGs 비교

7대 IDGs(1996년)		UN MDGs(2001년)
경제적복지	1. 2016년까지 절대빈곤 비율 1/2 감소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사회개발	2. 2015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 초등교육 의무화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의 성차별 근절을 통한 양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3.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
	4. 2015년까지 5세미만 영유아 사망률 2/3 감소	4. 아동사망률 감소
	5. 2015년까지 산모사망률 3/4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2015년까지 모든 개인의 기초 의료제도 및 모자보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6.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환경 지속가능성과 재생	7. 2015년까지 현재의 환경재원 손실을 효과적으로 역전(reverse)시킬 수 있도록 2005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개발 국가전략 이행	7. 지속가능한 환경 촉진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출처: 임소진 (2012), 55쪽

2. MDGs 세부목표 및 달성 결과

1) MDGs 세부목표

MDGs는 8개의 목표 아래 21개의 세부목표와 6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목표가 합의된 이후에도 세부목표와 지표에 변경이 있었다. 그 중 하나로 2001년 목표 수립 당시,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를 위하여 목표 1의 첫 번째 세부목표로 설정되었던 1일 소득 1달러 미만의 인구 비율 반감은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준 변경으로 인해 2009년 그 기준이 1.25달러 미만으로 변경 되었다(World Bank, 2009). 이외 일부 세부목표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적용하고 수립된 각 목표와 지표들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UN에서는 연도별로 UN MDG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 3〉 MDGs 세부목표 및 지표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Goal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1. 1990-2015년간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비율 반감[3]	1.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비율
	2. 소득 격차 비율
	3. 국가소비에서 극빈층 비율(quintile)
2.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 제공	4. 고용인 1인당 GDP 성장률
	5. 인구 대비 고용비율
	6. 1일 소득 1달러 미만 고용인 비율
	7. 총 고용인 중 자영업자 및 가족기업비율
3. 1990-2015년간 기아 인구 비율 반감	8.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9. 최소열량섭취 기준미만 인구 비율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4.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의 기회 제공	10. 초등학교 순 취학률(net enrollment)
	11. 초등학교 전 과정 이수 학생 비율
	12. 15-24세 여성과 남성의 문자 이해율
Goal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5. 교육에서 성별 간 차이 초·중등교육 2005년까지, 모든 교육 2015년까지 제거	13. 초·중·고등학교 남학생 대 여학생 비율
	14. 비농업부문 여성고용 비율
	15. 국회 여성 의석 비율
Goal 4. 아동사망률 감소	
6. 1990-2015년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2/3 감소	16. 5세 미만 아동사망률
	17. 영아사망률
	18. 1세미만 유아 홍역 예방접종률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Goal 5. 모성보건 증진	
7. 1990-2015년간 산모사망률 3/4 감소	19. 산모사망률
	20. 숙련된 보건의료인에 의한 출산비율
8.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21. 피임률
	22. 청소년 출산 비율
	23. 산전 관리 범위 (최소 1회 또는 4회 방문)
	24. 가족계획 요구 일치도
Goal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9. 2015년까지 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25. 15-24세 인구 중 HIV 감염 비율
	26. 고위험자의 피임도구 사용
	27. 15-24세 인구 중 HIV/AIDS의 정확한 지식 보유 비율
	28. 10-14세 아동 중 비고아아동 대 고아아동 학교 출석 비율
10. 2010년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HIV/AIDS 치료의 보편적 보급	29. 항레트로 치료가능 HIV 보균자 인구 비율
11.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감소	30. 말라리아 발생율과 사망률
	31. 살충처리 모기장 사용 5세 미만 아동 비율
	32. 5세 미만 아동 중 적합한 항 말라리아 약품치료 중 열 발생 비율
	33. 결핵 발생율, 감염비율, 사망률
	34. 결핵 발견사례 및 DOTS[4] 치료사례 비율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12.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국가정책으로 통합 및 환경자원 손실 복원	
13.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및 감소율의 현저한 저하	35. 산림지 비율
	36. 전체, 1인당, 그리고 GDP(PPP) 1달러 당 이산화탄소 배출
	37. 오존 파괴물질 소비
	38. 안전한 생태환경에 사는 어족 비율
	39. 전체 수자원 이용 비율
	40.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 비율
	41.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의 비율
14.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비율 반감	42. 개선된 식수자원 사용 인구 비율
	43.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
15. 2020년까지 최소 1억명 빈민가 거주자 생활 여건의 현저한 향상	44. 도시 빈민가 거주인구 비율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Goal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16.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체계 발전	
17. 저개발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18. 내륙국 및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19.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문제의 포괄적 해결	[원조]
	45. GNI 기준 DAC 공여국의 순 원조 비율, 총 원조 비율,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 비율
	46. DAC 공여국의 기본 사회서비스(기초교육, 기초 보건관리, 영양, 안전한 물, 위생)에 대한 총 양자 원조 및 분야별 양자원조 비율
	47. DAC 공여국의 양자원조 중 비구속원조 비율
	48. 내륙국이 GNI로 받는 원조 비율
	49.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이 GNI로 받는 원조 비율
	[시장접근]
	50. 개도국 및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선진국 무관세 수입 비율 (가격으로 측정, 무기 수입 제외)
	51. 개도국 농산품, 섬유, 의류에 대해 선진국이 부과한 평균 관세
	52. GDP 기준 OECD 국가 농업 지원 추정치
	53. 무역 역량 개발 지원원조 비율
	[부채 지속가능성]
	54. HIPC[5] 의사결정 시점에 도달한 총 국가수 및 HIPC 완료 시점에 도달한 국가수(누적)
	55. HIPC 및 MDRI[6]에 의한 부채경감
	56.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부채서비스 비율 * 위의 지표 중 일부는 저개발국, 아프리카, 내륙국,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에서 차별화되어 모니터링 되고 있음.
20. 민간제약회사와 협력, 필수 의약품의 개도국 제공	57. 지속적 구입 가능 필수의약품 이용 가능 인구 비율
21.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 혜택 확산	58.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59. 100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
	60.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출처: 임소진 (2012), 56-58쪽

3) 2001년 개발 당시는 1일 소득 1달러 기준이었으나, 2009년부터 1.25달러로 변경
4)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course) : WHO 표준 결핵 치료법
5)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 채무빈곤국
6)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 다자간 부채경감 이니셔티브

2) MDGs 달성 결과 분석

UN MDGs 보고서(2015)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국가, 지역, 세계적인 노력으로 MDGs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다양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비록 구체적인 달성 결과에 대하여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고르지 못한 달성도를 보여주었으나 그동안 각각의 개별 목표를 위한 적절한 전략과 자원 투입으로 예측하지 못한 성과들도 있었던 바, 2015년까지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UN, 2015).

MDGs 1번 목표(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비율 및 기아 인구에 대한 반감과 일자리 제공에 대하여 목표치에 근접하였고, 빈곤율은 1990년 대비 절반 이상의 감소율을 보여주었다.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에 대한 목표 2의 경우, 초등교육의 순 취학률이 2000년대의 83%에서 2015년 91%에 도달하였고 사하라이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목표치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비록, 아프리카 지역은 목표치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1990-2000년 사이의 8%에서 2001-2015년간 20%라는 가장 큰 개선을 이루어냈다.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에 대한 목표 3에서는, 개도국 지역 내 2/3 국가가 초등교육 수준의 양성평등을 달성하였다. 다만, 초등교육에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교육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지역적, 국가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도는 느리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는 수익에 상관없이 성별 차이가 존재함을 드러냈으며, 여성의 경우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져도 남성보다 실업률이 더 높고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사망률 감소에 대한 목표 4에서는,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하여 1000명 출생 인원 당 90명에서 43명으로 사망률이 반 이상 감소하였다. 평균적으로 가구의 경제적인 여건, 교육 수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개선된 평등한 기회로 최근 10여 년간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빠른 감소를 나타내었다. 모성보건 증진을 위한 목표 5에서는 1990-2015년간 산모 사망률이 거의 반감되었고, 2014년 기준 출산의 71%이상이 숙련된 보건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도국 내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고, 산모의 산전 진단 등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부분에서는 목표에 달성되지 못하였다.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에 관한 목표 6에서는, 에이즈의 경우 2000-2013년 사이 신규감염자의 약 40% 가량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에이즈 관련의 사망률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규 감염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0-19세 청소년층에서의 감염 비율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에이즈 감염테스트와 치료제에 대한 접근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와 감소에 관한 세부목표에서는 세계적으로 15년간 발생율의 37% 가량의 감소와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58%가량 감소함으로 해당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결핵도 감소율은 느린 편이지만, 15년까지 결핵발생과 확산을 저지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속가능한 환경의 확보를 위한 목표 7에서는, 오존파괴물질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2050년에는 오존층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1990년 이후 50% 이상 증가하였고 삼림 벌채, 수산물의 과잉남획 등으로 인하여 인간 및 생태계 종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개선된 식수자원 사용인구 비율이 1990년의 76%에 비해 2015년에는 91%로 증가되었으며,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개선된 위생 상태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에 대한 목표 8에서의 결과로 2000-2014년 사이 선진국으로부터의 ODA 지원율이 2000년 대비 66% 증가한 1,350억불 규모를 기록하였다. 2014년 기준 전체 DAC 회원국의 총 ODA는 GNI 대비 0.29%이며 그 해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영국이 GNI 대비 0.7% ODA 기준을 초과 달성하였다. MDGs 목표 기간 동안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대한 ODA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개도국과 선진국 간 무역에서의 무관세 수입 비율이 2000년 대비 14% 증가한 79%를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선전화 이용률, 인터넷 사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듯 MDGs는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지만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 지역적으로 그 과정과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성별과 나이, 장애 유무, 민족성과 지정학적 문제로 그 혜택을 수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행 과정 중에 발견된 한계점을 통하여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다 표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번 MDGs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였던 경험은 데이터의 적절한 수집과 사용이 개발을 위한 노력에 큰 자극제가 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UN, 2015).

〈표 4〉 MDGs 목표별 주요 달성현황

MDGs 목표	주요 달성 현황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 개도국 내 절대빈곤율 1990년 47% 대비 2015년 14%로 감소 • 절대빈곤인구 19억 명에서 8억 3,600만 명으로 기존 대비 절반 이상 감소 • 개도국 내 영양결핍 인구 1990년 이후로 절반에 가까운 감소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개도국 순 취학률 2000년 83% 대비 2015년에 91% 도달 • 초등교육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2000년 1억 명에서 2015년 5,700만 명으로 반감 • 15-24세 연령대 문해율 1990-2015년 사이 83%에서 91%로 증가 및 남녀 간 차이 감소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 개도국 전반적으로 초, 중, 고등교육에 대한 성비 불균형에 제거에 대한 목표 달성 • 농업이외 분야 여성 근무자 41%로 1990년보다 약 6% 증가 • 1991-2015년 사이 여성 취약고용율이 13% 하락, 남성의 취약고용율도 9% 하락 • 지난 20년간 174개국의 90% 가량에서 여성이 의회 대표직을 획득하였으며, 의회 내 여성의 평균 비율 두 배로 증가
4. 아동사망률 감소	• 1990-2015년 기간 1,000명의 출생인원 당 90명에서 43명으로 사망률의 절반 이상의 반감 •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1,270만 명에서 6백만 명으로 감소 • 2000-2013년간 홍역 예방접종을 통해 1,560만명 사망 예방 및 홍역발생 67% 감소 • 2000년 73% 대비 2013년 기준 세계 83% 아동이 1회 이상의 홍역 백신 수혜
5. 모성보건 증진	• 모성사망률 세계적으로 45% 감소 • 1990년 59% 대비 2014년 기준 71%이상의 출산이 숙련된 보건인력의 도움 아래 진행 • 15-49세 연령대 여성의 피임약 보급률 1990년 55% 대비 2015년 64%로 증가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2000-2013년간 신규 HIV 감염이 40%가량 감소 및 감염인원 350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감소 • 2014년 6월 기준 감염자 1,360만명 항레트로 치료 수혜 • 말라리아 발생률 및 관련 사망률이 각각 37%, 58% 하락 • 2000-2013년 사이 결핵 예방, 진단, 치료가 3,700만명의 생명유지에 기여, 결핵사망율도 1990-2013년 사이 45% 하락, 동 기간 발병률도 41% 하락

MDGs 목표	주요 달성 현황
7.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 오존파괴물질이 실질적으로 1990년대 이후로 제거되고 있어 오존층 2050년 이내로 회복 전망 • 1990년대 76% 대비 2015년 세계인구의 91%가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 • 1990년 이후로 26억 명의 인구가 개선된 수자원 접근 가능해졌고, 세계 인구의 반 이상 58%가 현재보다 개선된 서비스 향유 • 21억 명이 개선된 위생상태 접근 가능 및 야외배변인구가 1990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 • 2000-2014년 사이 개도국 내 도시 빈민가 거주 인구 비율이 거의 39.4%에서 29.7%로 감소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 2000-2014년 사이 공여국으로부터의 ODA 66%증가로 1,352억 규모 달성 • 2014년,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GNI 대비 0.7%의 UN ODA 목표 초과 달성 • 2014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입이 2000년 대비 65%에서 79%가 무관세로 증가 진행 • 2000년 세계인구의 6% 가량이 이용하던 인터넷 사용 2015년 기준 43% 증가

출처: UN (20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앞서 결과를 분석하는데 참고하였던 UN MDGs 보고서(2015) 이외에 MDGs의 결과를 전 기간에 걸쳐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나 저널은 실제적으로 찾기 어려웠다. 그 가운데 2016년 WB에서 발간한「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 2015/2016 : Development Goals in an Era of Demographic Change)」에서 MDGs에 대한 평가를 일부 찾을 수 있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가 2000년 이래 이룩한 많은 개발 성과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강하고 탄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모두의 MDGs 달성 노력을 통하여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고 수백만 명의 5세 미만 아동들이 그 시기를 무사히 넘겼으며,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발생율을 감소시켰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록 아직 달성되지 못한, 중요한 개발 이슈들이 남아있으나 전반적으로 MDGs가 국제개발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MDGs의 경험이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향한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였다. (World Bank, 2016)

3. MDGs 의의 및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DGs 목표 도입 및 세계 각국의 달성 노력에 힘입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MDGs 달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다만, 모든 목표 달성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엄밀히 말하면 MDGs 목표 달성을 실패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MDGs의 도입 및 이행으로 이해 개발협력분야의 여러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먼저, MDGs는 달성 시한과 함께 달성 목표를 정량적 수치로 제시하고, 측정을 위한 지표 제시와 함께 달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MDGs 목표의 달성현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조사업 실시 이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baseline survey) 실시와 중간점검(모니터링), 그리고 결과측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MDGs의 결과 중심 패러다임은 사업 완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하여 교훈을 도출하여 후속사업에 반영, 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이로 인해 개발협력 전반에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 중심의 사업수행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소진(2012)은 MDGs가 개발도상국 정부의 국가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점이 되었고, 공여국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MDGs 중심 중점목표를 존중하여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공동의 노력을 위한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MGDs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MDGs의 한계 또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각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개도국에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하는 부담이 주어졌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MDGs 목표 및 세부지표들이 개도국에서 달성되어야 할 지표들로 구성되다 보니, 공여국에게는 책무가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도 있었으며, 셋째, MDGs 수립과정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부분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MDGs 달성을 위해 정량적인 목표치를 지향하다 보니 개발의 질적 부분을 간과하게 되었다는 단점이 있었다.[7)]

---

7) 초등학교 입학률을 증가시키겠다는 정량적 목표치를 기반으로 MDGs는 입학률 증가 자체에는 큰 기여를 했으나,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임소진 2012)

Ⅲ. 공여국의 MDGs 정책 및 실적 분석

1. 타공여국의 MDGs 이행 정책

주요 공여국들은 MDGs 달성 시한 내, 보다 효율적인 이행 성과를 이루어내고 국제사회 내 다른 공여국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국 정부의 기조에 맞춘 전략과 정책적 방향을 세워서 이행하여 왔다.

영국의 원조기관인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의 2012-13년 기관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영국은 MDGs 달성을 통하여 저개발국의 가난을 감소하는 데에 전반적인 활동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2012-15년 사업 계획에서는 투명성 강화, 열린 정부, 소녀와 여성의 삶 개선 등 기관 내 다수의 우선순위와 이 시기 영국의 개발정책이 MDGs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각 정부부처는 기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적 내용이 담긴 Public Service Agreement(PSA)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DFID의 경우, PSA가 MDGs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른 정부기관과 그 목표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은 때로는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다른 부처의 정책에 영향 받을 수도 있어 협업을 중시하고, 정책 일관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하였다(DFID, 2013).

2005년 영국정부는 'The UK's contribution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보고서 발간을 통해 MDGs 달성을 위하여 영국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와 2015년까지 영국과 국제사회가 MDGs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소개했다. 이는 ① 개발을 위한 재정 확대, ② 더 효과적인 개발원조, ③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조성 강화, ④ 더 취약한 국가 지원, ⑤ 아프리카 우선 전략, ⑥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의 6가지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적재원 및 외부 민간재원 동원을 통하여 전반적인 개발 목적의 재원 투입 증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 및 원조 예측가능성 개선 등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진행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무역개혁과 DAC, EU 파트너등과의 국제사회 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고, 일관된 정책 하에 취약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각 개발 목표에 대하여 큰 진전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식수 및 위생환경 공급 등으로 환경과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대응이 우선순위로 진행되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언급되었다(UK, 2005). 또한 2014-15년 연차보고서를 참고하면, DFID는 앞서 언급하였던 정책적 우선순위 방향에 따라 저소득국과 분쟁취약국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4년 4월부터 MDGs의 3번 목표를 위해 모든 사업에 관련하여 양성평등 측면을 의무적으로 하고, DFID 프로그램 관리 규칙에도 양성 평등 법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다(DFID, 2015).

한편, DFID는 MDGs 대부분의 목표와 관련된 교육, 보건, 영양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하여 Girls Education Challeng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GPE)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여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사역량강화, 교육시설 건설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치료를 위한 글로벌 펀드 지원, 소아마비 퇴치 지원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펀딩으로 보건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이행을 지속하였다. 특히, 영양 관련 농업 연구를 의뢰하기 위해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함께 새로운 파트너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6-24개월 아이들 대상의 고품질 저비용 보완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 및 정부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새로운 영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DFID, 2015).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 시기 MDGs 달성을 위하여 진행한 각 목표별 이행 노력과 한계점을 기술한 보고서에서 2009년 미국 정부가 MDGs를 '미국의 목표'로 환기시키며 강조함을 보여주었다. 2010-2011년 사이 에이즈 이외 모자보건 및 열대질병과 교육 관련 이니셔티브 등 MDGs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노력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힐러리 미 국무장관 하에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는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었고, 보건, 위생, 교육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략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자연재해, 분쟁과 같은 외부의 충격요인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청정에너지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과 같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의 입법 노력과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노력을 보여주었다(End Poverty 2015 Millennium Campaign, 2010).

2011년 7월, 호주는 원조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원조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호주의 원조 프로그램은 MDGs

달성을 위한 목적 하에 5개의 세부 전략적인 목표에 의해 움직이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 5개 세부 전략은 ① Saving lives, ②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 ③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④ 효과적인 거버넌스, ⑤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이다.

호주 정부는 종합 원조정책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Aid Policy Framework, CAPF)[8]를 통해 MDGs 달성 기한인 2015년까지 원조를 어떻게 어느 곳에 적절하게 배치할지에 관련된 로드맵을 제공하였다. MDGs 2번 목표인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과 관련하여 교육은 호주의 주력 원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체 2011-12년에는 전체 원조의 18% 가량을 지원하면서 수혜 혜택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교육의 질적인 부분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AusAID, 2012a).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증진으로 이는 호주의 원조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양성평등 개선은 실질적으로 모든 MDGs에 영향을 미치는데, 호주의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보건과 교육 서비스의 접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영향력 증대 및 리더쉽 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범죄 근절의 4가지 분야에 적용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였다.

종합원조정책 프레임워크 상, 호주의 우선순위 지원 지역은 전체 ODA 지원의 75% 가량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유지하는 기조를 보여주었고, 원조 프로그램의 절반가량을 취약국에 지원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소득국(LD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앞서 주력분야로 언급하였던 교육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표 원조 프로그램으로 전체 25% 가량을 할당하여 지원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정책상 새천년 개발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 배치에 대한 조정에 대하여 재검토 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정세에 맞추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연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AusAID, 2012b).

일본의 경우, MDGs 달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안전보장, 역량개발, 인프라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전담원조기관인 JICA를 통하여 각 목표별 접근 전략을 통한 이행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JICA 보고서의 일부 개발목표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면, 1번 목표의 빈곤 감소를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 경제적인 정책과 인프라를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특히 식량공급의 안정화와 증가, 개도국 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식량 배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점으로

8) 종합 원조정책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Aid Policy Framework, CAPF) : 2012년 5월 수립된 5대 개발목표 중심의 새로운 전략 프레임워크로 4개년 중기 원조예산전략과 함께 2015-16년까지 달성되어야 할 주요 성과들에 대한 각 결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

하여 아프리카 국가별 쌀 생산 전략(National Rice Development Strategy, NRDS)[9]을 통한 식량 안보 확대 지원을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 안전한 물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삼림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전략을 기초로 하여 단순 시설 지원만이 아닌 위생 인식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강화 노력을 나타내었다(JICA, 2012).

일본 외교부의 2010년 백서를 참고하면, 교육, 보건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일본의 전략과 방향을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건 분야는 모자보건과 에이즈와 결핵・말라리아 3대 질병 퇴치, 국제적 긴급 보건 상황에 대한 대응의 3가지 핵심 분야를 가진 '2011-2015 글로벌 보건 전략' 수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육 목표 측면에서는 '일본 교육협력정책 2011-2015' 수립으로 기초 교육 지원을 비롯하여 2차 교육, 직업훈련과 같은 기초교육 이후의 교육 지원, 분쟁과 재난 영향권에 있는 국가 교육 지원의 3가지 핵심 분야의 구성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MOFA(Japan), 2010).

위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들의 전략은 달성 기한 내 특정 목표만을 위한 MDGs 만의 고유 정책 수립이 아니었다. 대부분 자국 기존의 정책을 활용하여 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성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중점 지원지역이나 특정 분야를 설정하여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들의 개발 정책에서 MDGs 이행은 별개의 독립적 이행의무가 아닌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정책의 전반을 관통하는 개념의 접근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시설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개선, 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가 간, 민관의 활발한 협력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달성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2. 타공여국의 MDGs 이행 실적

본 절에서는 KOICA의 MDGs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타공여국의 MDGs 이행 실적과 성과는 어떻게 드러났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OECD DAC 공여국 총 지원 실적을 중심으로 각 목표별 지원 비중과 연도별 지원 추이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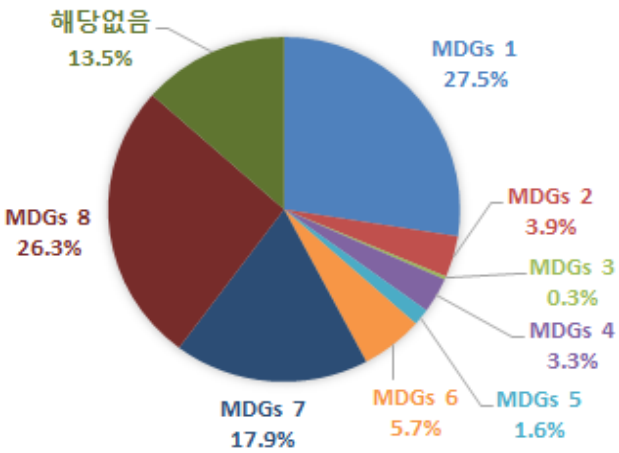
9) 국가 쌀 생산 전략(NRSD): JICA는 2008년 아프리카 녹색혁명동맹(the 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 AGRA)와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10년간 아프리카 쌀 생산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아프리카 지역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이니셔티브인 아프리카 쌀 생산 연합(Coalition for African Rice Development, CARD)를 시작하고, 본 전략을 통해 식량안보 확대를 도모하려 함.

공여국(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실적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3장에서 살펴본 해당 공여국의 전략이 어떻게 MDGs 지원 실적으로 반영되어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여국의 MDGs 목표별 실적 분류도 한국 및 KOICA의 실적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MDGs 실적 자료는 OECD DAC 통계사이트(OECD stats)를 통해 얻었다. 단, CRS코드별로 정리된 자료는 2002년부터 제공하기 때문에 기간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정하였다.

1) OECD DAC의 MDGs 지원

DAC 공여국의 MDGs별 실적을 살펴보면, 목표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이 27.5%, 목표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이 26.3%,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이 17.9%로 다른 목표들에 비해 위 세 목표에 대한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표 3(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은 0.3%, 목표 5(모성보건증진)가 1.6%, 목표 2(보편적 초등교육 달성)는 3.9%로 지원 비중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4장 초반에 언급했듯이, ①MDGs-CRS 코드를 연결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②각 국가별 지원 양상이 다른 결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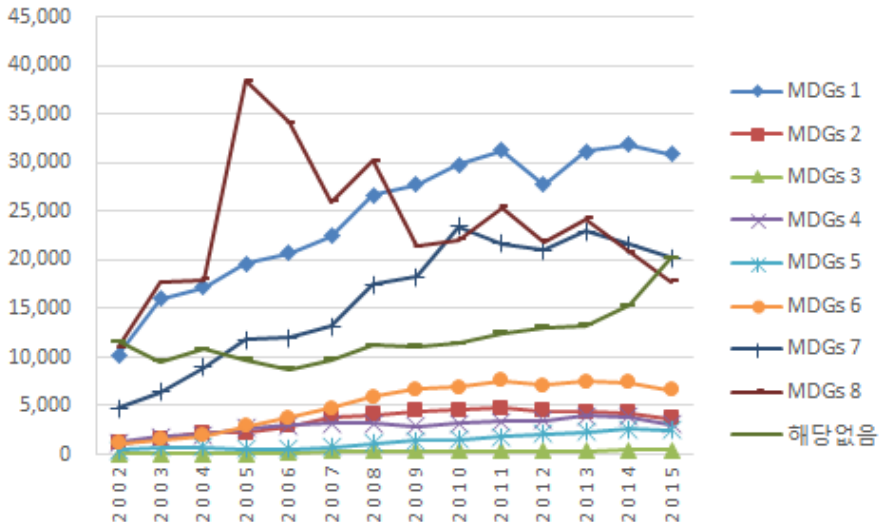
〈그림 1〉 OECD DAC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DAC 국가들의 전체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목표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과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의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0년, 2011년 이후 다소 정체 및 감소하며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표 1의 세부실적은 인도적 지원 분야(70000)를 비롯하여 43010(다부문 원조), 51010(일반예산지원 관련 원조) 및 11420(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분야에 많은 지원이 되었다. 목표 7의 세부실적 중 주요 지원 분야는 21020(도로 운송), 21030(철도 운송)을 비롯하여 41010(환경정책/행정/관리) 및 14020(식수개발 및 위생처리-대규모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목표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에 대한 지원액은 2005년 급증한 이후 꾸준히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세부실적을 살펴본 결과, 60020(채무탕감)과 관련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OECD DAC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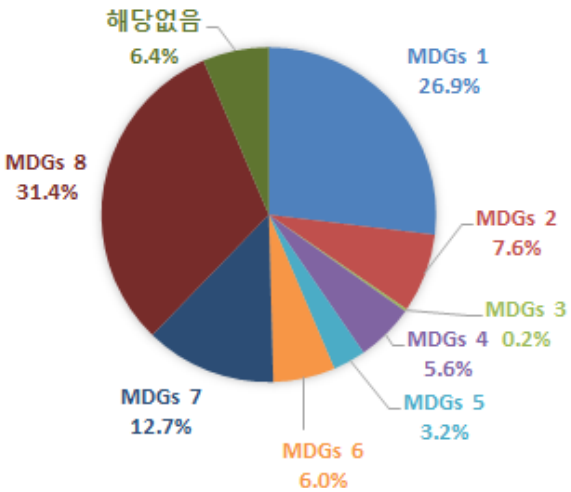
DAC 공여국 전체의 실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각 공여국마다 원조 전략이나 분야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별 지원 양상은 분명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전략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MDGs 이행 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영국의 MDGs 지원

영국의 경우 MDGs 목표별 지원 비중은 주로 목표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에 31.4%, 목표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에 26.9%를 지원하며 두 목표에 대한 지원이 다른 목표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한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이 12.7%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목표들은 모두 10% 미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DAC 전체 실적 비중과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면서도 목표 1과 8에 더욱 집중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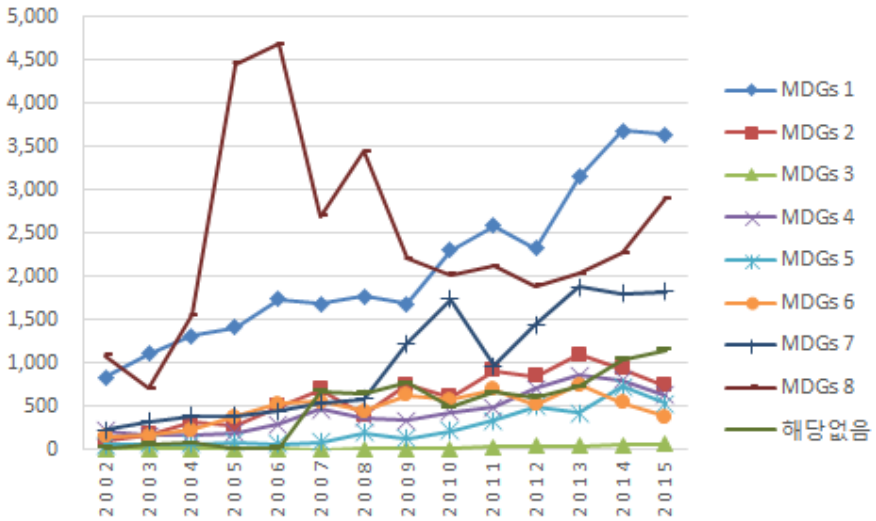
영국의 MDGs 목표별 지원액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목표 1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목표 1의 주요 세부 지원 분야는 70000(인도적지원 분야) 및 51010(일반예산 지원 관련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43010(다부문 원조), 43040(농촌 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목표 7은 200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6010(사회/복지 서비스), 41010(환경정책/행정/관리), 14030(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21010(운송 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나타냈다. 목표 8은 2005년과 2006년에 급증하였고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나이지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대한 60020(재무 탕감)분야에서 대규모로 진행이 되었다. 이외에는 15110(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15150(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15220(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예방), 24030(공공 금융기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주로 진행되었다([그림 4] 참조).

〈그림 3〉 영국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그림 4〉 영국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앞서 살펴본 영국의 MDGs 정책 문서의 주요 내용과 실적을 연결지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적 우선순위와 구체적 이행노력 언급된 것들은 분야별로 정리하면 ①식수 및 위생환경 공급, ②환경과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대응, ③교육, 보건, 영양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 개선, ④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치료, ⑤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식수 및 위생환경 공급(①)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②)은 실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모두 목표 7의 주요 지원 분야(41010, 14030)의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⑤)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수원국의 행정제도와 재정시스템 개선 지원 등 거버넌스 환경 구축을 위한 간접적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목표 8의 일부 분야(15110, 15150, 24030)의 지원 실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구체적 이행노력으로 교육, 보건, 영양(③)의 경우, 앞서 영국의 각 MDGs 목표별 지원액 변화 부분에서 타 목표 대비 상대적으로 그 지원 비중이 작아 주요 목표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목표 2의 대부분이 11110(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11220(초등교육) 분야에 지원되었었다. 또한 목표 4의 대부분이 12110(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12220(기초 보건 진료)분야에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대적인 금액은 적지만 12240(영양)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도 다소 두드러지는 것을 통해 교육, 보건, 영양 분야에 대한 영국의 정책적 노력이 실적으로 잘 드러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끝으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④) 관련 지원 역시 앞서 언급했던 지원비중이 크게 나타난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목표 6에서 다루는

12250(전염병 관리), 12262(말라리아 퇴치), 13040(성병 대책)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263(결핵퇴치)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었다. 영국의 MDGs 정책문서에서 드러난 주요 지원 분야의 실적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추가로 영국의 MDGs 정책 중 분야가 아닌 지역적 우선순위인 아프리카 지역 및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아프리카 전체는 41.1%(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8.6% 포함), 취약국 50.9%로 전체 ODA 지원 비중이 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시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영국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목표	CRS코드	분야명	지원액(백만불)
1	43010	다부문 원조	2,985
	43040	농촌 개발	1,650
	51010	일반예산지원 관련 원조	6,484
	72010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7,056
	72040	긴급식량원조	2,348
2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3,326
	11220	초등교육	3,839
4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2,283
	12220	기초 보건 진료	2,029
	12240	영양	518
5	13020	생식보건	2,495
6	12250	전염병 관리	2,387
	12262	말라리아 퇴치	1,213
	13040	성병 대책 (HIV/ AIDS 포함)	2,700
7	14030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1,008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2,559
	21010	운송 정책 및 행정관리	1,148
	41010	환경정책/ 행정/ 관리	3,405
8	1511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5,001
	15150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2,685
	15220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예방	2,036
	24030	공공 금융기관	3,166
	60020	채무 탕감	8,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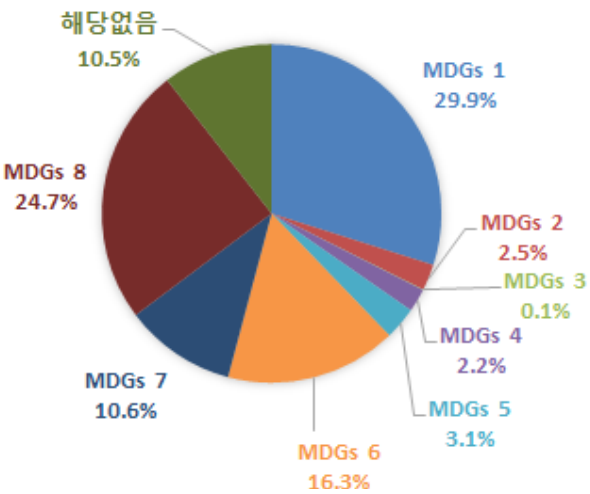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3) 미국의 MDGs 지원

미국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목표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에 29.9%, 목표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에 24.7%, 목표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에 16.3%를 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DAC 국가 전체 실적 중 목표 6이 5.7%로 매우 작았던 것에 비하면 목표 6에 대한 지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미국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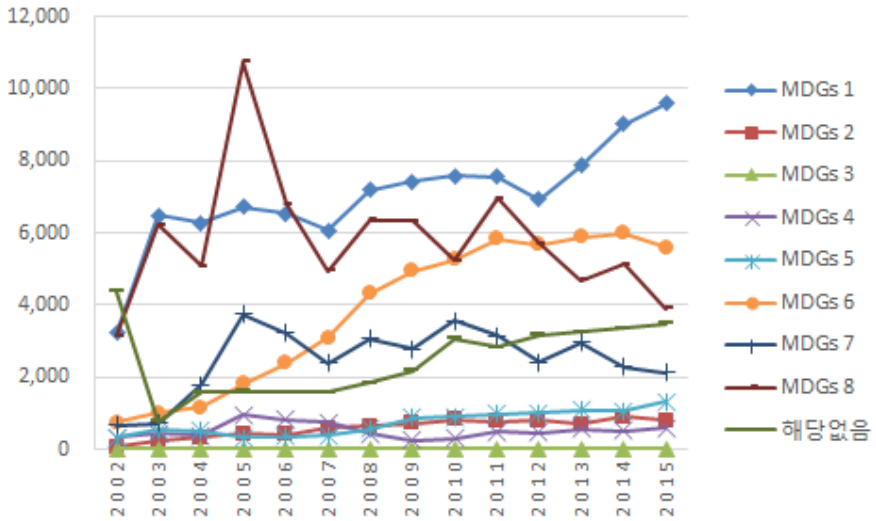
미국의 MDGs 목표별 지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목표 1과 목표 6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목표 1의 세부실적으로는 70000(인도적지원과 관련된 실적)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51010(일반예산지원 관련 원조), 52010(식량 원조 식량 안보 프로그램), 43010(다부문 원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목표 6의 경우 13040(성병 대책(HIV/AIDS포함)) 관련 실적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8은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1513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15110), 채무탕감(60020)이 주요 실적이었고, 2005년 동 목표가 급증한 것은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채무탕감이 진행된 영향이었다([그림 6] 참조).

〈그림 5〉 미국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그림 6〉 미국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미국의 정책목표의 주요 분야는 ①에이즈, 열대질병 퇴치, ②모자보건 및 보건, 위생, ③교육, ④거버넌스 개선, ⑤기후변화 관련 지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앞서 확인했듯이 미국의 경우 에이즈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퇴치(①) 노력은 목표 6의 실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13040(성병대책)분야를 중심으로 전염병, 말라리아, 결핵 분야에 대규모 지원을 하였다. 다음으로 모자보건 및 보건, 위생 분야(②)에 대한 전략적 노력은 주요 목표는 아니었지만 목표 5의 13010(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13020(생식보건), 13030(가족계획)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목표 4의 12220(기초 보건 진료), 목표 7의 14020(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분야에 대한 지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③) 관련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역시 주요 목표는 아니었지만 목표 2의 11220(초등교육), 11110(교육정책 및 행정관리)등에 대한 대규모 지원 실적으로 정책적 노력이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거버넌스 개선(④)은 목표 8에서 15110(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15130(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16063(마약 관리), 25010(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등에 대한 지원 실적을 통해 수원국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 분야(⑤)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은 목표 7에서 41010(환경정책/행정/관리), 41020(생물권역 보호), 41030(생물다양성), 23110(에너지 정책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지원 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원조금액이 다른 공여국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목표 2, 4, 5, 7의 경우

MDGs 목표별 지원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다른 공여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이 투입되면서 미국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MDGs 정책과 분야별 주요 실적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미국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목표	CRS코드	분야명	지원액(백만불)
1	43010	다부문 원조	9,738
	51010	일반예산지원 관련 원조	5,348
	52010	식량 원조 식량 안보 프로그램	9,254
	72010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29,488
	72040	긴급식량원조	22,311
	73010	재건 구호	1,321
2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1,112
	11220	초등교육	6,285
4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1,247
	12220	기초 보건 진료	3,346
	12230	기초 의료 설비	1,040
	12240	영양	1,491
5	13010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1,388
	13020	생식보건	4,008
	13030	가족계획	4,837
6	12250	전염병 관리	4,137
	12262	말라리아 퇴치	3,726
	12263	결핵 퇴치	1,341
	13040	성병 대책 (HIV/AIDS 포함)	44,549
7	14010	수자원정책/행정관리	1,449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 대규모 시스템	3,047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5,031
	21010	운송 정책 및 행정관리	4,646
	21020	도로 운송	3,196
	23110	에너지 정책 및 행정 관리	3,746
	23630	전력 송전 및 배전	3,903
	41010	환경정책/ 행정/ 관리	1,917
	41020	생물권역 보호	1,638
	41030	생물 다양성	1,576

목표	CRS코드	분야명	지원액(백만불)
8	1511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13,360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14,658
	16063	마약 관리	7,150
	25010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5,677
	60020	채무 탕감	11,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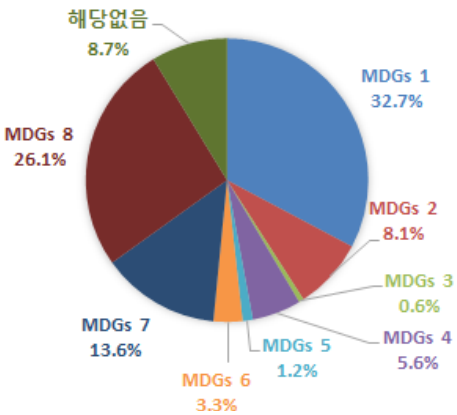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4) 호주의 MDGs 지원

호주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은 목표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32.7%, 목표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26.1%로 두 목표에 대한 지원 비중이 다른 목표들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이 13.6%를 기록했다. 이는 목표 1과 8의 순서만 다르고 지원 비중은 영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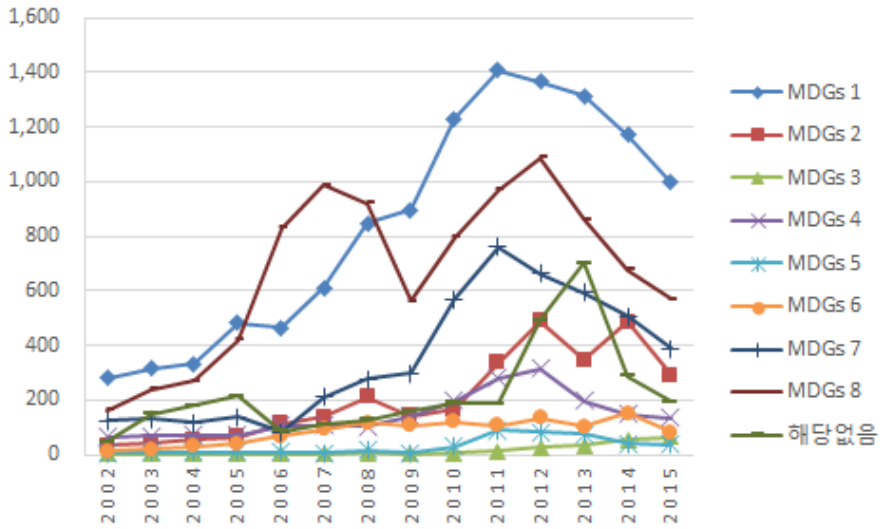
호주의 MDGs 목표별 지원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목표 1과 7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목표 1의 세부 지원 분야는 43010(다부문 원조), 43081(기타 교육)분야와 72010(긴급구호의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다. 목표 7은 21020(도로 운송)에 대한 세부 분야를 위주로 지원하였다. 목표 8의 경우 미국, 영국이 채무탕감을 주로 했던 것과 달리 15110(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15130(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그림 8] 참조).

〈그림 7〉 호주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그림 8〉 호주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CRS 분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호주의 5개 세부전략과 관련 MDGs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효과적인 거버넌스, ②인도적지원 및 재난대응, ③초등교육 지원, ④양성평등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5개 세부전략안에 포함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①)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목표 8의 주요 지원 분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적지원 및 재난대응(②) 역시 앞에서 언급한 긴급구호 외에도 긴급식량원조, 재건구호 및 재난방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관련 정책의 일부를 살펴보면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③)은 목표 2의 11220(초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목표 2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④)과 관련해서는 목표 3 15170(성평등 조직 및 제도)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보면 호주의 경우 MDGs 정책문서에서 드러난 분야별 지원 계획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 실적으로 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양성평등 실현 노력과 같은 경우 동 연구에서 분야로 한정한 CRS코드 15170(성평등 조직 및 제도)으로만 파악하기보단 모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범분야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젠더 마커 등)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호주의 MDGs 목표별 주요 분야 지원 실적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호주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목표	CRS코드	분야명	지원액(백만불)
1	72010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1,727
	72040	긴급식량원조	474
	72050	긴급구호 조정/보호 및 안전확보	261
	73010	재건 구호	488
	74010	재난방지 및 대비	360
2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1,249
	11220	초등교육	1,021
3	15170	성평등 조직 및 제도	206
8	1511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3,437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1,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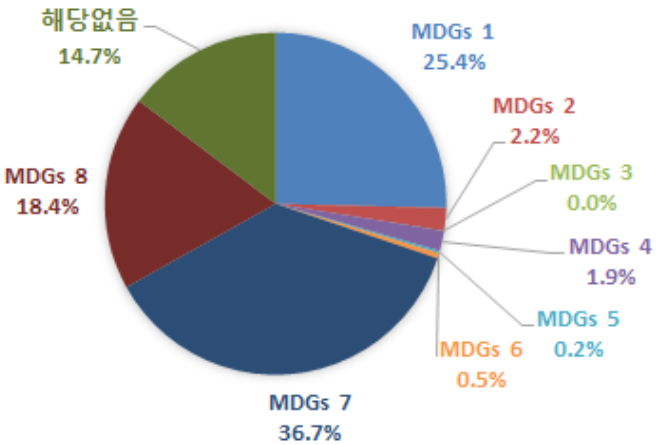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호주의 분야별 MDGs 지원 정책 외에 지역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약 75%의 원조를 유지하는 것을 계획하였고, 실제 살펴본 결과 약 73.3%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 지원되었다. 취약국 지원의 경우 약 42.3%로 영국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본의 MDGs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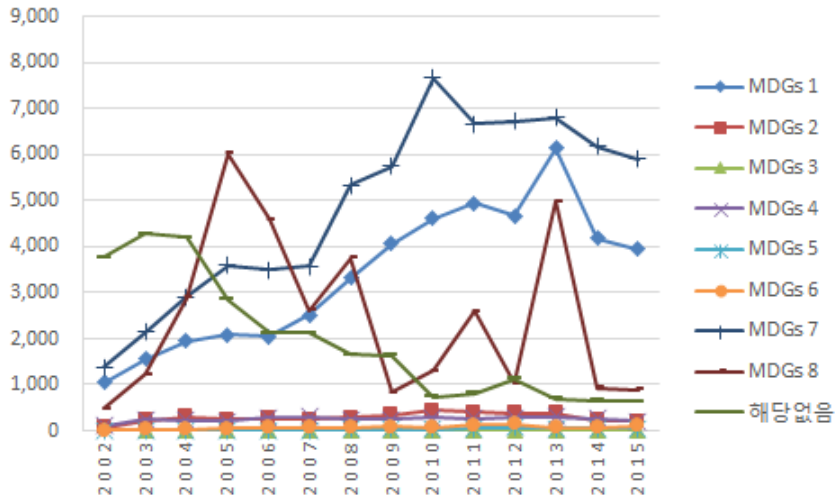
일본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은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이 36.7%로 가장 많았고, 목표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이 25.4%, 목표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이 18.4%로 나타났다. 특히 위 세 목표의 합이 전체 지원액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특정 목표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9] 참조). 일본의 MDGs 목표별 지원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목표 1과 7 모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 1의 경우 2013년 일시적으로 지원액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목표 1의 세부 지원 분야는 51010(일반예산지원 관련 원조)이 가장 많았고, 11420(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43010(다부문 원조)이 그 뒤를 이었다. 목표 7의 경우 21010(도로운송)과 21020(철도운송), 14020(식수개발 및 위생처리-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목표 8은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60020(채무탕감)에 대한 지원이 제일 높았다. 2005년에는 이라크, 2006년에는 나이지리아와 이라크, 2013년에는 미얀마에 대한 대규모 채무탕감이 진행되었다([그림 10] 참조).

〈그림 9〉 일본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그림 10〉 일본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일본의 MDGs 정책에서 드러난 주요 지원 분야는 ①기초교육, 직업교육 등의 인적자원개발 및 역량강화, ②사회경제 정책 및 인프라 개선, ③식량공급 및 식량배분 안정화, ④모자보건 및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⑤환경보호, 물 공급 확대 및 위생 인식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인적자원개발 및 역량강화(①) 분야에 대한 지원은 목표 2의 11110(교육정책 및 행정 관리), 11120(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11220(초등교육) 등에 대한 지원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목표 1에서 11420(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지원도 큰 규모로 이루어져 기초교육과 더불어 이후의 교육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 정책 및 인프라 개선(②)이라는 다소 넓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앞서 언급한 사회 분야인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보건, 의료 등 다른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프라의 경우 도로, 철도, 수로, 항공 운동(21020, 21030, 21040, 21050)에 집중되어 있었고 23630(전력 송전 및 배전)에 대한 지원 등 주로 목표 7의 세부 분야로 지원되었다. 더불어 목표 1에서도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23320, 23340)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인프라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식량 문제(③)와 관련된 지원으로는 52010(식량 원조 식량 안보 프로그램)의 지원 실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금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지는 않았다. 모자보건과 각종 질병 퇴치에 대한 노력(④)역시 실적으로 확인한 결과 모자보건과 관련된 목표 5에 대한 지원이 총 5천만불 미만, AIDS와 각종 질병과 관련된 목표 6에 대한 지원이 총 1억불 미만으로 다른 목표들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적을 보였다. 끝으로 환경, 물, 위생 관련 개선(⑤) 노력은 목표 7의 41010 (환경정책/행정/관리), 41050(홍수방지/대책), 31220(임업 개발), 23220(수력 발전소), 14020(식수 개발 및 위생처리 – 대규모 시스템), 14030(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14040 (하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MDGs 정책의 주요 지원 분야 실적은 [표 8]과 같다.

〈표 8〉 일본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목표	CRS코드	분야명	지원액(백만불)
1	11420	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5,384
	23310	에너지 생산, 재생불능 자원 - 미분류	1,805
	23320	석탄화력 전기발전소	1,750
	23340	천연가스화력 전기발전소	2,525
	31140	농업용수자원	2,332
	32110	공업정책/ 행정/ 관리	1,305
	32130	중소기업개발	1,453
	43010	다부문 원조	4,996
	51010	일반예산지원 관련 원조	6,462
	52010	식량 원조 식량 안보 프로그램	2,101

목표	CRS코드	분야명	지원액(백만불)
2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1,170
	11120	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1,298
	11220	초등교육	1,281
4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1,300
7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 대규모 시스템	8,100
	14030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1,740
	14040	하천 개발	1,559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1,188
	21020	도로 운송	15,197
	21030	철도 운송	12,790
	21040	수로 운송	2,501
	21050	항공 운송	3,233
	23220	수력 발전소	2,213
	23630	전력 송전 및 배전	3,287
	31220	임업 개발	1,742
	41010	환경정책/행정/관리	3,033
	41050	홍수방지/대책	1,399
8	1511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1,992
	60020	채무 탕감	21,450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이렇듯 정책과 실적을 연관 지어 살펴보았을 때, 각 국가들은 MDGs 달성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그에 대한 이행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우선 영국의 경우 일부 중점 분야와 지역이 있었으나 함께 분석한 나머지 3개국에 비해 모든 목표에 대하여 고른 지원 노력을 보여주어 대체로 수립된 정책이 잘 이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 가장 큰 지원규모와 함께 세부적인 분야별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며, 호주의 경우, CAPF를 통하여 드러난 세부적인 원조 계획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각 분야에 따른 구체적 실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도 각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특정 목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4개 공여국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서, 모두 결과 프레임워크나 각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른 성과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영국은 PSA를 비롯하여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이행실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결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국가적 진행 상황을 평가해왔다.

다른 3개국도 각각 성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구조 자체가 MDGs 달성을 위한 진전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형태였다. 고로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구성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개발목표의 국가별 이행도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 영국이 위 언급한 3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실제 이행까지 잘 연결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한국의 MDGs 정책 및 실적분석

1) 한국의 MDGs 이행 정책

한국의 원조정책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2006년 설립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있다. 한국의 MDGs 달성, 이행과 관련된 정책은 2006년 수립된 '2006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책에서 한국정부는 'MDGs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도국 내 절대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증대(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6)*참고문헌 목록에 없음'하는 것을 국제개발협력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과 LDC에서 MDGs 달성 위주의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유상협력의 경우 MDGs 달성에 부응하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중점지원을 제시하며 교육.보건.환경 등의 사회인프라 지원을 강조하였다.

〈글상자 1〉 2006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중 MDGs 관련 사항

□ 추진목표 : MDGs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도국 내 절대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증대

□ 다수의 LDC가 위치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 ㅇ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인간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BHN) 충족 및 MDGs 달성 위주의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
- ㅇ 빈곤감소 등 MDGs 달성기여를 목표로 인도적 지원 추진

3.2 유상협력 계획

□ MDGs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달성에 기여

□ 국제사회의 개발목표(MDGs등)달성에 부응하고 개도국의 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으며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점지원

□ 교육·보건·환경 등 「사회인프라」지원을 강화, MDGs 달성에 기여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6)

〈글상자 2〉 ODA 중기전략 중 MDGs 관련사항

1. 중기 ODA 추진방향

□ 2015년 MDGs 달성 목표로 ODA 정책과 전략 및 실행계획을 2단계 구분,

○ 08-10년은 UN MDGs 달성 목표연도(2015년)의 중간시점으로, 국제적인 MDGs 중간점검 과정에 적극 참여,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노력 전개

□ 원조규모 확대 지속 추진 및 무상비율 제고

- 2010년까지 ODA/GNI규모를 0.109%로 확대하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확대가능성을 매년 검토

※ MDGs 최종연도인 2015년 우리 정부의 ODA/GNI목표 0.25%는 UN권고수준 0.7%의 1/3에 불과하므로 원조규모의 상향조정 검토 필요

3. 양자원조 추진전략

□ 아프리카 : BHN 충족 및 MDGs 달성 위주의 인도적 지원 확대

※ '10년까지 무상협력은 약 20%,유상협력은 약 12% 수준 지원

나.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원 기준 : MDGs 달성 등 국제적인 개발목표 고려

다. 분야별 추진전략 : MDGs 달성에 부합하며, 개도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

□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 : 보편적인 초 · 중등교육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 MDGs 달성이 부진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지역 집중지원

□ 보건의료 : 보건의료 정책, 보건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위주 지원

- HIV/AIDS 감염관리 및 공중보건의료 체제 구축(기생충, 전염병 퇴치 등)

□ 정보통신 :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를 통해 MDGs 달성에 기여

4.다자원조: 다자기구와 협력을 통해 MDGs 달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7)

이후 2007년 수립된 'ODA 중기전략'에서는 한국의 중기 ODA의 추진 기본방향으로 MDGs 달성이 보다 자세히 제시되었는데, 2015년 MDGs 달성을 목표로 국제적인 MDGs 중간점검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 노력을 전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MDGs 최종연도인 2015년 우리 정부의 ODA/GNI목표인 0.25%는 UN권고수준 0.7%의 1/3에 불과하므로 원조규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등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6년 계획에 추가하여, 중점지원국 선정 시에도 MDGs 고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교육훈련 분야, 보건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서 MDGs 달성 기여,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MDGs 달성 기여를 제시하였다.

2010년에 수립된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부터는 MDG를 세분화하여 협력대상 국제기구를 소개하고 재원비율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20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도 MDGs 달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소개하고 있다.

〈글상자 3〉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

[유상협력]

Ⅰ. G20개발논의에서 제시한 MDGs 달성 및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의 역할에 주목하여, 개도국의 근본적 역량제고 및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기여, 협력대상국과의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

□ (아프리카) 경제협력 수요 증대, MDGs 달성을 위한 자립 성장기반 조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협력 확대

[무상협력]

I. 2015년 MDGs 달성 기여를 최우선 순위로,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ㅇ MDGs 달성 노력 확대, MDGs 달성성과가 저조한 LDC에 대한 지원 강화
- ㅇ 사업지역, 내용 선정에 MDGs 달성 현황을 주요 고려요인의 하나로 반영
- ㅇ MDGs 달성 현황 및 빈곤도 고려하여, LDC 및 분쟁·취약국에 양자 무상원조의 40% 내외 집중

□ 아프리카: 국제사회의 MDGs 달성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LDC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점진 확대

[다자협력(UN 및 기타 국제기구)]

□ MDGs 달성 등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간종합시행계획에 반영

- ㅇ 중점분야 : MDGs 달성, 범지구적 개발문제,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 노력,

□ 보건, 교육, 여성 등 MDGs 목표 달성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 증대

- ㅇ MDGs 달성이 저조한 지역(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의 LDC 중시

□ (범지구적 개발문제)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식량안보, 이주, 반부패, 인권, 전염병 문제 등 관련 국제기구 지원 강화

□ UN 및 기타 국제기구 정규재원 세부 지원계획(안)*

분 야			비율(%) *내외	대상기구안**
MDG 전반			30-35	UNDP, UNICEF, UNFPA, UNIDO
MDG 분야별		양성평등/여성의역량강화	3-5	UN Women
	범지구적문제	보건	15-20	Global Fund, GAVI, UNAIDS, WHO, IVI, UNITAID
		식량안보	10-15	WFP, IFAD, CGIAR, APFIC, CIFOR
		기후변화 등 환경	10-15	UNEP, GEF, UN Habitat, Biodiversity Int'ls, IPCC, ITTO
		이주, 반부패 등	3-5	IOM, UNODC, UNOHCHR
인도적위기 및 분쟁·취약 국가			10-12	OCHA, PBF, ICRC, UNHCR, UNRWA, UNMAS
아프리카/아시아			2-3	AU
기타			3-5	UNV, UNITAR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글상자 4〉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중 MDGs관련 주요 내용

1) 국제원조 규범 준수
□ (UN의 규범) MDGs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되, 특히 실적이 저조한 지역*및 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남아시아,**빈곤퇴치·보건 등

2) 포괄적 다자원조 전략
□ (중점분야) MDGs 달성, 기후변화·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원조와 보완적으로 활용
*양자차원의 접근이 힘든 취약국가나 인도지원 분야를 중점 지원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글상자 5〉 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Ⅰ. ' 10년 국제개발협력 추진실적 및 평가
□ (유상협력) '10년 EDCF집행규모는 '09년 실적(3,128억원)대비 31.3% 증가한 4,107억원,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인프라를 중점 지원하고, 보건 등 국제사회의 MDGs 달성에도 기여

1. 무상협력 계획
□ 운용 방향 : MDGs 달성 기여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에 기여
○ MDGs 달성 저조한 아프리카/LDC 지원강화→사업 선정시 MDGs 현황 고려
○ 교육, 보건 분야 등 MDGs 달성과 관련이 큰 분야 중점 지원

2. 유상협력 계획
□ (아프리카) 경제개발 수요 증대, 빈곤극복 등 MDGs 달성을 위한 자립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지원 확대
□ (사회 인프라)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에 부응하여 인적자원 개발,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지원 확대

3. 다자협력 계획

분 야			비율(%) *내외	대상기구
MDG 전반			43	UNDP, UNICEF, UNIDO 등
MDG분야별		교육	2	UNESCO 등
		양성평등/여성의역량강화	3	UN Women 등
	범지구적문제	보건	20	Global Fund, GAVI, WHO, IVI, UNITAID 등
		식량안보	7	IFAD, CGIAR, CIFOR 등
		기후변화 등 환경	6	UNEP, GEF, UN Habitat 등
		이주, 반부패 등	1	IOM, UNODC, UNOHCHR 등
인도적위기 및 분쟁·취약 국가			16	PKO, OCHA, PBF, ICRC, UNHCR, UNRWA 등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

한국의 MDGs 정책은 다음의 5가지 정책/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① 국제원조규범으로써 MDGs 달성을 위해 노력, ② 지역별 전략에서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MDGs 달성 위주의 인도적 지원 확대, ③ MDGs 달성에 부합하며,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 (분야별 전략에서 교육·훈련, 보건, 정보통신 분야에서 MDGs 달성 추진), ④ 유상원조는 사회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MDGs 달성에 기여, ⑤ 다자협력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MDGs 달성에 기여이다.

〈글상자 6〉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3. **다자협력 분야 :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MDGs전반·보건·환경·인도적 위기·**취약국에 중점 지원 추진

분 야			비율	대상기구
MDGs전반			16%	UNDP, UNICEF, UNIDO 등
MDG 분야별		교육	4%	UNESCO 등
	범지구적 문제	양성평등/여성역량강화	5%	UN Women 등
		보건	14%	Global Fund, GAVI, WHO, IVI, UNITAID 등
		식량안보	5%	IFAD, CGIAR, APFIC, CIFOR 등
		기후변화 등 환경	11%	UNEP, GEF, UN Habitat 등
		이주, 반부패 등	1%	IOM, UNODC, UNOHCHR 등
인도적위기 및 분쟁·취약 국가			8%	OCHA, PBF, ICRC, UNHCR 등
기타			35%	UN 의무기여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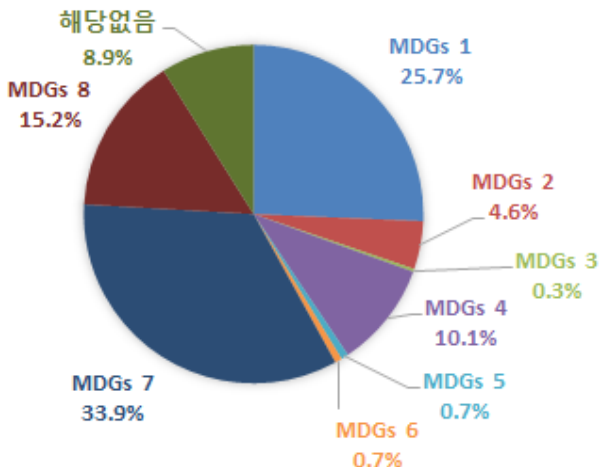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이렇듯 한국은 MDGs 이행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2006년 원조정책 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MDGs 달성에 관한 부분을 원조정책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지고 오고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어떻게 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는 MDGs 전체를 총괄하는 관점에서 원조 지원 및 배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이 부재하였기에, 심도 깊은 정책이나 사업추진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계적인 MDGs 달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은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년도의 유상원조가 MDGs 달성 기여로 보건, 위생 등의 분야에 지원된 금액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과, 2014년부터는 연도별로 수립되는 원조정책에서 조차 MDGs에 관한 정책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 등에서도 뒷받침 된다.

2) 한국의 MDGs 이행 실적

한국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은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이 33.9%로 가장 많았고, 목표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이 25.7%, 목표 8(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이 15.2% 순이었다. 뒤에서 상술 예정으로 이는 KOICA의 주요 3개 목표와 동일하나, 지원 비중과 순서에서 차이가 있었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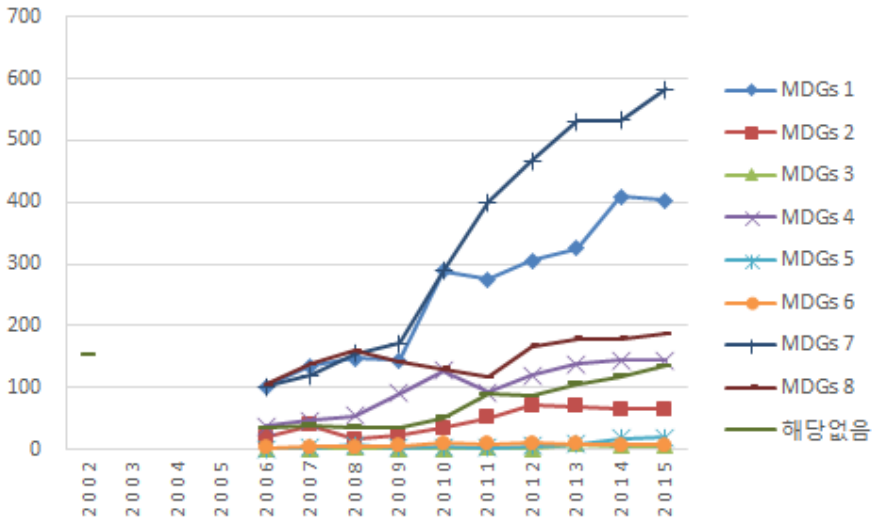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의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연도별로 살펴보면, 목표 7의 경우 2009년 이후 가파르게 지원액이 상승하였고, 목표 1의 경우 2010년 큰 폭으로 오른 이후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 목표 1의 경우 11420(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11330(직업훈련), 31120(농업개발), 43010(다부문 원조)이 주요 지원 분야로 나타났다. 목표 7의 세부 지원 분야는 21020(도로운송)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표 8은 미국, 영국, 일본과 달리 대규모 채무탕감과 관련된 실적은 없었으나, 주로 15110(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22040(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실적이 다른 분야보다 많이 지원되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한국의 연도별 MDGs 지원 추이



출처: 저자작성(stats.oecd.org)

한국의 MDGs 정책의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①교육, 보건, 위생, 환경 등 사회인프라 지원 강화, ②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인프라 지원, ③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의 지원, ④인간의 BHN 충족 및 인도적 지원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인프라(①)의 경우 목표 1의 11420(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및 11330(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은 교육 분야로, 목표 4의 12230(기초 의료 설비), 12191(의료 서비스), 14020(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지원은 보건 위생 분야로 지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분야(①)에 대한 지원은 41010(환경 정책/행정/관리)에 대한 약간의 지원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경제인프라(②)에 대한 지원의 경우 주로 21020(도로운송)이었고 23063(전력 송전 및 배전)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경제인프라의 한 부분인 정보통신분야(③)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2040(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을 참고하면, 유상원조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 인프라를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서도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체 실적에서는 교육, 보건, 환경과 같은 사회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함께 사회적 인프라 지원 규모가 경제인프라 지원보다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에 경제 인프라 중심으로 지원하였던 유상원조에서는, 앞서 주 지원 분야로 나타난 도로운송과 전력 송배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 실적을 보여주었고 정보통신기술 지원에서도 무상지원의 절반 규모를 나타내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통한 경제 인프라 지원이 강한 경향을 보여주는 가운데 기초의료설비와 식수 개발 관련 시스템, 환경 분야를 제외하고는 유상원조의 사회적 인프라 지원 확대 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대체적으로 사회적 인프라 지원은 무상원조쪽에서 중점 지원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BHN 및 인도적 지원(④)의 경우 주로 목표 1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표 1에는 앞서 언급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미 주요 실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31120(농업개발), 72010(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 실적이 약간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된 지역을 보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과 서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LDC국가들을 대상으로 MDGs 달성을 위한 인도적 지원 강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정책 방향과 비교하였을 때 계획 대비 아프리카 지역의 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OECD에 통계 보고를 시작한 시점이 2006년부터이고, 절대적인 지원액 자체도 다른 공여국보다 실적이 적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지원액 중 그 비중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주요 문서에서 나타난 정책적인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9]는 한국의 MDGs 목표별 주요 지원 분야 실적이다. 한국의 MDGs 분야별 정책목표 이외에도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 대한 원조 확대 및 취약국 지원을 살펴본 결과, 아프리카는 전체 원조의 18.4%로 아시아(60.2%)에 비해 1/3 수준에 그쳤다. 서남아시아의 경우 전체 원조의 20.0%, 아시아 원조의 1/3을 차지하였고, 극동아시아(31.8%) 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다. 취약국 지원은 39.9%로 호주(42.3%)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9〉 한국의 MDGs 정책의 분야별 주요 지원 실적

목표	CRS코드	분야명	지원액(백만불)
1	11330	직업훈련	384
	11420	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421
	31120	농업개발	256
	72010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173
2	11120	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205
4	12191	의료 서비스	233
	12230	기초 의료 설비	481

목표	CRS코드	분야명	지원액(백만불)
7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 대규모 시스템	456
	21020	도로 운송	1,270
	23630	전력 송전 및 배전	377
	41010	환경정책/ 행정/ 관리	111
8	1511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502
	22040	정보통신기술	375

출처: stats.oecd.org

Ⅳ. KOICA의 MDGs 정책 및 실적 분석

1. KOICA의 MDGs 이행 정책

KOICA도 한국의 원조정책 방향에 맞춰 기관 자체 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MDGs와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KOICA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사업수행 시 MDGs 달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사업목표로 수립하고, 연간 사업계획에 꾸준히 반영해왔다. 또한 2010년 수립한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에서도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시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글상자 7〉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성 증대 ㅇ MDGs,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PD),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글로벌 개발목표 달성 및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노력 가시화 필요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2010)

또한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에 맞추어 수립된 보건 및 교육 분야 중기전략 역시 MDGs를 기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KOICA는 분야별 전략. 사업계획 수립 시 MDGs에 관한 고려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MDGs 목표 중 기초교육 보편화 달성이 어려운 국가는 기초교육 격차 해소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의 국가에서는 교육의 질 개선 및 중등교육, 진학률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글상자 8〉 KOICA 교육 분야 지원전략 (2011–2015)

❑ 기초교육 보편화 달성이 어려운 국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등)는 국가별 교육분야 MDGs 실행계획을 정형화하여 지원 필요 ❑ MDGs 달성 가능한 국가는 초등교육의 질적 개선(교과서 보급, 교사역량 강화 등)과 중등교육으로의 진학률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 확대 필요. ㅇ 지원활동 1.1.3. 기초교육격차 해소 - 초중등 여학교 건립하여 MDGs 3(초중등 등록생 성별 격차 해소) 기여

ㅇ 지원활동 1.3.1. 국별 MDGs 달성 및 post primary교육 정책 수립 - 초등교육 보편화(MDGs 2)의 효과적 달성방안을 수립하고 우리의 교육발전경험을 활용하여 기초교육 보편화 후 발전 방향에 대해 자문 - 초등학교 중퇴율감소 및 졸업율 증가(MDGs 2) 위한 효과적인 방안 수립 ㅇ 지원활동 2.3.1. 국별 산업인력양성목표 달성 및 MDGs 달성 - 협력국별 잠재력 식별 및 실현을 위한 특정분야(농업, 제조업, 광업, ICT 등)인력양성 방안을 수립 - 청소년 취업률 증가 및 실업율 감소방안(MDGs 1)을 수립 - 여성의 비농업분야 임금노동 참여 증가 방안(MDGs 3)을 수립 - 청소년 문해율 제고(MDGs 2)를 위한 효과적인 달성 방안을 수립 - 초중등교육기관 등록생(MDGs 3)을 위한 효과적인 달성 방안을 수립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1b)

보건 분야 지원전략(2011-2015)에서는 MDGs 달성과 관련된 지원분야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과 전염성 질명의 예방 및 관리 강화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KOICA 보건 분야 중점 아이템 8개 중 5개가 이와 관련된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MDGs 달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글상자 9〉 KOICA 보건 분야 지원전략 (2011–2015)

❑ **취약계층, 취약질병 지원강화** ㅇ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 모성과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의 향상과 사망률의 감소를 통해 가임여성과 아동의 치료가능한 사망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키며 가족계획과 생식건강의 관리 향상을 통해 인구보건향상에 기여 ㅇ 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관리 강화 - 소외 열대성 질환, 결핵, 말라리아, HIV/AIDS 등 개발도상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 ❑ 보건의료 수요, MDGs, 비교우위를 고려 시 중점 아이템 ㅇ 가족계획 및 생식건강 향상 ㅇ 임신 및 출산 관리를 통한 모성사망률 감소 ㅇ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아동사망률 감소 ㅇ 소외열대 질병 (기생충 질병)의 예방 및 관리 ㅇ 결핵 관리 ㅇ 기초보건 및 의료 인프라 구축 ㅇ 의료 보험 제도 구축 ㅇ 보건의료 인력 양성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1a)

매년 수립되는 KOICA의 사업계획에서는 2004년 MDGs 달성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2007년부터는 각 지역별 국별 MDGs 달성현황을 사업 추진 필요성의 하나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이례적으로 UN의 2009년 MDGs 이행성과 보고서 결과에 따라 MDGs 달성이 저조한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하다고 밝히며, 각 목표별 사업추진 필요성과 대상 사업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2011년 수립한 국별협력전략에서도 국별전략 수립 시 MDGs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KOICA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다년간 반복하여 나온 MDGs 관련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MDGs 성과 저조한 LDC 지원 강화

② 아프리카 지역 지원을 통한 MDGs 달성

③ 서남아시아 지역 MDGs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④ 민관협력 : 민간단체 비교우위 활용한 MDGs 달성, 빈곤층 BHN 충족

⑤ 봉사단 : 개도국의 인적, 제도적 역량개발 통한 MDGs 달성지원 (교육보건 지원으로 BHN 충족, 지역개발, 공공행정 지원으로 자립역량강화)

⑥ 보건의료 MDGs 관련 부문 중점지원(모자모건, 전염병 퇴치)

⑦ 국제기구 지원 사업으로 MDGs 달성 기여

〈표 10〉 2011-2015년 KOICA 사업계획 중 MDGs 관련 사항

	추진방향	분야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프로젝트	민관협력	국제기구	연수	봉사단
2004				사하라이남 BHN 충족, MDGs 달성 위주 인도주의 지원						
2006	MDGs 성과 저조한 LDC 지원 강화					MDGs 달성 필요 사업추진(빈곤퇴치, 양성평등, 환경)	민간단체 비교우위 사업 중점지원으로 개도국 주민의 BHN 충족, MDGs 달성	MDGs 달성 역점사업 우선 지원		
2007					MDGs목표별 현황에 따른 국별차별전략			국제기구 MDGs 달성 노력 동참		
2008		MDGs 모자보건, 전염병지원						MDGs 달성 역점사업 우선 지원	MDGs관련 교육, 지역개발, 환경여성지원 확대	
2010	MDGs 성과 저조한 LDC 지원 강화		서아시아 지역 지원 강화(MDGs 달성)		저개발국 MDGs 현황에 따른 국별 차별전략 모색			MDGs 성과 저조지역 지원 확대		MDGs 달성 적극지원 (지역개발/보건 지원으로 BHN 충족, 교육, 정보통신, 환경지원으로 자립역량강화, 최빈국지원 확대)
2011	MDGs 성과 저조한 LDC 지원 강화, 사업선정에 MDG 현황 고려 요인으로 반영	MDGs 달성 기여 위해 교육 및 보건 분야 집중 지원	서아시아 지역 지원 강화(MDGs 달성을 위해 교육, 보건, 공공행정 지속 지원)	아프리카 LDC 중점 지원을 통한 MDGs 달성 기여				국제기구지원 확대로 MDGs 달성기여	인적역량강화 기여(교육, 보건, 농촌)로 MDGs 달성	
2012								MDGs 1은 WFP, MDGs 2, 4는 UNICEF		

	추진방향	분야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프로젝트	민관협력	국제기구	연수	봉사단
2013			남아시아 지역 MDGs 달성을 위한 지원 강화				민간네트워크 /비교우위 활용한 MDGs 달성, 빈곤층 BHN 충족			인적, 제도 역량개발 통한 MDGs 달성(교육 보건 지원 으로 BHN 충족, 지역개발, 공공행정 지원 으로 역량강화)
2014					취약층에 대한 기초교육, 의료보건, MDGs 달성 지원					
2015	MDGs의 지속추진									

출처: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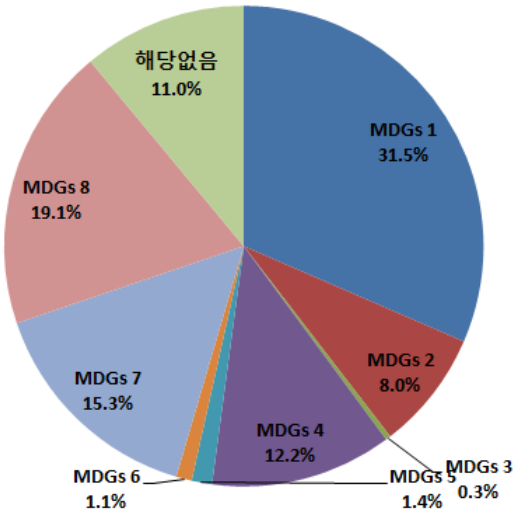
다만, 앞서 살펴본 한국의 원조정책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MDGs를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MDGs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MDGs를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은 부재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평가된다.

2. KOICA의 MDGs 목표별 이행 실적

앞서 설명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KOICA의 MDGs관련 지원액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기간동안 KOICA가 지원한 ODA 총액의 약 89.0%에 해당하는 4조 5,068억 원이 MDGs 기여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별로 살펴보면([그림 13] 참조), MDGs 1번 목표(절대빈곤 및 기아퇴치)가 약 31.5%의 지원이 이뤄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으로 MDGs 8번 목표(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에 19.1%, MDGs 7번 목표(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에 15.3%, MDGs 4번 목표(아동 사망률 감소)에 12.2%, MDGs 2번 목표(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에 8.0%, MDGs 5번 목표(모성보건 증진)에 1.4%, MDGs 6번 목표(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가족 질병 퇴치)에 1.1%, MDGs 3번 목표(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에 0.3% 순으로 지원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MDGs 목표의 구조 및 CRS코드를 분류한 방법론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결과이다. MDGs 1번과 8번 목표의 경우 거시적 차원의 목표를 포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CRS코드를 해당 목표로 분류하다 보니, MDGs지원 실적 비중도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ADB 등 타 공여기관의 실적 분류 연구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MDGs 3번 목표의 경우 포함하는 CRS코드가 3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교육 분야의 MDGs 목표인 2번 목표는 초등교육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보건 분야는 MDGs 목표 4, 5, 6번 목표에 나뉘어져 있다는 점 등에서 위와 같은 지원 비중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MDGs 목표별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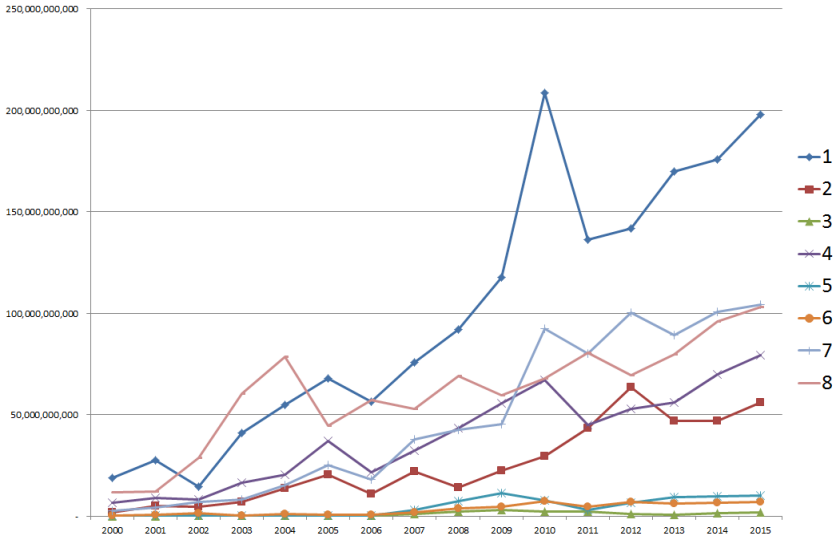
〈그림 13〉 2000-2015년 MDGs 목표별 지원 비중



출처: 저자작성(stat.koica.go.kr)

MDGs 목표별 지원액 추이는 ODA 지원액 자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각 목표별 등락이나 순위 자체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14] 참조). 대부분의 경우 MDGs 1번 목표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반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MDGs 8번 목표에 대한 지원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목표가 2011년에 지원액이 감소되었으나, MDGs 8번, 2번 목표 등은 오히려 지원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 기간 동안 지원액 비중이 낮았던 MDGs 목표 3번, 5번 6번의 경우, 증가율도 다른 목표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14〉 2000-2015년 MDGs 목표별 지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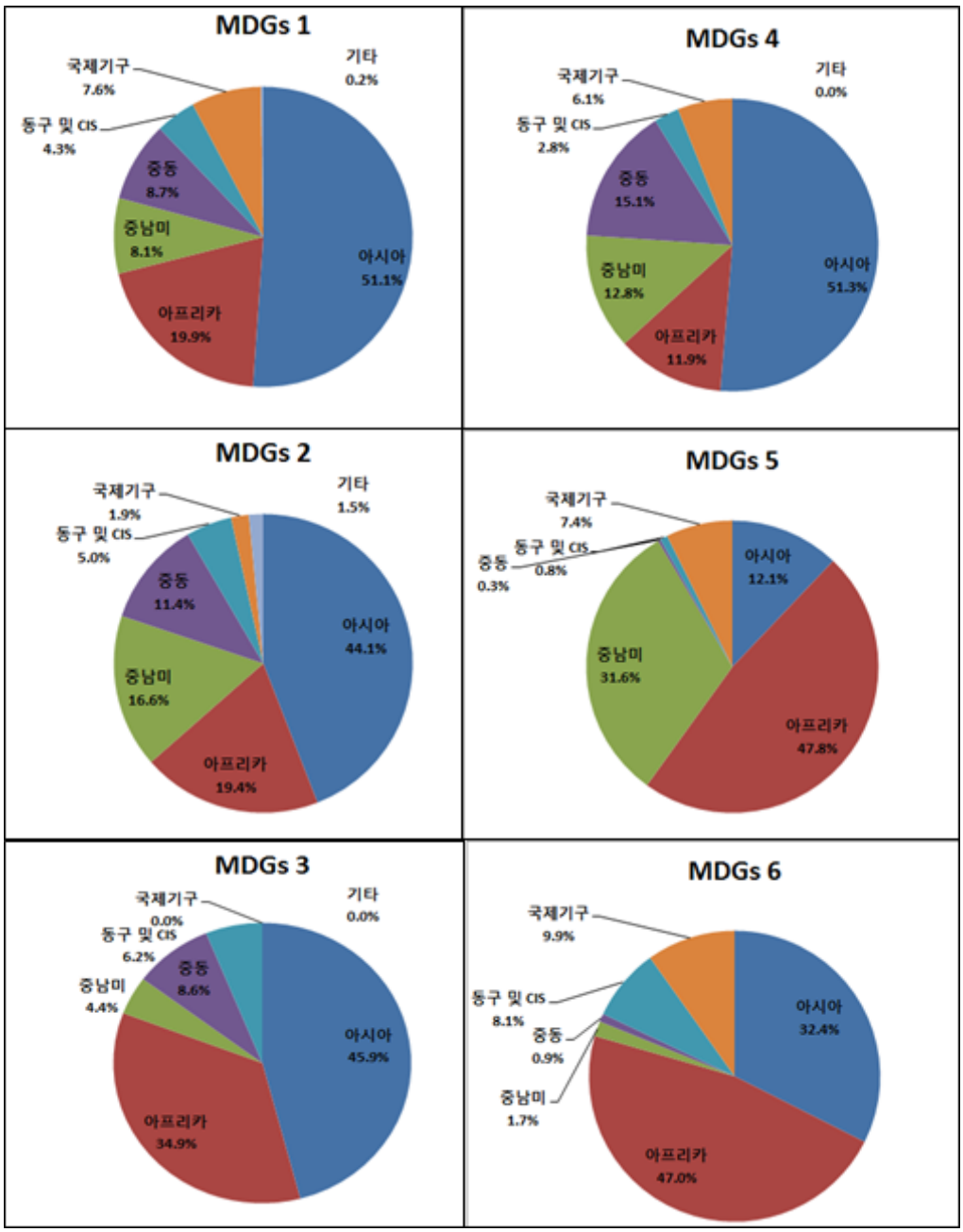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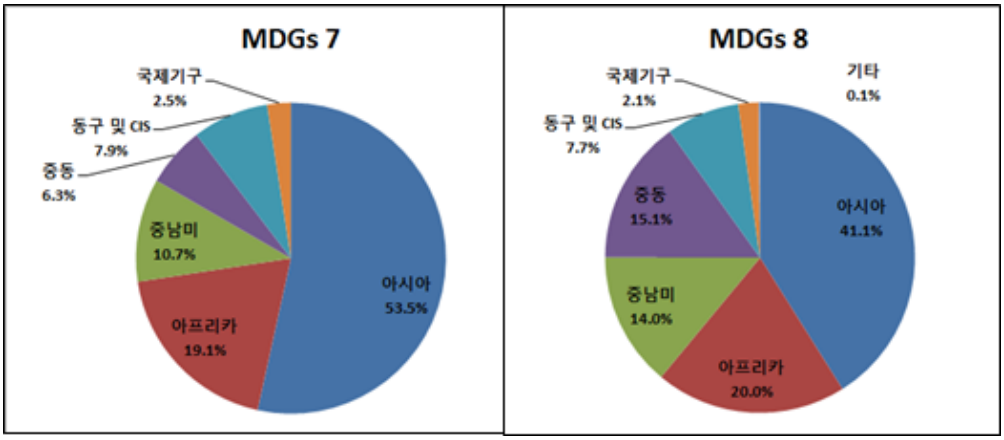
출처: 저자작성(stat.koica.go.kr)

한편, MDGs 각 목표별로 지원된 지역을 분석한 결과도 각 목표별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시아[10].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구 및 CIS, 국제기구. 기타 지역 순으로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MDGs 5번과 6번 목표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 비중에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원비중이 높은 지역 역시 5번 목표는 중남미, 6번 목표는 국제기구로 다른 목표와는 약간 다른 지원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DGs 목표별 사업유형 지원 비중 역시 각 목표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목표는 프로젝트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MDGs 2번 목표는 해외봉사단, 3번 목표는 연수생초청이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KOICA 통계 지역분류에는 오세아니아 지역이 별도로 존재하나, 편의상 오세아니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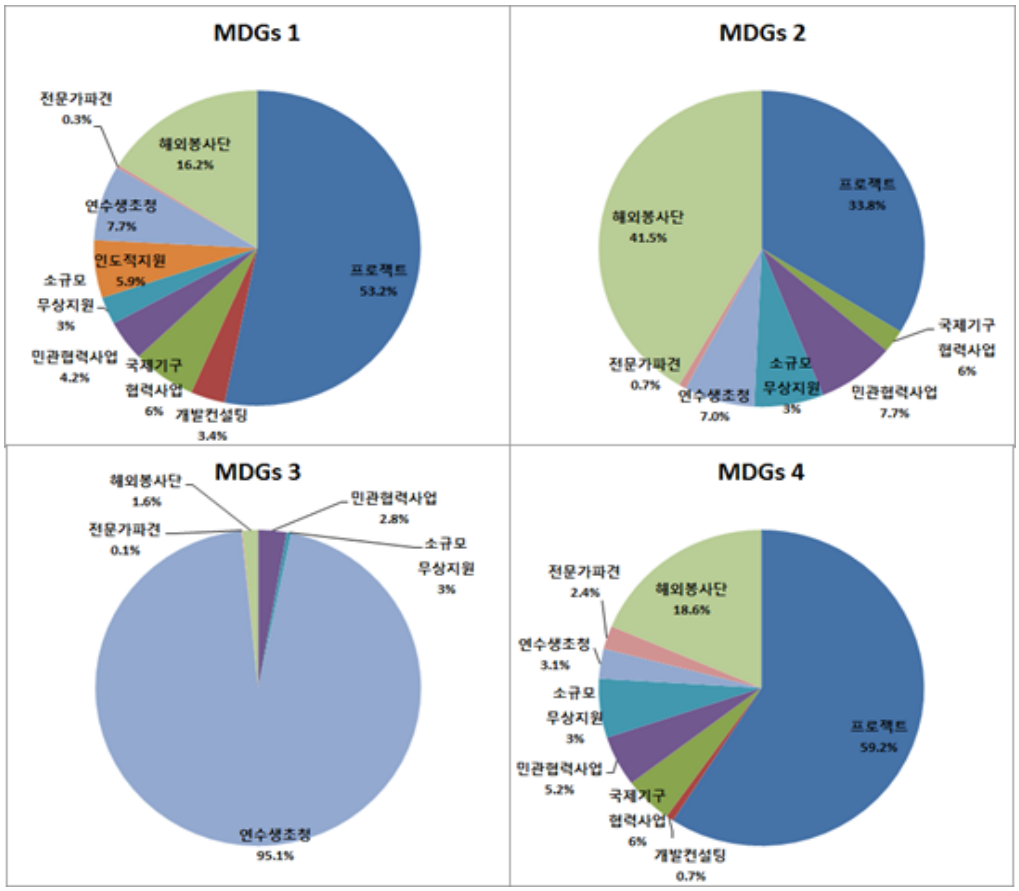
〈그림 15〉 MDGs 목표별 지역별 지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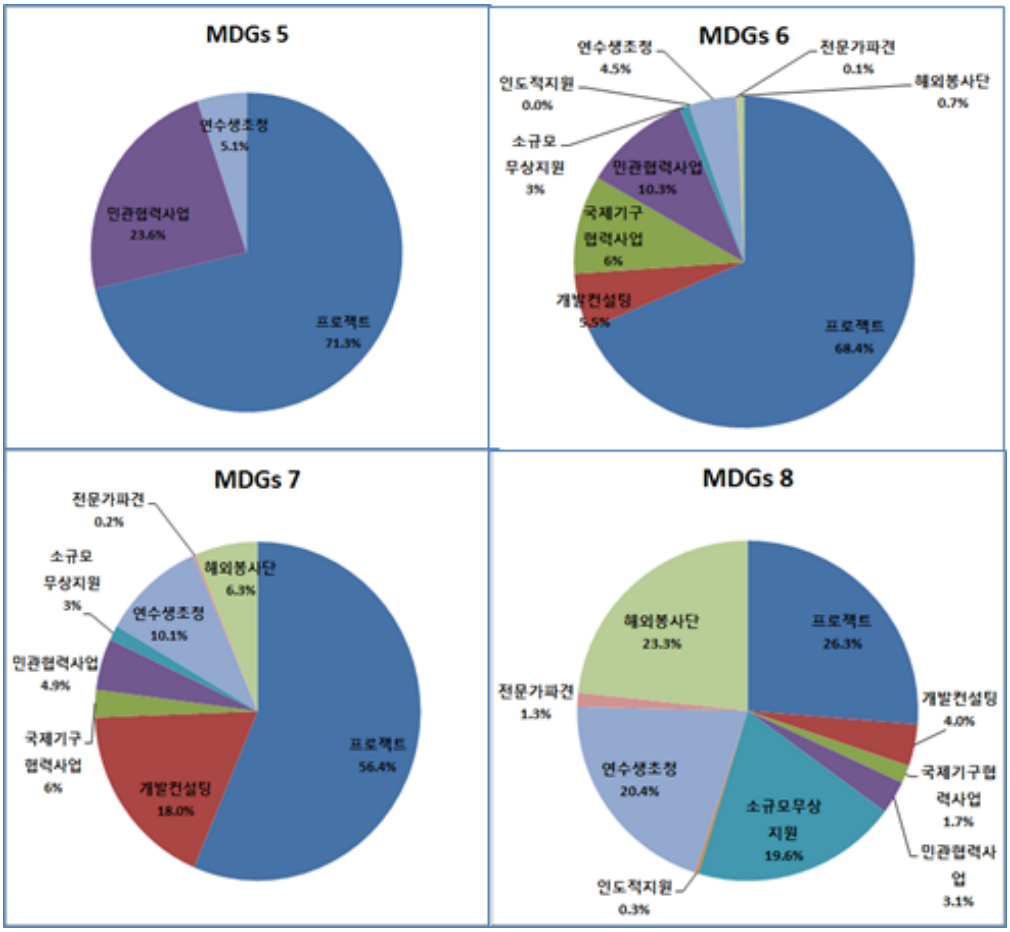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그림 16〉 MDGs 목표별 유형별 지원 비중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1) MDGs 1번 목표 :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KOICA는 MDGs 중 1번 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안 퇴치'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조 5958억 원 가량의 ODA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1] 참조).

〈표 11〉 MDGs 1번 목표 연도별 지원 실적

연도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2000	18,636	16,483
2001	27,346	21,185
2002	14,449	11,548
2003	40,975	34,378
2004	54,850	47,918
2005	67,936	66,323
2006	56,445	59,073
2007	75,752	81,524
2008	91,990	82,866
2009	117,468	92,212
2010	208,608	180,550
2011	136,132	122,941
2012	141,604	125,770
2013	169,666	154,997
2014	175,882	167,019
2015	198,020	175,036
총합계	**1,595,758**	**1,439,822**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연도별로 살펴보면, MDGs 1번 목표에 대한 지원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에는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전년대비 178% 순증)했다가 다음해인 2011년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0년 급격한 지원액 증가의 원인은 추후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분석부분에서 상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MDGs 1번 목표의 지역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액 중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6%로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국제기구, 동구 및 CIS 지역 순으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KOICA 사업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것도 같은 맥락상으로 보이나, 특이한 점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중동에 대한 지원이 중남미에 대한 지원보다 많았다는 점에서도 KOICA 전체 지역배분 실적과는 다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11]

11) 2000년부터 2015년까지 KOICA ODA 지역별 지원 비율은 아시아 42.6%, 아프리카 17.3%, 기타 10.2%, 중남미 10.1%, 중동 9.5%, 국제기구 5.4%, 동구 및 CIS 4.9%이다.

〈표 12〉 MDGs 1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기타	총합계
2000	12,574	3,093	2,058	58	661	192		18,636
2001	12,705	2,125	1,382	197	3,807	6,474	655	27,346
2002	7,243	4,740	1,889	172	216	189		14,449
2003	31,979	2,018	1,681	4,060	643	594		40,975
2004	25,969	4,175	2,365	21,294	705	343		54,850
2005	35,099	6,220	2,786	15,786	1,303	6,741		67,936
2006	27,937	8,307	3,393	14,409	2,083	316		56,445
2007	33,036	14,631	8,505	13,972	3,055	2,549	3	75,752
2008	47,879	17,387	9,337	8,184	4,160	5,041	2	91,990
2009	51,905	25,002	8,073	9,736	11,391	11,361		117,468
2010	134,622	30,170	16,707	13,044	6,698	7,367		208,608
2011	70,081	23,697	9,583	3,412	4,710	21,370	3,279	136,132
2012	69,444	37,949	12,484	7,440	8,753	5,527	7	141,604
2013	85,806	41,015	17,424	10,843	7,332	7,246		169,666
2014	81,889	48,041	12,113	7,267	7,317	19,254		175,882
2015	87,498	49,600	19,873	8,164	6,562	26,322		198,020
총합계	**815,667**	**318,170**	**129,655**	**138,037**	**69,396**	**120,887**	**3,945**	**1,595,758**
비율	**50.6%**	**19.9%**	**8.1%**	**8.7%**	**4.3%**	**7.6%**	**0.2%**	**100.0%**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13〉 MDGs 1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아프가니스탄	159,561	10.8%
2	필리핀	105,880	7.2%
3	베트남	93,454	6.4%
4	이라크	84,255	5.7%
5	인도네시아	67,283	4.6%
6	몽골	58,133	4.0%
7	캄보디아	56,717	3.9%
8	라오스	46,806	3.2%
9	미얀마	45,310	3.1%
10	에티오피아	43,462	3.0%
그외(131개국)		710,064	48.3%
총합	**총141개국**	**1,470,925**	**100.0%**

* 국가미배분, 지역배분 제외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지역별 상위 수원국은 [표 14]와 같다. 국가별 상위 수원국가의 지원액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 국가가 MDGs 1번 목표에 대한 지원액 전체 상위 10개 국가 중에서도 8개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아시아 및 전체 지역에서 수원상위 1위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살펴볼 여타 MDGs 목표별 지원액 상위 1위 국가의 지원액보다 MDGs 1번 목표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지원액이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였다. 이는 2010년을 전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된 재건복구사업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KOICA의 모든 MDGs 관련 지원 사업 중에서도 MDGs 1번 목표 지원에 해당하는 '아프간 파르완주 지방재건팀(PRT) 기지구축사업'의 지원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12] 또한 2010년에 MDGs 1번 목표에 대한 지원액이 급증한 사유 중의 하나도 해당년도에 '아프간 파르완주 지방재건팀(PRT) 기지구축사업' 에 약 725억 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표 14〉 MDGs 1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	아프가니스탄	159,561	에티오피아	43,462	페루	16,719
2	필리핀	105,880	탄자니아	41,188	파라과이	15,491
3	베트남	93,454	르완다	38,899	에콰도르	13,587
4	인도네시아	67,283	이집트	23,069	엘살바도르	13,531
5	몽골	58,133	우간다	20,062	아이티	11,692
순위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1	이라크	84,255	우즈베키스탄	36,825	WFP	38,297
2	팔레스타인	22,895	카자흐스탄	7,734	UNDP	16,435
3	요르단	12,110	아제르바이잔	7,394	UNICEF	9,273
4	이란	6,024	우크라이나	5,028	UNHCR	8,187
5	레바논	5,934	키르기스스탄	3,247	Millennium Promise	7,389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MDGs 1번 목표의 사업유형별 지원실적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KOICA 전체 ODA 지원 실적 비중과 유사하게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프로젝트 사업유형 지원 비중이

12) 또한 MDGs 1번 목표 지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도 전체 MDGs 전체 지원규모 상위 순위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성경비 및 개발인식증진 비용 제외).

약 11%정도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인식증진 및 행정성경비의 경우 MDGs 목표 분류시 해당없음으로 분류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게 되는 영향도 있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MDGs 1번 지원 실적 중 아프간 및 이라크 등의 국가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DGs 1번 목표 관련 주요 지원 사업내역을 [표 16]과 같다.

〈표 15〉 MDGs 1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국제기구 협력사업	민관 협력	소규모 무상지원	인도적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2000	12,367	791			715	546	2,681	374	1,161
2001	4,964	398			552	16,664	2,906	688	821
2002	7,739	459			40	845	2,663	464	2,237
2003	26,521	1,127			6,094	1,286	2,316	311	3,319
2004	29,310	58			16,684	1,094	1,584	715	5,406
2005	28,190	692		741	12,740	12,642	2,695	481	9,754
2006	33,693	527	29		4,543	4,688	3,200	483	9,282
2007	43,256	1,613	2,549	822	228	4,515	3,938	302	18,529
2008	47,839	3,642	4,762	1,311	454	12,077	5,998	78	15,828
2009	67,166	1,874	11,361	1,368	98	9,497	6,297	19	19,787
2010	146,265	4,643	8,071	2,577		11,497	8,379	771	26,406
2011	70,720	2,635	10,126	4,643	1,286	18,786	9,006	107	18,824
2012	74,525	5,268	5,527	12,011	273	207	20,887		22,907
2013	88,070	8,861	7,246	12,477	415		20,984		31,612
2014	87,259	8,791	19,254	11,646	374		13,238		35,319
2015	81,148	12,862	31,816	18,694	393		16,281		36,826
총합계	**849,034**	**54,242**	**100,742**	**66,290**	**44,888**	**94,345**	**123,055**	**4,793**	**258,015**
비율	**53.2%**	**3.4%**	**6.3%**	**4.2%**	**2.8%**	**5.9%**	**7.7%**	**0.3%**	**16.2%**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16〉 MDGs 1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액 (백만원)
1	아프간 파르완주 지방재건팀(PRT) 기지구축사업	프로젝트	89,057
2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직업훈련원 지원사업('08-'16)	프로젝트	33,639
3	한.아프간 직업훈련 협력사업	프로젝트	10,689
4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PRT 농촌개발 재건사업('10-'13)	프로젝트	5,022
5	아프간 농촌개발사업	프로젝트	4,979
6	한아프간 직업훈련원 기숙사 건립사업	프로젝트	3,412
7	아프간 카불공대 IT센터 건립사업	프로젝트	2,603
8	아프간 신탁기금 지원	소규모무상지원	2,459
9	아프간 신탁기금지원	소규모무상지원	2,107
10	아프간 IT 컴퓨터훈련센터 설립지원사업	프로젝트	1,432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2) MDGs 2번 목표 :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한 MDGs 2번 목표에 대한 지원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약 4,076억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표 17]을 참고하여 볼 때, 중간에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해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도에서 꾸준한 지원액 증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12년은 약 635억 원으로 기간 내 해당 목표를 위한 가장 높은 지원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는 MDGs 2번 목표 관련 사업비 규모가 큰 지원 사업([표 22] 참조)의 상당수가 2012년에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나, 이 시기는 2011년 새롭게 수립된 KOICA 교육 분야 지원 전략에서 첫 번째 전략적 목표를 '양질의 기초교육기회 제공'으로 설정함에 따라 해당 전략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13]

13) 2012년 KOICA 전체 ODA 규모는 전년대비 9%만 증가하였는데, MDGs 2번 목표에 대한 지원액은 2012년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7〉 MDGs 2번 목표 연도별 실적

연도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2000	2,008	1,776
2001	4,895	3,792
2002	4,637	3,706
2003	7,044	5,910
2004	13,512	11,804
2005	20,398	19,914
2006	10,842	11,346
2007	22,030	23,709
2008	14,081	12,684
2009	22,464	17,634
2010	29,347	25,400
2011	43,161	38,979
2012	63,549	56,443
2013	46,762	42,719
2014	46,744	44,389
2015	56,122	49,608
총합계	**407,596**	**369,813**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2번 목표에 대한 지원액을 [표 18]과 함께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 간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아시아 지역이 약 1,786억 원 규모로 전체 지역 대비 가장 큰 약 43.8%의 지원 비중을 나타내었다. 그 뒤로 아프리카 792억 규모의 19.4%, 중동 678억 규모의 16.6%, 중남미 465억 원 규모의 11.4%, 동구 및 CIS 지역에서 202억 원 규모의 5%, 국제기구는 약 79억 원 규모의 1.9%, 기타 63억 원의 1.5% 가량 지원 규모를 보여주었다.

〈표 18〉 MDGs 2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구및CIS	국제기구	기타
2000	1,492	199	20	153	144		
2001	3,032	258		190	215		1,200
2002	2,027	806	186	447	370		800
2003	1,706	607	4,051	456	224		
2004	2,248	814	9,987	89	253	121	
2005	6,447	605	10,272	573	2,500		
2006	5,481	497	2,787	707	1,370		
2007	2,633	1,610	14,682	2,269	553	283	
2008	3,996	5,629	463	2,984	590	418	
2009	5,528	11,409	935	2,603	1,585	405	
2010	11,583	9,496	2,731	4,625	727	184	
2011	21,184	7,395	3,062	7,490	2,354	1,676	
2012	37,683	11,408	4,848	6,852	2,232	526	
2013	24,911	7,866	5,141	7,046	1,797		
2014	24,285	10,607	2,944	4,507	2,477	1,924	
2015	25,432	10,000	5,733	5,517	2,810	2,329	4,301
총합계	**179,668**	**79,207**	**67,843**	**46,509**	**20,203**	**7,865**	**6,301**
비율	**44.1%**	**19.4%**	**16.6%**	**11.4%**	**5.0%**	**1.9%**	**1.5%**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KOICA는 전반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에 대하여 지역별로 균등한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40%가 넘는 지원 규모로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도별로 증감의 폭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일정한 지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특수성과 더불어 타 지역권에 비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정부의 'ASEAN 국가 지원강화'와 '아시아 LDC 및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y, LIC)에 대한 지원' 전략에 따라 집중적인 지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2003-2005년, 2007년에 지원이 급증하였는데 해당 기간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지역의 학교 및 교육 시설 건축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재건복구지원 일환의 사업들로 해당 지역에 집중적인 재원 투입이 진행되었다.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대한 각 지역별 상위 5개국과 지원액 정보는 [표 19]와 같다.

〈표 19〉 MDGs 2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	캄보디아	23,406	나이지리아	12,575	파라과이	9,419
2	스리랑카	19,548	에티오피아	11,813	페루	7,927
3	베트남	19,465	세네갈	9,873	과테말라	7,808
4	몽골	17,828	모로코	8,601	에콰도르	5,802
5	아프가니스탄	16,212	케냐	5,252	엘살바도르	4,484
순위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1	이라크	52,676	우즈베키스탄	12,827	UNICEF	2,671
2	팔레스타인	9,303	카자흐스탄	2,791	UNESCO	1,536
3	요르단	4,799	우크라이나	1,997	GPE	1,459
4	사우디아라비아	575	키르기스스탄	984	UNOPS	1,096
5	이란	284	아제르바이잔	437	UNWTO	871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교육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수원국 별로 비교하여 보면 [표 20]과 같다. 이라크가 527억 원의 전체 대비 13.4%로 가장 큰 지원율을 보였고, 캄보디아 234억 원의 5.9%, 스리랑카 195억 원의 5.0%, 베트남 194억 원의 4.9%, 몽골 178억 원의 4.5% 순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초등 교육 달성을 위한 지원은 총 123개국에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위에서 언급한 10개국의 비중이 거의 전체 대비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여주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지원 국가의 대부분 또한 앞서 살펴본 지역별 비교에서 지원이 집중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MDGs 2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이라크	52,676	13.4%
2	캄보디아	23,406	5.9%
3	스리랑카	19,548	5.0%
4	베트남	19,465	4.9%
5	몽골	17,828	4.5%
6	아프가니스탄	16,212	4.1%
7	네팔	13,015	3.3%
8	필리핀	12,835	3.3%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9	우즈베키스탄	12,827	3.3%
10	나이지리아	12,575	3.2%
그 외(113개국)		193,045	49.1%
총합	**총 123개국**	**393,431**	**100.0%**

* 국가미배분, 지역배분 제외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초등교육 달성 목표에 대한 사업은 해외봉사단 파견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프로젝트 33.8%, 민관협력사업 7.7%가 이어졌다. 해외봉사단 사업은 유아에서 성인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지원되었고 그에 따라 보편적 교육과 IT, 특수 교육 등 전문 분야별 교육 등 각 수원대상에 맞춘 지식 및 기술 경험 전수로 진행되었다. 특히 본 유형은 평균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규모 증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해외봉사단 파견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파견 기관과 명칭이 달라 전반적인 규모가 인식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14]가 출범하였는데 그 예산이 KOICA로 통합되면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4)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 정부가 2009년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에서 파견하던 7개 봉사단을 통합하여 출범시킨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표 21〉 MDGs 2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국제기구 협력사업	민관협력 사업	소규모 무상지원	인도적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2000	277				271		546		915
2001	1,844				71		589	1,200	1,191
2002	728				358		950	918	1,683
2003	244				3,752		1,166	580	1,302
2004	4,288				7,322		1,026		876
2005	10,054				1,327		1,241		7,776
2006	3,035				200		1,033		6,573
2007	1,861		283	470	13,612		1,799		4,006
2008	4,506		418	1,039			2,374		5,743
2009	10,291		405	1,585			1,622		8,561
2010	14,643		1,996	2,664	8		2,146	278	7,612
2011	13,725		1,676	3,325			2,890		21,546
2012	33,490		526	3,802	245		3,267		22,219
2013	18,845			5,509	220		1,969		20,219
2014	9,008		1,924	4,651	420		3,002		27,740
2015	10,893		2,329	8,496	220		2,863		31,321
합계	137,732		9,556	31,539	28,026		28,483	2,975	169,284
	33.8%		2.3%	7.7%	6.9%		7.0%	0.7%	41.5%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중 무상협력계획은 교육, 보건과 같은 MDGs 달성과 관련이 큰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운용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KOICA가 수립한 교육분야 지원전략(2011-2015)에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질의 기초 교육 제공, 기술인력 양성, 고등인재 양성을 주요 전략목표로 삼았는데 당시 진행되었던 주요 사업들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목표를 위해 지원된 주요 사업들은 [표 22]와 같은데 앞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이라크,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PRT 교육 재건사업'과 '이라크 시범학교 건립사업'이 각각 148억원, 116억 원 규모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원 사업이며, 그 이하로 '동티모르 테툼어 교과서 보급사업', '스리랑카 북부 Kilinochchi지역 학교건축사업', '세네갈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 '이라크 KRG 도훅 시범학교 건립사업', '앙골라 교사양성기관 및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등 초등교육과 관련 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교사 훈련을 비롯하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진행되었다.

다만, MDGs 2번 목표(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와 관련하여, KOICA는 교육분야 지원전략에서 MDGs 달성이 어려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달성이 가능한 국가는 교육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지원하다고 전략을 수립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캄보디아(2위)와 네팔(8위), 파키스탄(26위)의 경우, MDGs 2번 목표 지원액 규모가 높은 국가에 포함되어 실제 전략대로 관련 지원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기 3개 국가의 국별 MDGs 2번 목표 지원액의 약 70% 이상이 교육전략이 수립된 11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 분야 정책과 실제 사업지원과 연결이 잘 되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편인데, 우선 아프리카 지역에 투입된 MDGs 2번 사업 지원액이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총액 대비 39%,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61%라는 점에서는 전략수립 후 아프리카 지원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나, MDGs 2번 목표지원액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하였고, 교육분야 중기전략이 수립된 2011년 이후에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도별지역별 지원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책과는 상반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 MDGs 2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액 (백만원)
1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PRT 교육 재건사업	프로젝트	14,797
2	이라크 신탁기금 지원	소규모무상지원	12,274
3	이라크 시범학교 건립사업	프로젝트	11,563
4	동티모르 테툼어 교과서 보급사업('10-'12)	프로젝트	6,096
5	스리랑카 북부 Kilinochchi지역 학교건축사업('11-'14)	프로젝트	5,984
6	이라크 아르빌 교육부 스쿨버스 40대 및 사무기기	소규모무상지원	5,831
7	세네갈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11-'16)	프로젝트	5,250
8	이라크 KRG 도훅 시범학교 건립사업('11-'16)	프로젝트	5,041
9	앙골라 교사양성기관 및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09-'12)	프로젝트	4,012
10	나이지리아 초중등시범학교단지 건립사업('13-'18)	프로젝트	3,966
11	캄보디아 HRD센터 건립사업('10-'14)	프로젝트	3,780
12	이라크 KRG 아르빌 카스나잔 초등학교 건립사업 ('10-'15)	프로젝트	3,761
13	나이지리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10-'14)	프로젝트	3,650
14	필리핀 한-필 인력개발센터 설립사업('10-'14)	프로젝트	3,546
15	과테말라 싼 후안 꼬잘시 교육인프라 강화사업 ('10-'11)	프로젝트	3,530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3) MDGs 3번 목표 :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MDGs의 3번 목표인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지원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약 171억원 규모로 진행되었다. 여타 목표들의 총 지원액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규모 면에서 가장 작은 지원액을 보여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양성평등 관련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KOICA 중기전략(2010-2015)'에서 범분야인 성평등 전략을 참고하여 보면, 젠더 이슈 자체를 독립적인 개별 사업으로 발굴하려는 노력도 진행되었지만, 여타 공여국의 전략과 유사하게 해당 관점이 각 개발목표를 가진 모든 사업프로세스에서 고려되어 관통하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증감의 변동은 있으나 3번 목표에 대한 지원액 역시 종합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7년에 전년 지원 금액 대비 5배 이상의 지원액의 급증을 보여주었다. 3번 목표에 대한 지원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MDGs 3번 목표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2000	28	24
2001	13	10
2002	206	165
2003	146	122
2004	209	183
2005	189	185
2006	209	219
2007	1,139	1,226
2008	2,317	2,088
2009	2,970	2,331
2010	2,058	1,781
2011	2,299	2,076
2012	1,225	1,088
2013	814	744
2014	1,288	1,223
2015	1,965	1,737
총합계	**17,075**	**15,202**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24〉 MDGs 3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기타
2000	28						
2001	13						
2002	206						
2003	129			17			
2004	92	6	89	15	7		
2005	164		18		7		
2006	133	49		19	7		
2007	563	276	13	230	56		
2008	1,120	795		221	181		
2009	1,079	1,128	60	312	390		
2010	763	854	258	85	99		
2011	853	1,253	26	96	72		
2012	443	545	137	100			
2013	409	163	155	74	13		
2014	812	368		84	24		
2015	1,028	522		219	196		
총합계	**7,837**	**5,960**	**756**	**1,471**	**1,052**		
비율	**45.9%**	**34.9%**	**4.4%**	**8.6%**	**6.2%**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16년간의 3번 목표에 대한 지원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45.9%, 아프리카 지역이 34.9%로 두 지역에 대한 지원비중이 전체 지원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상대적으로 중남미 8.6%, 동구 및 CIS 6.2%, 중동 4.4%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지역에 비하여 다소 작은 비중으로 지원되었다. 두 지역에 다소 많은 지원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성평등 관련 내부 전략 자료는 찾기 어려웠으나 KOICA 실적에서 전반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는 양상을 미루어 볼 때, 이와 유사한 지원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번 목표에 대하여 지역별 상위 5개국의 정보는 [표 25]와 같다.

〈표 25〉 MDGs 3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	아프가니스탄	1,028	탄자니아	938	과테말라	304
2	방글라데시	907	가나	786	볼리비아	229
3	베트남	762	케냐	622	페루	148
4	캄보디아	730	에티오피아	552	엘살바도르	122
5	스리랑카	671	짐바브웨	496	콜롬비아	113
순위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1	이라크	412	우즈베키스탄	497		
2	팔레스타인	208	카자흐스탄	215		
3	요르단	59	투르크메니스탄	61		
4	예멘	46	키르기스스탄	61		
5	이란	30	아제르바이잔	47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26〉 MDGs 3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아프가니스탄	1,028	6.0%
2	탄자니아	938	5.5%
3	방글라데시	907	5.3%
4	가나	786	4.6%
5	베트남	762	4.5%
6	캄보디아	730	4.3%
7	스리랑카	671	3.9%
8	케냐	622	3.6%
9	인도네시아	610	3.6%
10	에티오피아	552	3.2%
그 외(69개국)		9,468	55.4%
총합	**총 79개국**	**17,075**	**100.0%**

* 국가미배분, 지역배분 제외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지원 규모의 6%를 차지하는 아프가니스탄이고 그 뒤로 탄자니아 5.5%, 방글라데시 5.3%, 가나

4.6%, 베트남 4.5%, 캄보디아 4.3% 순으로 [표 26]에서 세부적인 지원 국가를 확인할 수 있다. 3번 목표는 총 79개국의 지원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상위 10개국이 전체 지원 대비 약 4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7〉 MDGs 3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국제기구 협력사업	민관 협력	소규모 무상지원	인도적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2000									28
2001									13
2002							206		
2003							146		
2004							194	15	
2005					75		114		
2006							209		
2007							1,139		
2008							2,264		53
2009							2,970		
2010							1,942		116
2011				132			2,167		
2012				126			1,079		19
2013				150			626		39
2014				75			1,213		
2015							1,965		
총합계				**483**	**75**		**16,235**	**15**	**267**
비율				**2.8%**	**0.4%**		**95.1%**	**0.1%**	**1.6%**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위의 [표 27]과 함께 2000-2015년간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을 대상으로 지원된 KOICA 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 중 압도적으로 많은 95.1%의 비중이 연수생 초청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생 초청 사업의 경우, 지도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석사 학위 과정과 여성의 인권 증진 및 경제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과정, 성평등 관련 과정 등을 통하여 한국의 정책을 참고하고 각 참가국의 현황을 파악하는, 특정 국가 및 다국가로 구성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진행된 주요 연수 프로그램의 정보는 [표 28]과 같다.

〈표 28〉 MDGs 3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액 (백만원)
1	석사학위과정-국제학(여성과 개발)	연수생초청	6,360
2	석사학위과정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15-16)	연수생초청	1,051
3	학위/연구과정-개발협력-여성개발(석사)	연수생초청	799
4	양성평등정책	연수생초청	653
5	석사학위과정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14-15)	연수생초청	475
6	여성인권과 여성발전	연수생초청	369
7	방글라데시 성주류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생초청	304
8	농촌여성 경제력 향상	연수생초청	297
9	농촌여성 경제력 향상(아프리카)	연수생초청	274
10	여성인권증진	연수생초청	247
11	인도네시아 여성정책 행정역량강화	연수생초청	220
12	여성고용 및 창업개발 능력향상	연수생초청	215
13	여성건강 및 권익향상	연수생초청	210
14	차세대 여성리더 역량강화	연수생초청	195
15	성평등 정책역량강화	연수생초청	192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연수생 초청 사업의 뒤를 이어서는 2.8%의 민관협력사업, 1.6% 해외봉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소 작은 규모이나, '부르키나파소의 극빈농촌여성 자립역량강화를 통한 빈곤퇴치사업', '방글라데시 마이멘싱시 여성 및 도시빈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등의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거주 환경개선, 소득증대 기술훈련을 통한 창업기회 제공과 같은 소득창출 및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해외봉사단은 농촌지역의 여성에 대한 역량강화에 참여하고, 사회 개발 및 상담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4) MDGs 4번 목표 : 아동사망률 감소

MDGs 4번 목표인 '아동사망률 감소'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KOICA의 지원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16년간 약 6,204억원이 아동사망률 감소의 목표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각 수원국에 지원되었다. 연도별 지원 실적을 보면 2006년과 2011년에 다소 전년 대비 지원액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 외 대부분의 모든 연도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MDGs 달성 시한의 마지막 해인 2015년의 지원액은 약 793억원 규모로 목표 시작 해인 2000년의 지원액 대비 거의 12배 가까이 상승할 정도로 해당 목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해마다 이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보건의료분야를 개도국 개발전략을 위한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로 보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과 같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한 한국의 '2007년 ODA 중기전략'에서 그 방향성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후 내부적으로도 KOICA 보건분야 중기지원전략(2011-2015)의 수립을 통하여 주요 타겟층을 여성과 아동으로 설정하고 의료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과 취약질병지원강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DGs 목표별 지원 비중에서 더 확연히 드러나는데, DAC 공여국은 MDGs 4번 목표(아동사망률 감소)에 평균 3.3% 재원을 배분한 반면, 한국은 10.1%, KOICA는 12.2%를 지원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9〉 MDGs 4번 목표 연도별 지원 실적

연도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2000	6,369	5,633
2001	9,074	7,030
2002	8,025	6,414
2003	16,445	13,798
2004	20,486	17,897
2005	36,997	36,119
2006	21,760	22,773
2007	32,161	34,611
2008	43,241	38,952
2009	55,699	43,723
2010	67,028	58,013
2011	45,079	40,711
2012	52,960	47,038
2013	56,144	51,290
2014	69,634	66,125
2015	79,307	70,102
총합계	**620,409**	**560,228**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30〉 MDGs 4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기타
2000	3,301	920	28	734	962	424	
2001	6,397	957	8	1,035	677		
2002	4,713	1,344	5	1,215	748		
2003	8,058	2,207	2,440	2,694	1,046		
2004	3,977	2,574	9,018	3,674	1,242		
2005	6,297	3,017	23,957	2,172	1,554		
2006	7,093	3,589	7,705	2,674	699		
2007	12,555	2,577	11,168	4,170	595	1,095	
2008	16,558	4,738	3,695	6,392	3,273	8,586	
2009	35,369	6,513	5,293	7,508	1,015		
2010	42,169	6,348	4,933	11,164	2,067	347	
2011	25,343	4,215	2,770	10,314	555	1,883	
2012	33,840	6,816	2,405	8,723	502	674	
2013	33,998	7,445	1,801	7,352	693	4,856	
2014	39,140	7,041	1,882	13,310	996	7,265	
2015	39,611	13,633	2,393	10,576	513	12,580	
총합계	**318,419**	**73,933**	**79,503**	**93,706**	**17,138**	**37,709**	
비율	**51.3%**	**11.9%**	**12.8%**	**15.1%**	**2.8%**	**6.1%**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KOICA의 4번 목표에 대한 지원을 지역별-연도별 분석을 통하여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다소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위의 [표 30]을 보면, 아시아 지역이 약 3,184억 원으로 전체 지원 지역 중 가장 큰 51.3%의 비중을 보여주었다. 그 뒤로 중남미가 937억 원 규모의 15.1%, 중동이 795억 원 규모의 12.8%, 아프리카 지역이 739억 원 규모의 11.9%, 국제기구 지원이 377억 원 규모의 6.1%, 동구 및 CIS 지역이 2.8%로 이어졌다. 16년간 일부 지원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중동과 동구 및 CIS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해가 거듭할수록 지원 규모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중동의 경우, 2004-2007년 간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액이 투입되었고,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이를 보였는데 해당기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동 지역에 재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던 바 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동구 및 CIS지역의 경우, 2003-2005년, 2008-2010년의 기간 동안 다른 해에 비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전체 지역별 비교 시에도 가장 작은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상위 지원 5개국과 지원액에 관한 정보는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MDGs 4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	아프가니스탄	84,587	탄자니아	17,496	페루	40,325
2	베트남	61,358	에티오피아	12,019	콜롬비아	16,787
3	캄보디아	36,779	카메룬	9,697	파라과이	12,834
4	네팔	24,602	우간다	5,155	볼리비아	9,032
5	방글라데시	23,796	이집트	4,620	에콰도르	5,905
순위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1	이라크	61,205	우즈베키스탄	8,021	UNICEF	26,358
2	요르단	9,494	카자흐스탄	6,941	UNITAID	7,932
3	팔레스타인	6,288	우크라이나	1,358	UNFPA	2,137
4	예멘	1,397	키르기스스탄	578	WHO	424
5	이란	864	타지키스탄	195	ICRC	347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32〉 MDGs 4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아프가니스탄	84,587	14.5%
2	베트남	61,358	10.5%
3	이라크	61,205	10.5%
4	페루	40,325	6.9%
5	캄보디아	36,779	6.3%
6	네팔	24,602	4.2%
7	방글라데시	23,796	4.1%
8	라오스	22,308	3.8%
9	필리핀	20,990	3.6%
10	탄자니아	17,496	3.0%
그 외(95개국)		182,953	32.5%
총합	**총 105개국**	**582,700**	**100.0%**

* 국가 미배분, 지역배분 제외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MDGs 4번 목표에 대하여 KOICA는 16년간 총 105개국에 5천 827억 원 가량을 지원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이 1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베트남과 이라크 10.5%, 페루 6.9%, 페루 6.9% 순이며, 세부 내용은 [표 32]와 같다. 이들 10개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타 목표에 비해서도 집중도가 두드러지는데 총 105개국 중 위의 10개 국가가 전체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67.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아시아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 KOICA의 전반적인 사업이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음이 이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MDGs 4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국제기구 협력사업	민관협력 사업	소규모 무상지원	인도적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2000	2,510				504		111	1,531	1,712
2001	4,460				372		197	1,563	2,482
2002	2,984				83		363	1,789	2,806
2003	7,219				2,829		469	1,834	4,093
2004	4,257	241			7,402		375	2,299	5,911
2005	15,178	44			13,694		691	1,887	5,503
2006	10,351				2,008		922	1,454	7,024
2007	20,082		1,095	874	275		1,028	1,538	7,268
2008	23,018		653	1,494	8,481		1,154	749	7,691
2009	45,630			1,053			1,230	70	7,786
2010	54,611		938	1,702	445		1,086		8,175
2011	29,913	352	1,883	3,042			1,441		8,448
2012	36,068	276	674	4,413	382		1,471		9,675
2013	30,610	1,475	4,856	5,494	89		2,304		11,317
2014	38,734	1,119	7,265	6,217	507		2,812		12,980
2015	41,393	1,093	12,580	7,870	337		3,317		12,718
총합계	**367,019**	**4,599**	**29,945**	**32,159**	**37,409**		**18,972**	**14,716**	**115,590**
비율	**59.2%**	**0.7%**	**4.8%**	**5.2%**	**6.0%**		**3.1%**	**2.4%**	**18.6%**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아동사망률 감소를 위한 전체 지원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이 유형간의 지원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유형 중 프로젝트가 3천 670억 원으로 가장 높은 5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해외봉사단이 1천 156억 원의 18.6%, 소규모 무상지원이

374억 원 규모의 6.0%, 민관협력사업이 322억 원의 5.2%, 국제기구협력사업이 299억 원 4.8%, 연수생초청이 190억 원의 3.1%, 전문가 파견이 147억 원 2.4%, 마지막으로 개발컨설팅 유형이 46억 원으로 약 0.7%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표 34]에서의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프로젝트 유형에서 재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의료지원사업', '이라크 알까라마 병원 증축, 개선사업', '이라크 아르빌 리즈가리병원 현대화사업'들과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콜롬비아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 건립사업' 등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해외봉사단과 전문가 파견 유형의 경우, 의사 및 간호 인력, 영양, 병원 운영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의 투입으로 16년간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 증가를 보여주었다.

소규모 무상지원은 특히 중동지역의 의료기기가 의약품, 방역 장비와 차량 지원이 이루어졌고, 타 지역에서 의료 위생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 지원 및 백신사업등에 재원이 투입되었다. 국제기구협력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UNICEF 아동의 안전하고 올바른 생존지원 프로그램'이나 'UNICEF DR 콩고 기초면역 강화 사업', 'UNICEF 남동 아프리카 국가의 5세 이하 아동보건 개선'등의 사업에 지원하였다.

다만 유형별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 목표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아동사망률 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4번 목표에 비하여 기초적인 보건과 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개념의 사업이 많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KOICA의 MDGs 성과 측정을 위하여 대상 기간 내 사업실적을 각 사업별로 부여된 CRS 코드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석한 방법론에서부터 나오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각 개발목표와 CRS 코드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코드 리스트 내 아동 사망률과 관련된 특정 CRS 코드가 없는 점이 4번 목표의 실적을 다소 포괄적으로 산출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사망률 감소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규모를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보고자 4번 목표를 부여받은 사업 범위 내 각 사업명과 사업내용에서 주 수혜대상인 '아동, 소아, 어린이'의 키워드를 포함한 사업들을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재분류 해보았다. 그 결과, 사업명과 사업내용에 아동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고, 아동을 타겟화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약 568억 원 가량, 전체 4번 목표 지원액 대비 약 9%대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실적은 사업담당자마다 사업내용을 표현, 기술하는 정도에 대한 차이로 인해 실제 유효한 사업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본 연구에서 취한 기준에 따라 분석된 실적은 아동 사망률 감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KOICA 보건 전략 안에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의 향상과 사망률 감소 내용을 포함한 '취약계층, 취약질병 지원 강화' 전략이 있고, 대부분의 보건 사업들이 그 큰 전략 틀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각 사업의 사업명과 사업내용 안에 아동을 특정하여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기초보건 사업을 통해 아동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분류방법에 따라 분석한 실적이 4번 목표 달성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34〉 MDG 4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액 (백만원)
1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의료지원사업('08-'16)	프로젝트	67,405
2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43,485
3	UNICEF 아동의 안전하고 올바른 생존지원 프로그램('13-'17)	국제기구 협력사업	19,845
4	콜롬비아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 건립사업('07-'16)	프로젝트	13,808
5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PRT 보건의료 재건사업	프로젝트	12,027
6	이라크 알까라마 병원 증축, 개선사업	프로젝트	11,825
7	이라크 중앙정부 보건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소규모무상지원	11,389
8	방글라데시 간호전문 대학원 설립사업(12-18)	프로젝트	8,916
9	'08년도 UNITAID 기여금/국제빈곤퇴치기여금	소규모무상지원	7,932
10	이라크 아르빌 리즈가리병원 현대화사업	프로젝트	7,510
11	한스 친선병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7,290
12	네팔 티까풀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11-'16)	프로젝트	6,603
13	볼리비아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10-'18)	프로젝트	6,514
14	페루 리마 및 까야오 건강증진 프로그램('13-'17)	프로젝트	6,455
15	파라과이 산뻬드로 종합병원 건립사업(2009-2011)	프로젝트	6,387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5) MDGs 5번 목표 : 모성보건 증진

MDGs 5번 목표인 '모성보건 증진' 분야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6천 9백억 가량의 ODA를 지원하였다([표 35] 참조). 연도별로는, 2000~2006년까지 지원 실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국제기구(UNFPA, UNICEF)를 통한 모자보건 관련 사업을 시작으로 지원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후 아프리카 동부지역의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지원 프로젝트와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관련 사업 증가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35〉 MDGs 5번 목표 연도별 지원 실적

연도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2000	113	100
2001	153	119
2002	233	186
2003	88	74
2004	81	71
2005	66	64
2006	313	328
2007	2,999	3,227
2008	7,451	6,712
2009	11,485	9,016
2010	7,619	6,594
2011	2,838	2,563
2012	6,626	5,885
2013	9,413	8,599
2014	9,882	9,384
2015	10,177	8,996
총합계	**69,538**	**61,919**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지역별 지원 실적은 대부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약 80%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 지역을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표 36] 참조). 시기별 금액의 증가와 감소는 프로젝트의 기간에 영향을 받았으며, 2012년 이후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성보건서비스 개선사업('15-'18/420만불)', '솔로몬군도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15-'18/600만불)',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사업('13-'17/650만불)',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11-'14/200만불)'등 프로젝트에서 다시금 큰 금액의 사업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 MDGs 5번 목표 지역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총합계
2000	68	14	19	5	7		113
2001	122	10	13	8			153
2002	173	28	12	6	14		233
2003	24	44	12		8		88
2004	40	4	23		14		81
2005	54	6			6		66
2006	78		235	0			313
2007	49	281	1,397	8	4	1,260	2,999
2008	91	3,617	2,693	6	7	1,037	7,451
2009	236	3,959	6,695	11		583	11,485
2010	669	1,922	5,029				7,619
2011	502	634	768			934	2,838
2012	1,038	3,367	1,822		288	110	6,626
2013	935	5,865	1,177		239	1,196	9,413
2014	558	7,654	1,670				9,882
2015	3,786	5,860	376	155			10,177
총합계	**8,423**	**33,266**	**21,941**	**200**	**588**	**5,121**	**69,538**
비율	**12.1%**	**47.8%**	**31.6%**	**0.3%**	**0.8%**	**7.4%**	**100.0%**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지역별 상위 수원국을 살펴보면,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가나, 콩고 민주공화국, 중남미는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솔로몬군도 등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였다. 중남미에 대한 지원은 2010년 이전에 지원액이 많았지만 이후 지원액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최근 아시아 지역의 지원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38] 참조). 이는 중남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가 2010년 제1기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프로젝트 종료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시작된 동티모르와 솔로몬군도의 모자보건 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중점협력국에 선정된 것으로 인해 동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37〉 MDGs 5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에티오피아	11,233	17.4%
2	과테말라	8,122	12.6%
3	가나	8,109	12.6%
4	콩고 민주공화국	4,935	7.7%
5	파라과이	3,717	5.8%
6	케냐	2,690	4.2%
7	엘살바도르	2,650	4.1%
8	페루	2,599	4.0%
9	방글라데시	2,387	3.7%
10	도미니카공화국	1,938	3.0%
그외(62개국)		16,037	24.9%
총합	**총 72개국**	**64,417**	**100.0%**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38〉 MDGs 5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	방글라데시	2,387	에티오피아	11,233	과테말라	8,122
2	솔로몬군도	1,746	가나	8,109	파라과이	3,717
3	동티모르	1,169	콩고 민주공화국	4,935	엘살바도르	2,650
4	미얀마	879	케냐	2,690	페루	2,599
5	파키스탄	708	잠비아	1,399	도미니카공화국	1,938
순위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1	이라크	160	우즈베키스탄	555	UNFPA	1,925
2	요르단	22	카자흐스탄	16	UNICEF	1,800
3	오만	8	타지키스탄	11	IPPF	1,066
4	예멘	6	알바니아	6	WFP	330
5	팔레스타인	5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39]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 유형은 프로젝트로 전체 사업 유형의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실적이 두드러졌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사망율 감소지원', '에티오피아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 '엘살바도르 임산부 요양소 건립사업', '케냐 키텐젤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파라과이 아순시온 인근

3개지역 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등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12년 이후로는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성보건서비스 개선사업('15-'18/420만불)', '솔로몬 군도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15-'18/600만불)',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사업('13-'17/650만불)',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 사업('11-'14/200만불)'등 프로젝트에서 다시금 큰 금액의 사업들로 인해 지원 규모가 증가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2012년부터 '니제르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개선사업('12-'14)', '말라위 치무투 지역 모자보건 증진사업(2014-2016/1,310백만원)', '미얀마 일개 주를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의료인 역량강화사업', '방글라데시 실헤트주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개선사업('12-'14) 등이 시작되면서 목표 5에 대한 민관협력분야의 지원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표 39〉 MDGs 5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국제기구 협력사업	민관 협력	소규모 무상지원	인도적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2000							90		22
2001	75						66		13
2002	119						80		34
2003							88		
2004							68		13
2005							52		14
2006	235						55		23
2007	1,565		1,260				160		13
2008	6,021		1,037	64			328		
2009	10,360		583	132			321		89
2010	6,627		592	59			238		103
2011	740		934	812			291		61
2012	3,163		110	2,019			1,295		38
2013	4,800		1,196	2,220	35		1,123		39
2014	7,399			1,572			869		41
2015	7,258			2,398			521		
총합계	**48,363**		**5,713**	**9,276**	**35**		**5,648**		**503**
비율	**69.5%**		**8.2%**	**13.3%**	**0.1%**		**8.1%**		**0.7%**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UNFPA 및 UNICEF를 통한 모자보건 관련 사업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었고, 상대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연수생초청을 통한 지원 역시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동 목표에 대한 봉사단 파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MDGs 5번 목표에 지원한 사업 중 총 지원액 20억 원 이상의 사업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인 가나, DR콩고, 에티오피아, 케냐 지역의 사업비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의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 진행한 사업의 사업비 역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프로젝트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MDGs 5번 목표의 주요 사업은 [표 40]과 같다.

〈표 40〉 MDGs 5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액 (백만원)
1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13-'17/600만불)	프로젝트	5,817
2	DR콩고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Kwango 지역 보건역량강화 사업 ('13-'16/600만불)	프로젝트	4,874
3	파라과이 아순시온 인근 3개지역 모자사망률 감소지원사업	프로젝트	3,623
4	에티오피아 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	프로젝트	3,530
5	과테말라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프로젝트	3,414
6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 인식개선 캠페인 지원사업('13-'17/650만불)	프로젝트	3,200
7	케냐 키텐젤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프로젝트	2,645
8	과테말라 웨웨떼낭고주 국립병원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11-'16/510만불)	프로젝트	2,426
9	페루 까야오 모자보건센터(제1한-페 의료센터) 개선사업(2009-2010/200만불	프로젝트	2,408
10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11-'14/200만불)	프로젝트	2,407
11	엘살바도르 임산부요양소 건립사업	프로젝트	2,330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전반적으로 MDG 5번 목표에 대한 지원은 아프리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위주로 중남미와 아시아에 프로젝트 사업이 수행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에 대한 절대적인 누적지원 규모가 아시아에 비해 큰 편이지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중남미에 대한 지원액보다 아시아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 목표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급한 이슈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MDGs 달성을 우선시한 한국 정부의 목적과도 어느 정도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점협력국 선정 이후 목표에 대한 지원 실적이 중남미에서 아시아로 옮겨갔다는 것은 한국의 개발원조에 있어 선택과 집중 원칙을 동 목표에서도 이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KOICA는 2011년 보건 분야 지원전략 수립 이전부터 보건 분야에서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적 강조에 비해 MDGs 5번 목표에 투입된 지원액 비중(KOICA 1.4%)은 DAC 공여국(1.6%)보다도 낮게 확인되었다.[15] 이는 보건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시 MDGs 달성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모자보건 사업보다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기초보건 및 의료인프라, 인력양성 등의 다른 분야 보건사업에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ICA 보건분야 지원전략(2011-2015) 수립을 전후로 모자보건에 초점을 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6) MDGs 6번 목표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MDGs 목표 6번,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약 530억 정도로, 다른 목표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는 동 연구의 수행을 위해 목표별 CRS 코드 분류 상, 목표 6번이 포함하는 CRS코드가 다른 목표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동 목표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2011년 대폭 감소 후, 다시 지원액이 증가하고 비슷한 규모의 수준을 유지하였다([표 41] 참조). 이는 2006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에서 MDGs 달성을 위한 계획 중 HIV/AIDS 감염관리 분야 및 공중보건의료 체제 구축이 언급됨으로써 동 목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MDGs 6번 목표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2000	359	318
2001	801	621
2002	1,289	1,030
2003	427	358

15) 한국의 MDGs 5번 목표 지원액 비중은 0.7%이다.

연도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2004	881	769
2005	793	774
2006	602	630
2007	1,680	1,808
2008	3,606	3,249
2009	4,595	3,607
2010	7,512	6,501
2011	4,638	4,189
2012	6,813	6,051
2013	6,067	5,542
2014	6,711	6,373
2015	6,903	6,102
총합계	**53,677**	**47,922**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42〉 MDGs 6번 목표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기타
2000	177		47	13		123	359
2001	716	63	5		7	9	801
2002	1,240	33	16				1,289
2003	359	46	6		17		427
2004	839	15	7		20		881
2005	723	37	10	16	7		793
2006	397	45	34	108	17		602
2007	256	111	715	197		401	1,680
2008	675	1,923			11	996	3,606
2009	1,744	1,524	9		30	1,288	4,595
2010	1,606	2,687		147	2,186	886	7,512
2011	1,656	1,082	51		371	1,478	4,638
2012	888	5,045			771	109	6,813
2013	2,124	3,942					6,067
2014	2,155	3,647			909		6,711
2015	1,862	5,042			0		6,903
총합계	**17,418**	**25,241**	**900**	**480**	**4,348**	**5,290**	**53,677**
비율	**32.4%**	**47.0%**	**1.7%**	**0.9%**	**8.1%**	**9.9%**	**100.0%**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지역별 지원 실적은 목표 6 전체 지원액 중 약 80%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되었다. 2000년 이후, 초반에는 주로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진행됐다([표 42] 참조). 이는 아세안 지역의 일본뇌염과 전염병 예방 퇴치 사업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부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액은 아시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치적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과 감염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 프로젝트로 수단 주혈흡충 퇴치 사업, 에티오피아 결핵 예방 사업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지역별 지원 국가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가나, 에티오피아,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미얀마 등이 주요 지원 국가로 나타났다. 동구 및 CIS 지역에 대한 전체 지원액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비해 적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액이 증가하였는데, 전염병 관리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3, 44] 참조).

〈표 43〉 MDGs 6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콩고 민주공화국	5,934	12.3%
2	필리핀	5,883	12.2%
3	수단	5,103	10.5%
4	미얀마	4,984	10.3%
5	가나	4,376	9.0%
6	우즈베키스탄	4,299	8.9%
7	에티오피아	3,636	7.5%
8	니제르	1,804	3.7%
9	동티모르	1,564	3.2%
10	나이지리아	1,343	2.8%
그외(53개국)		9,461	19.6%
총합	**총 63개국**	**48,387**	**100.0%**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44〉 MDGs 6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	필리핀	5,883	콩고 민주공화국	5,934	엘살바도르	721
2	미얀마	4,984	수단	5,103	페루	47
3	동티모르	1,564	가나	4,376	온두라스	44
4	중국	1,180	에티오피아	3,636	아이티	32
5	캄보디아	874	니제르	1,804	콜롬비아	19
순위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1	이라크	468	우즈베키스탄	4,299	UNDP	1,936
2	예멘	13	카자흐스탄	26	WHO	1,585
3			키르기스스탄	16	IVI	715
4			크로아티아	6	UNAIDS	358
5					WB	307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목표 6 역시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으로도 동 목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13년 이후 국제기구협력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연수생초청은 적은 규모이지만 2000년부터 꾸준히 진행되다가 2012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연수가 진행되지 않았다. 개발컨설팅은 2000년대 초중반에 진행되었지만 2007년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표 45] 참조).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개발컨설팅은 '아세안 6국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 퇴치'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되었다. 프로젝트 사업은 'DR콩고 반둔두주 5개보건구역 말라리아 퇴치 및 역량강화사업 ('12-'16/484만불)', '가나 볼타지역 식수위생개선 사업('11-'14/400만불)', '국립 폐질환센터 결핵퇴치사업', '나이지리아 베누주 등 6개지역 HIV/AIDS 진단능력 강화사업', '니제르 뇌수막염 감시 및 퇴치역량강화/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동티모르 결핵진단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13-'16/210만불)', '미얀마 전염병 연구소 역량강화사업('11-'14/300만불)', '수단 주혈흡충 및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15-'18/600만불)', '수단 주혈흡충 퇴치 2차 사업('11-'14/180만불)', '수단 주혈흡충증 퇴치사업/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11-'14/280만불)', '우즈베키스탄 전염병 관리 역량강화 사업(2009-2010/300만불)' 등이 진행되었다.

〈표 45〉 MDGs 6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국제기구 협력사업	민관 협력	소규모 무상지원	인도적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2000	120				186		52		
2001	669				63	9	60		
2002	1	1,175					77	35	
2003	168	108					151		
2004	145	653					83		
2005		667					125		
2006		355					247		
2007	715		401				564		
2008	1,779		996	748			72		11
2009	2,428		1,288	401			444		35
2010	6,248		886	121			257		
2011	2,571		1,478	346			226		18
2012	5,863		109	571	144		50		75
2013	5,248			760					58
2014	5,785			713	112				103
2015	4,955			1,886					62
총합계	**36,696**	**2,958**	**5,158**	**5,546**	**505**	**9**	**2,407**	**35**	**362**
비율	**68.4%**	**5.5%**	**9.6%**	**10.3%**	**0.9%**	**0.0%**	**4.5%**	**0.1%**	**0.7%**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국제기구협력사업으로는 UNDP를 통해 HIV/AIDS 분야 전략계획 및 이행(2008~2010), WHO를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모기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보건사업(2011) 등에 지원되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민관협력을 통해서도 '필리핀 국립 폐질환센터 결핵퇴치 역량강화 사후관리사업', '미얀마 의학연구국 전염병 첨단 분자진단 연구센터 연구 역량 강화(2015/APP-1/부산대학교/400백만원)', '지역사회 Outreach Worker를 활용한 에이즈고아 가정방문 프로그램(2014-2016/919백만원)' 등이 수행되었다.

MDGs 6번 목표에 지원한 사업 중 총 지원액 15억원 이상의 사업 목록은 [표 46]과 같다. DR콩고, 가나, 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미얀마, 아세안 6국 등 아시아 국가 역시 금액이 큰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구 및 CIS 지역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규모 물 관련 프로젝트가 동 지역에서 진행된 것과 맞물려 대규모 전염병 관리 사업이 진행되었다.

목표 6을 종합해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특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HIV/AIDS를 다루기 시작한 이후 지원 실적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점협력국 선정 이후 DR콩고, 가나, 에티오피아 등에서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되었으며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 수단에도 꾸준하게 동 목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46〉 MDGs 6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액 (백만원)
1	DR콩고 반둔두주 5개보건구역 말라리아 퇴치 및 역량강화사업('12-'16/484만불)	프로젝트	4,442
2	가나 볼타지역 식수위생개선 사업('11-'14/400만불)	프로젝트	4,355
3	미얀마 전염병 연구소 역량강화사업('11-'14/300만불)	프로젝트	3,757
4	우즈베키스탄 전염병 관리 역량강화사업(2009-2010/300만불)	프로젝트	3,344
5	국립 폐질환센터 결핵퇴치사업	프로젝트	3,149
6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11-'14/280만불)	프로젝트	3,000
7	아세안 6국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 퇴치	개발컨설팅	2,958
8	수단 주혈흡충 퇴치 2차 사업('11-'14/180만불)	프로젝트	2,147
9	수단 주혈흡충 및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15-'18/600만불)	프로젝트	1,844
10	니제르 뇌수막염 감시 및 퇴치역량강화/국제빈곤퇴치기여금	프로젝트	1,659
11	동티모르 결핵진단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13-'16/210만불)	프로젝트	1,532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앞서 살펴본 MDGs 목표 5(모성보건 증진)과 함께 MDGs 목표 6(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은 KOICA의 정책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지속적으로 강조된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DGs 목표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OICA는 MDGs 목표 6에 약 1.1%를 지원하여, 한국 0.7% 보다는 지원 비중이 높았으나 DAC 공여국 평균이 5.7%에는 훨씬 못미치는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MDGs 5번 목표에 대한 KOICA의 지원이 저조하였던 이유가 동일하게 보건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시 MDGs 달성과 직접연결된 HIV/AIDS 및 기타 전염병 퇴치 사업보다는 비교우위를 갖는 다른 분야의 보건사업 지원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원 비율 보다는 많은 지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전염병 중에서도 소외열대질환 등의 사업을 특화하여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전체적인 지원비중이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웠다.

7) MDGs 7번 목표 :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MDGs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에 대한 지원은 약 7천 7백억 정도 집행되었다.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다른 목표에 대한 금액 추이와 마찬가지로 2010년 급격한 증가 이후, 2015년까지도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표 47] 참조).

〈표 47〉 MDGs 7번 목표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2000	2,512	2,222
2001	4,039	3,129
2002	7,112	5,684
2003	8,310	6,972
2004	15,267	13,338
2005	24,985	24,392
2006	18,133	18,978
2007	37,642	40,511
2008	42,508	38,292
2009	45,314	35,571
2010	92,282	79,870
2011	80,193	72,422
2012	100,126	88,930
2013	89,301	81,581
2014	100,793	95,714
2015	104,313	92,206
총합계	**772,832**	**699,811**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전체 지원 금액의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아프리카(19.1%), 중남미(10.7%) 동구 및 CIS(7.9%) 순서로 나타났다. 아시아에 대한 지원액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후 지원 실적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2006년부터 동 목표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중동은 2005년과 2007년에 두드러진 지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표 48] 참조).

〈표 48〉 MDGs 7번 목표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총합계
2000	2,131	94	57	55	51	123	2,512
2001	3,289	206	187	57	100	201	4,039
2002	6,262	283	139	77	282	69	7,112
2003	5,983	1,357	286	406	278		8,310
2004	10,287	475	1,261	2,979	265		15,267
2005	8,506	832	605	13,924	1,013	105	24,985
2006	11,287	3,217	709	2,659	54	208	18,133
2007	12,326	10,287	2,942	10,751	844	492	37,642
2008	23,361	9,517	3,239	1,628	2,759	2,003	42,508
2009	18,592	9,226	3,232	4,061	2,530	7,673	45,314
2010	63,777	11,249	3,383	4,104	9,243	527	92,282
2011	46,866	12,466	4,777	899	11,587	3,597	80,193
2012	61,277	17,506	14,804	748	4,479	1,312	100,126
2013	44,884	17,087	15,895	2,843	7,899	692	89,301
2014	45,961	25,453	14,263	1,168	12,944	1,004	100,793
2015	48,343	28,533	17,193	2,084	7,109	1,052	104,313
총합계	**413,132**	**147,789**	**82,973**	**48,443**	**61,437**	**19,058**	**772,832**
비율	**53.5%**	**19.1%**	**10.7%**	**6.3%**	**7.9%**	**2.5%**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지역별 주요 지원 국가는 아시아에서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있고, 중동에서는 이라크, 동구 및 CIS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지원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에 집중되었고, 에티오피아, 파라과이 등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아시아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었다. 지원 국가 수는 145개국으로 거의 모든 수원국이 포함되었다([표 49, 50] 참조).

〈표 49〉 MDGs 7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몽골	71,172	9.4%
2	인도네시아	66,621	8.8%
3	캄보디아	53,942	7.2%
4	베트남	52,572	7.0%
5	이라크	41,164	5.5%
6	아제르바이잔	40,914	5.4%
7	필리핀	40,445	5.4%
8	스리랑카	20,813	2.8%
9	미얀마	19,623	2.6%
10	에티오피아	18,118	2.4%
그외(135개국)		328,530	43.6%
총합	**총 145개국**	**753,914**	**100.0%**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표 50〉 MDGs 7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	몽골	71,172	에티오피아	18,118	파라과이	17,915
2	인도네시아	66,621	알제리	14,546	에콰도르	16,718
3	캄보디아	53,942	케냐	13,530	볼리비아	10,509
4	베트남	52,572	튀니지	12,827	콜롬비아	7,750
5	필리핀	40,445	이집트	11,774	도미니카공화국	4,604
순위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1	이라크	41,164	아제르바이잔	40,914	UNESCAP	3,436
2	요르단	5,907	우즈베키스탄	9,887	UNEP	2,794
3	팔레스타인	439	타지키스탄	3,217	WAPP	2,141
4	레바논	317	투르크메니스탄	2,087	UNESCO	2,068
5	이란	260	카자흐스탄	1,953	ADB	1,128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목표 7에 대한 주요 사업 유형은 프로젝트와 개발컨설팅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는 개발컨설팅 위주의 지원이 진행되었지만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액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프로젝트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개발컨설팅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프로젝트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수생초청과 봉사단파견에 대한 지원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는 국제기구협력사업과 민관협력사업도 시작되었는데, 국제기구협력사업은 증감을 반복하였고, 민관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사업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에서는 '녹색성장정책 지원사업/GGGI(아시아 및 아프리카)', '몽골 울란바타르시 Yarmag지역 용수공급 및 수자원이용 효율화(10-14/2,260만불)', '아제르바이잔 압쉐론반도 재생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사업(10-15/2,608만불)',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10-'16/1,010만불)',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연장사업(2010-2012/1,150만불)' 등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개발컨설팅에서는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11-'13/350만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유료도로 제1구간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12-'15/350만불)',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13-'15/549만불)', '필리핀 통합 수자원 관리 GIS 구축사업('13-'15/350만불)', 등의 지원규모가 컸다.

연수생초청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만큼 872개 과정이 개설되어 진행되었고, 주로 교통인프라, 수자원 인프라, 주택 및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별 및 다국가 연수가 진행되었다.

국제기구협력사업으로는 WAPP의 저아프리카 정보통제센터 타당성조사, UNEP의 물관리 및 자원효율성 연구, ESCAP 저탄소 개발전략수립 등을 수행하였고, 민관협력사업으로는 몽골 에너지 효율 관련 사업, 베트남 공업화학연구소 통합관리기술 교육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표 51〉 MDGs 7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국제기구 협력사업	민관 협력	소규모 무상지원	인도적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2000	91	1,297			173		656	239	56
2001	494	1,999			166		1,067	188	125
2002	2,662	2,364					1,638	209	238
2003	2,936	2,669			386		1,898	96	326
2004	6,073	3,385			2,519		2,572	68	651
2005	14,529	5,002			2,087		2,214	208	947
2006	7,984	5,689			635		2,867	56	903
2007	22,888	5,310	492	523	1,972		4,695	148	1,614
2008	23,184	7,138	2,003	2,350	100		5,406	248	2,080
2009	22,137	5,557	7,673	1,386			5,600	166	2,795
2010	70,278	8,889	772	1,978			7,328	293	2,745
2011	53,089	6,947	4,282	4,000	126		7,142		4,607
2012	66,688	11,387	2,395	5,473	439		7,656		6,088
2013	47,590	17,796	692	6,933	842		8,878		6,570
2014	49,948	24,969	1,004	6,887	603		10,735		6,648
2015	45,259	28,745	1,052	8,476	1,041		7,786		11,955
총합계	**435,831**	**139,142**	**20,365**	**38,005**	**11,087**		**78,137**	**1,919**	**48,346**
비율	**56.4%**	**18.0%**	**2.6%**	**4.9%**	**1.4%**	**0.0%**	**10.1%**	**0.2%**	**6.3%**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MDGs 7번 목표에 지원한 사업 중 총 지원액 60억원 이상의 사업 목록은 아래 [표 52]와 같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지원이 있었지만 지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동구 및 CIS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압쉐론반도 물 관련 사업으로 총 320억 정도 지원되었고, 몽골의 수자원 사업 역시 약 300억 정도 지원되었다. 그 외 지역별 통계에서는 상위에 없었지만 중남미 지역의 에콰도르, 파라과이에서도 주요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표 52〉 MDGs 7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지원액 (백만원)
1	아제르바이잔 압쉐론반도 재생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사업 (10-15/2,608만불)	프로젝트	32,150
2	몽골 울란바타르시 Yarmag지역 용수공급 및 수자원이용 효율화사업 (10-14/2,260만불)	프로젝트	30,022
3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연장사업(2010-2012/1,150만불)	프로젝트	12,614
4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10-'16/1,010만불)	프로젝트	12,147
5	녹색성장정책 지원사업/GGGI	프로젝트	11,290
6	아르빌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	프로젝트	8,892
7	알제리 사하라사막 새우양식 건립 및 양식기술이전사업('10-'16/600만불)	프로젝트	7,459
8	세네갈 식수개발사업('10-'14/550만불)	프로젝트	7,195
9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13-'15/549만불)	개발컨설팅	6,944
10	이라크 상하수도 현대화	프로젝트	6,656
11	필리핀 목재펠릿가공 및 지속적인 상업조림지 조성사업	프로젝트	6,331
12	동티모르태양광을이용한담수생산및공급사업(2010-2012/600만불)	프로젝트	6,286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목표 7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MDGs 정부 정책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2010년 이후, 당시 정부 정책에 의해 녹색ODA 등의 강조로 인해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EACP(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사업 등의 확대로 동 목표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8) MDGs 8번 목표 :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MDGs 8번 목표의 경우, KOICA 전체 MDGs 지원실적중 약 19%를 차지하고 있서, MDGs 목표중 2번째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9,699억 원을 MDGs 8번 분야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3] 참조).

〈표 53〉 MDGs 8번 목표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2000	11,600	10,260
2001	12,036	9,324
2002	28,759	22,984
2003	60,488	50,750
2004	78,385	68,478
2005	44,351	43,299
2006	57,140	59,800
2007	52,679	56,693
2008	69,152	62,294
2009	59,443	46,662
2010	67,677	58,575
2011	80,342	72,557
2012	69,340	61,587
2013	79,632	72,748
2014	95,871	91,040
2015	103,019	91,062
총합계	**969,915**	**878,112**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연도별로 살펴보면, MDGs 8번 목표에 대한 지원은 연도별로 일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3년과 2004년에는 전년에 비해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하다, 2005년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표 54〉 MDGs 8번 목표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기타	총합계
2000	6,335	1,438	1,219	653	1,760	196		11,600
2001	6,363	2,330	1,184	364	1,605	189		12,036
2002	15,029	4,151	5,540	1,125	2,547	367		28,759
2003	11,464	3,294	2,906	39,283	2,932	611		60,488
2004	27,737	8,136	2,437	35,455	3,831	739	51	78,385
2005	13,485	5,387	6,149	15,901	2,021	1,312	97	44,351
2006	16,340	6,684	5,560	24,611	2,254	459	1,233	57,140
2007	20,699	9,594	12,884	3,544	1,779	4,179		52,679
2008	26,802	16,970	10,645	3,355	7,035	4,346		69,152
2009	29,518	9,102	7,832	3,429	7,176	2,386		59,443
2010	30,731	15,492	14,831	2,449	3,813	362		67,677
2011	39,095	21,947	10,908	1,976	5,958	457		80,342
2012	30,720	19,709	10,042	2,460	5,532	877		69,340
2013	37,482	21,314	11,595	3,055	4,475	1,711		79,632
2014	41,283	22,969	17,299	2,855	9,171	2,294		95,871
2015	45,203	25,148	14,881	5,474	12,313			103,019
총합계	**398,286**	**193,666**	**135,912**	**145,987**	**74,201**	**20,483**	**1,381**	**969,915**
비율	**40.1%**	**20.0%**	**14.0%**	**15.1%**	**7.7%**	**2.1%**	**0.1%**	**100.0%**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다음으로 MDGs 8번 목표의 지역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구 및 CIS, 국제기구, 기타순으로 지원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KOICA 전체 ODA 지역 배분 비중에 비해 아시아 지역은 약간 적게, 중동과 중남미 지역 비중은 약간 높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4] 참조).

〈표 55〉 MDGs 8번 목표 상위 지원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이라크	116,250	12.3%
2	베트남	58,645	6.2%
3	몽골	54,759	5.8%
4	인도네시아	47,916	5.1%
5	아프가니스탄	37,527	4.0%
6	스리랑카	26,774	2.8%
7	우즈베키스탄	26,347	2.8%

순위	국가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8	캄보디아	26,274	2.8%
9	네팔	24,200	2.6%
10	방글라데시	22,921	2.4%
그외(138개국)		505,476	53.4%
총합	**총149개국**	**947,088**	**100.0%**

* 국가미배분, 지역배분 제외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MDGs 8번 목표의 수원국별 지원 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이라크에 약 1,163억 원이 지원되어 가장 많은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으로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DGs 8번 목표에서도 수원액이 많은 상위국가 10개국 중 8개 국가가 아시아 지역 국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6]

아시아 지역 국가가 수원국 상위순위에 다수 포진하고 있으나, 중동지역의 이라크가 사업 지원국가 순위 1위를 기록한 이유는 사업별 지원규모가 큰 사업 15개 중 4건이 이라크 관련 사업이며, 이외에도 다수의 물자지원 사업 등이 이라크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표 58] 참조). 이 밖에 각 지역별 수원국 상위 국가는 [표 56]에 정리되어 있다.

〈표 56〉 MDGs 8번 목표 지역별 상위 지원국가 5개국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	베트남	58,645	튀니지	19,753	페루	20,551
2	몽골	54,759	탄자니아	16,997	파라과이	20,058
3	인도네시아	47,916	르완다	16,777	에콰도르	16,303
4	아프가니스탄	37,527	모로코	16,269	과테말라	13,133
5	스리랑카	26,774	이집트	15,010	엘살바도르	12,797
순위	중동		동구및CIS		국제기구	
1	이라크	116,250	우즈베키스탄	26,347	UNDP	5,142
2	팔레스타인	11,767	아제르바이잔	12,708	UNESCAP	2,451
3	요르단	10,223	카자흐스탄	11,733	APEC	2,105
4	예멘	2,818	키르기스스탄	10,222	UNIDO	1,469
5	레바논	1,846	우크라이나	4,272	UNESCO	1,427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16) 이라트(중동 지역), 우즈베키스탄(동구 및 CIS 지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모두 아시아 지역 국가이다.

MDGs 8번 목표의 사업유형별 지원실적의 경우, KOICA 전체 ODA 지원 실적 비중과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미세한 차이만 발생하였으나, 프로젝트 (전체 지원 비중 대비 약 16% 축소), 소규모무상지원(전체 지원 비중 대비 약 13% 증가), 연수생초청(전체 지원 비중 대비 약 11% 증가)은 사업유형 비중이 1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7〉 MDGs 8번 목표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국제기구 협력사업	민관 협력	소규모 무상지원	인도적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2000	1,073			618	3,120		3,974	790	2,026
2001	747			1,018	3,175		4,006	1,082	2,009
2002	1,594			1,734	12,305	2,850	6,641	1,268	2,366
2003	2,150			7,897	40,093		5,999	1,211	3,139
2004	14,301			1,052	43,013		6,548	1,785	11,686
2005	4,452	378		2,096	18,647		7,494	1,680	9,604
2006	4,919	238		3,983	27,061		10,244	1,650	9,044
2007	15,456	1,002	4,179		12,232		11,882	1,464	6,464
2008	22,024	2,769	4,346		8,521		15,198	1,527	14,768
2009	20,745	1,318	2,386	72	6,659		11,718	115	16,429
2010	31,086	2,327	362		221		15,245	405	18,032
2011	30,977	3,081	457	141	1,373		18,566		25,746
2012	18,722	2,737	877	2,525	2,711		14,084		27,685
2013	22,461	5,706	1,711	2,413	3,255		16,681		27,405
2014	29,332	7,831	2,294	2,834	3,437		23,315		26,828
2015	34,868	11,084		3,999	4,071		26,346		22,652
총합계	**254,905**	**38,471**	**16,612**	**30,381**	**189,894**	**2,850**	**197,942**	**12,976**	**225,884**
비율	**26.3%**	**4.0%**	**1.7%**	**3.1%**	**19.6%**	**0.3%**	**20.4%**	**1.3%**	**23.3%**

출처: 저자 작성(stat.koica.go.kr)

MDGs 8번 목표 관련 주요 지원 사업내역을 [표 58]과 같다.

〈표 58〉 MDGs 8번 목표 지원 주요 사업

순위	사업명	사업유평	지원액 (백만원)
1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13-'16/950만불)	프로젝트	8,928
2	스리랑카 함바토타 국제회의장건립사업	프로젝트	7,481
3	짐바브웨 특허행정 전산인프라 개선사업('13-'15/583만불)	프로젝트	7,446
4	튀니지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시범구축사업('11-'13/570만불)	프로젝트	7,241
5	아프간 파르완주 행정제도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6,958
6	이라크 아르빌 도시관리부 차량 중장비 및 사무기기	소규모무상지원	6,596
7	아프간 공무원교육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6,475
8	인도네시아 ICT 보안연구 개발센터 구축 사업('11-'14/550만불)	프로젝트	6,307
9	키르기즈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14-' 16/615만불)	프로젝트	6,185
10	이라크 도시공공사업부 물자지원	소규모무상지원	6,044
11	이라크 바그다드 시청 물자지원	소규모무상지원	5,885
12	몽골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2010-2012/460만불)	프로젝트	5,282
13	네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11-'13/500만불)	프로젝트	5,162
14	이라크 교통부 물자지원	소규모무상지원	5,118
15	몽골 출입국관리시스템 현대화 사업('13-'16/500만불)	프로젝트	5,112

출처 : 저자 작성(stat.koica.go.kr)

3. KOICA의 MDGs 세부목표별 이행 실적

각 목표에는 1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본 연구를 위하여 각 목표와 세부목표의 기존 매핑을 검토한 뒤 행정비와 같은 특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지원에 대하여 최대한 모든 CRS 코드를 각 목표에 매칭하였다. KOICA에서 16년간 진행한 사업 중 그 성격이 세부목표 이행에 기여했음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특정 CRS코드와 세부목표를 매칭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각 세부목표별 지원규모와 각 목표에서 해당 세부목표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는데 자세한 세부 산출 정보는 아래 [표 59]와 같다.

〈표 59〉 주요 세부목표별 지원금액(2000-2015)

(단위 : 백만원)

목표(Goals)	세부목표(Targets)		목표별 지원액	세부목표별 지원액	비율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4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 기회 제공	407,596	139,682	34.3%
5 (모성보건증진)	8	2015년까지 임산부 보건 접근 기회 보편화	69,538	69,365	99.8%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9&10	2015년까지 AIDS 확산 방지 및 감소,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 보편적 보급	53,677	5,882	11.0%
	11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예방 및 감소		47,795	89.0%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12	국가 정책에 지속가능 개발원칙 통합 및 손실된 환경자원 복원	772,832	127,153	16.5%
	13	생물다양성 멸종 예방 및 2010년까지 멸종율 완화		40,598	5.3%
	14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 위생 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 절반 감소		109,066	14.1%
	15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여건 개선		3,749	0.5%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구축)	21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 신기술 혜택 확산	969,915	159,411	16.4%

출처: 저자 작성

위의 표를 참고하면, MDGs 5번 목표(모성보건 증진)에 대한 세부목표 8이 전체 MDGs 5번 목표 지원액의 99.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MDGs 6번 목표를 위한 사업은 모두 세부목표 9와10, 11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89% 가량이 세부목표 11로 할당되어 여타 다른 세부목표에 비해 큰 비중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부목표가 부여된 실적에 한하여 각 목표별 유형별 지원 실적을 산출하여 보았는데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 기회제공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는 아래 [표 60]과 같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11220(초등교육) CRS 코드를 부여받은 사업들로 산출하였으며 MDGs 2번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중 세부목표 4번을 부여받은 사업의 비율은 약 34.4% 가량 정도이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는 이라크 시범학교 건립사업, 세네갈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11-'16),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PRT 교육

재건사업, 나이지리아 초중등시범학교단지 건립사업('13-'18)등의 프로젝트 유형 사업이 세부목표 4에 대한 전체 실적의 49.6%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뒤로 31.3%의 봉사단, 14.9%의 민관협력사업 형태로 대부분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비중은 2011년에 세워진 교육 분야 전략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주요 전략 목표 중 하나인 양질의 기초 교육 제공을 위해 교육 시설, 기자재 등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0〉 세부목표 4의 지원 실적

사업유형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비율
프로젝트	69,217	62,350	49.6%
해외봉사단	43,768	40,064	31.3%
민관협력사업	20,771	18,736	14.9%
연수생초청	2,693	2,397	1.9%
국제기구협력사업	2,492	2,198	1.8%
소규모무상지원	678	622	0.5%
전문가	63	54	0.04%
총합계	**139,682**	**126,420**	**100.0%**

출처: 저자 작성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라는 세부목표 8에 대하여서는 아래 [표 61]과 같다. 비교적 명확한 기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MDGs 5번 목표를 가진 사업 중 대부분인 99.8%의 사업이 세부목표 8을 부여받았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프로젝트 유형의 사업이 69.7%로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13-'17)', 'DR콩고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Kwango 지역 보건역량강화 사업('13-'16)' 과 같은 사업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3.4%의 민관협력사업, 8.2%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표 61〉 세부목표 8의 지원 실적

사업유형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비율
프로젝트	48,363	42,681	69.7%
민관협력사업	9,276	8,380	13.4%
국제기구협력사업	5,713	5,295	8.2%
연수생초청	5,510	4,967	7.9%
해외봉사단	468	412	0.7%
소규모무상지원	35	32	0.1%
총합계	**69,365**	**61,767**	**100.0%**

출처: 저자 작성

‘2015년까지 AIDS 확산 방지 및 감소’와 ‘2010년까지 HIV/AIDS 치료약의 보편적 보급’에 대한 세부목표 9와 10은 공통된 요소로 인하여 하나로 묶어 그 실적을 아래 [표 62]와 같이 산출하였다. 전체 MDGs 6번 목표 사업 대비 11% 가량의 사업들만 9번과 10번 세부목표를 부여받았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UNDP 나이지리아 HIV/AIDS 분야 전략계획 및 이행(2008-2010)과 콩고 HIV/AIDS 퇴치 지원(2008-2010)’, ‘UNICEF 유엔합동지원요청(CAP) 산모로부터 태아로의 HIV 감염방지(우간다)(2008)’과 같이 타 세부목표에 비하여 국제기구협력사업이 43.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62〉 세부목표 9&10의 지원 실적

사업유형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비율
국제기구협력사업	2,551	2,172	43.4%
민관협력사업	1,590	1,442	27.0%
프로젝트	1,218	1,095	20.7%
해외봉사단	259	232	4.4%
소규모무상지원	143	126	2.4%
연수생초청	111	119	1.9%
긴급구호	9	7	0.2%
총합계	**5,882**	**5,194**	**100.0%**

출처: 저자 작성

세부목표 11의 경우,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예방 및 감소’에 관한 것으로 MDGs 6번 목표의 약 89% 가량의 사업이 해당 세부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며 여타 유형의 사업들보다 ‘DR콩고 반둔두주 5개보건구역 말라리아 퇴치 및 역량강화사업('12-'16)’, ‘가나 볼타지역 식수위생개선 사업('11-'14)’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 74.2%로 해당 목표를 위한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3〉 세부목표 11의 지원 실적

사업유형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비율
프로젝트	35,478	31,681	74.2%
민관협력사업	3,955	3,509	8.3%
개발컨설팅	2,958	2,623	6.2%
국제기구협력사업	2,607	2,366	5.5%
연수생초청	2,296	2,105	4.8%
소규모무상지원	363	322	0.8%
해외봉사단	103	94	0.2%
전문가	35	28	0.1%
총합계	**47,795**	**42,728**	**100.0%**

출처: 저자 작성

〈표 64〉 세부목표 12의 지원 실적

사업유형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비율
프로젝트	82,049	74,040	64.5%
국제기구협력사업	10,662	8,924	8.4%
연수생초청	10,094	9,129	7.9%
해외봉사단	8,413	7,707	6.6%
개발컨설팅	8,317	7,516	6.5%
민관협력사업	4,639	4,228	3.6%
소규모무상지원	2,522	2,635	2.0%
전문가	456	414	0.4%
총합계	**127,153**	**114,593**	**100.0%**

출처: 저자 작성

‘국가 정책에 지속가능 개발원칙 통합 및 손실된 환경자원 복원’에 대한 세부목표 12의 지원 실적은 위의 [표 64]와 같다. 전체 MDGs 7번 목표 사업 중 16.5%에 해당하며 여타 세부목표와 유사하게 프로젝트 사업유형이 64.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8.4%, 연수생초청 사업이 7.9%로 그 뒤를 이어 나오고 있다.

〈표 65〉 세부목표 13의 지원 실적

사업유형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비율
프로젝트	26,762	24,079	65.9%
연수생초청	6,042	5,494	14.9%
해외봉사단	3,773	3,454	9.3%
국제기구협력사업	1,955	1,813	4.8%
개발컨설팅	1,303	1,099	3.2%
민관협력사업	553	525	1.4%
전문가	105	88	0.3%
소규모무상지원	105	102	0.3%
총합계	**40,598**	**36,653**	**100.0%**

출처: 저자 작성

전체 MDGs 7번 목표 사업 중 '생물다양성 멸종 예방 및 2010년까지 멸종률 완화'에 대한 세부목표 13의 지원실적은 약 5.3% 가량이며 해당 실적의 세부 유형별 내역은 위의 [표 65]와 같다. '알제리 사하라사막 새우양식 건립 및 양식기술이전사업('10-'16)', '앙골라 수산자원 조성기술 역량강화사업('11-'16)' 등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 65.9%, '품종보호 제도 및 심사기술', '연안수산양식'과 같은 연수생초청 사업이 14.9%를 차지하였으며 해외봉사단으로 9.3%의 지원 비중을 보여주었다.

세부목표 14는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 위생 환경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 절반 감소'를 위한 목표로 [표 66]과 같이 프로젝트 유형의 사업이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네갈 식수개발사업('10-'14/550만불)', '이라크 상하수도 현대화', '동티모르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산 및 공급사업(2010-2012)'등이 있고 이어서 11.7%가 '케냐 타나강 지역의 건강한 마을 조성을 위한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다목적 학교 건립 사업'과 같은 민관협력 사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개발컨설팅은 6.1%로 '아제르바이잔 북부지역 하천 취수시설개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인도네시아 반둥지역 상수도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사업('12-'14)'등으로 확인되었다.

〈표 66〉 세부목표 14의 지원 실적

사업유형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비율
프로젝트	87,304	79,382	80.0%
민관협력사업	8,865	7,999	8.1%
개발컨설팅	7,148	6,358	6.6%
연수생초청	2,316	2,165	2.1%
국제기구협력사업	1,935	1,771	1.8%
해외봉사단	914	830	0.8%
소규모무상지원	533	478	0.5%
전문가	51	50	0.0%
총합계	**109,066**	**99,033**	**100.0%**

출처: 저자 작성

〈표 67〉 세부목표 15의 지원 실적

사업유형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비율
민관협력사업	3,071	2,760	81.9%
개발컨설팅	276	215	7.4%
해외봉사단	174	156	4.6%
소규모무상지원	126	120	3.4%
연수생초청	102	90	2.7%
총합계	**3,749**	**3,340**	**100.0%**

출처: 저자 작성

전체 MDGs 7번 목표 대상 사업 중 '2020년까지 최소 1억명 빈민가 거주자 생활여건의 현저한 향상'을 목표로 한 세부목표 15는 매우 작은 약 0.5%의 비율 정도이지만 위의 [표 67]과 같이 민관협력사업 유형이 전체 대비 81.9% 압도적인 비율로 진행되었다. 본 유형 안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마다가스카르 툴리아라 슬럼가 개선사업(1-3차)('09-'14)', '네팔 경제적인주택/위생시설 건축을 통한 안락한 지역사회 건설사업('12-'14)' 들로 찾아볼 수 있다.

〈표 68〉 세부목표 21의 지원 실적

사업유형	지원액/백만원	지원액/천달러	비율
해외봉사단	135,162	122,384	84.8%
연수생초청	11,277	10,162	7.1%
프로젝트	8,875	7,851	5.6%
소규모무상지원	1,873	1,769	1.2%
민관협력사업	1,708	1,525	1.1%
전문가	516	509	0.3%
총합계	**159,411**	**144,200**	**100.0%**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세부목표 21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 혜택 확산' 을 위한 것으로 전체 8번 목표 대상 사업 중 약 21%가량이 이에 속하였다. 다른 세부목표들이 프로젝트 유형으로 많이 진행되었던 것에 비하여 해당 세부목표는 해외봉사단의 지원 비율이 8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IT 관련 전문가 및 학계 학생들을 기반으로, 해외봉사단이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컴퓨터 및 통신 교육, IT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으로 교육 및 기술전수를 수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 뒤를 이어 7.1%의 비중으로 연수생초청 사업을 진행함으로 '석사학위과정 - 정보통신 정책역량강화 (14-15)', '캄보디아 CDC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13-'15)' 등 해당 분야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각 세부목표별로 지원된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실제 달성해야 할 세부목표와 그 대상에 유효하게 매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구 수행을 위해 매칭하고 부여된 CRS 코드 자체가 특정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잘 반영하는 사례들이었고, 이와 더불어 분야별 세부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인 세부목표 9&10, 11은 2006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에서 보건 인프라와 인력양성 위주 지원을 비롯하여 HIV/AIDS, 전염병 퇴치를 위한 공중보건 의료체제 구축에 대한 분야별 추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목표 8인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와 9번 목표인 '2015년까지 AIDS 확산 방지 및 감소'의 경우, KOICA 보건분야 지원전략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모자보건 향상, 전염성 질병 관리와 같이 세부목표와 일치하는 대상에 정확히 타겟화하여 사업화함으로서 해당 목표에 대한 유효한 기여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4. KOICA의 MDGs 지표별 이행 실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MDGs 지표를 측정을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여 분석이 불가능하나, 지표 45의 LDC에 대한 원조 비율, 지표 48의 내륙국에 대한 원조비율, 지표 49의 소규모 도서지역에 대한 원조 비율은 실적데이터로도 데이터 수집 및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DAC 공여국 평균, 호주, 일본, 영국, 미국, 한국과 KOICA의 실적을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이 GNI로 받는 원조 비율은 MDGs 8번 목표(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내의 19번 세부목표(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문제의 포괄적 해결)를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전체 ODA 대비 약 1% 내외의 지원액을 소규모 도서지역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DAC 공여국 평균 지원액 비중이 2%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특히 2015년 기준 한국의 소규모 도서지역 지원 비중은 전체 ODA 대비 1.3% 인데, 이중 1.2%가 KOICA의 지원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15년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한국의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의 지원액의 대부분이 KOICA의 지원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호주의 경우, ODA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주변지역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이 많은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 다른 공여국 및 DAC 평균 지원 비중 보다 훨씬 높은 20~30% 정도의 ODA를 소규모 도서지역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번 세부목표의 또 다른 측정지표인 내륙국이 GNI로 받는 원조비율의 경우, 소규모 도서지역에 대한 원조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DAC 회원국 평균 약 10% 내외의 지원액이 내륙국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초기에는 DAC 평균 지원 비중인 8~10%보다 훨씬 낮은 3~5% 정도만 내륙국 지원에 사용되었으나, 내륙국 지원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2015년에는 DAC 평균 지원 비중보다 높은 약 13% 정도의 ODA가 내륙국 지원에 사용되었다. 한편, 내륙국 지원의 경우에도 한국의 내륙국 지원의 대부분이 KOICA에 의해 이뤄진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LDC 지원 비율의 경우에도 한국과 KOICA는 지속적으로 최빈국 지원강화를 정책에서

17) 지표는 GNI 대비 원조비율로 측정하게 되어있으나, GNI 대비 ODA 비율로 산정시 소수점 3~4자리까지의 숫자가 나와야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있어, 편의상 해당국가 지원액과 전체ODA에서 해당국가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기하여 비교하였다.

표명하고 있었던 만큼, 2000년에는 LDC 지원 비율(한국 2.7%, KOICA 2.7%)이 DAC 평균(15.2%)에 비해 매우 저조하였던 반면, 2015년에는 지원 비율이 점차 개선되어 2015년에는 DAC 평균인 18.2%에 거의 근접한 지원(한국 16.5%, KOICA 10.7%)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9〉 소규모 도서지역 지원액 및 지원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DAC 평균	지원액	1413.5	1362.5	1425.4	1572.5	1709.5	1960.6	2010.9	2376.4	2580.0	2745.4	4702.5	3567.1	3091.9	2799.2	2559.2	2503.2
	비율	2.6%	2.6%	2.4%	2.3%	2.1%	1.8%	1.9%	2.3%	2.1%	2.3%	3.7%	2.6%	2.4%	2.1%	1.9%	1.9%
호주	지원액	338.7	265.9	298.3	379.5	467.7	500.6	535.0	669.5	696.2	667.7	999.4	1147.8	1153.2	1051.1	873.6	857.4
	비율	34.3%	30.5%	30.2%	31.1%	32.0%	29.8%	25.2%	25.1%	23.6%	24.2%	26.1%	23.0%	21.3%	21.7%	19.9%	24.5%
일본	지원액	242.8	188.6	224.4	178.29	157.6	216.8	172.0	156.7	198.6	256.0	401.3	292.1	236.1	188.3	218.5	206.1
	비율	1.8%	1.9%	2.4%	2.0%	1.8%	1.7%	1.5%	2.0%	2.1%	2.7%	3.6%	2.6%	2.2%	1.6%	2.3%	2.2%
영국	지원액	109.1	86.5	101.1	75.8	95.3	95.0	62.1	56.1	49.0	61.0	55.6	76.1	69.2	98.5	70.0	89.8
	비율	2.4%	1.9%	2.1%	1.2%	1.2%	0.9%	0.5%	0.6%	0.4%	0.5%	0.4%	0.6%	0.5%	0.5%	0.4%	0.5%
미국	지원액	296.7	410.0	361.5	366.0	368.1	485.2	530.4	499.6	610.7	716.4	1370.3	963.0	796.2	763.4	627.4	636.0
	비율	3.0%	3.6%	2.7%	2.2%	1.9%	1.7%	2.3%	2.3%	2.3%	2.5%	4.6%	3.1%	2.6%	2.4%	1.9%	2.1%
한국	지원액	0.9	1.5	4.3	6.5	1.9	6.1	5.4	10.0	10.0	7.7	13.7	15.7	19.2	19.4	18.3	24.9
	비율	0.4%	0.6%	1.6%	1.8%	0.5%	0.8%	1.2%	1.4%	1.3%	0.9%	1.2%	1.2%	1.2%	1.1%	1.0%	1.3%
KOICA	지원액	0.9	1.2	4.3	1.7	1.6	5.3	4.2	7.2	7.2	6.8	11.3	13.4	16.7	17.0	13.5	22.2
	비율	0.4%	0.5%	1.6%	0.5%	0.4%	0.7%	0.9%	1.0%	0.9%	0.8%	1.0%	1.0%	1.0%	1.0%	0.7%	1.2%

출처: 저자 작성(stats.oecd.org, stat.koica.go.kr)

〈표 70〉 내륙국 지원액 및 지원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DAC 평균	지원액	4602.9	4621.2	6274.5	7547.9	9113.4	9928.3	10260.0	11446.0	14469.2	15192.4	15760.4	16494.9	16711.4	15614.0	15603.9	14172.2
	비율	8.5%	8.8%	10.7%	10.8%	11.4%	9.2%	9.7%	10.9%	11.8%	12.6%	12.3%	12.2%	13.2%	11.6%	11.3%	10.8%
호주	지원액	29.4	30.1	35.6	31.5	45.0	40.1	52.0	95.3	211.7	189.2	229.8	372.5	515.0	353.9	311.3	209.5
	비율	3.0%	3.4%	3.6%	2.6%	3.1%	2.4%	2.4%	3.6%	7.2%	6.8%	6.0%	7.5%	9.5%	7.3%	7.1%	6.0%
일본	지원액	748.1	664.7	684.4	681.9	1291.7	1347.2	739.3	938.0	976.0	1120.4	1741.7	1711.9	1822.4	1617.5	1100.2	973.7
	비율	5.5%	6.8%	7.4%	7.7%	14.5%	10.3%	6.6%	12.2%	10.2%	11.8%	15.8%	15.4%	17.2%	14.1%	11.6%	10.6%
영국	지원액	586.7	472.2	539.2	638.4	1117.6	872.1	1212.4	1286.7	1249.3	1328.4	1451.8	1776.8	1906.2	2021.5	2119.4	2218.3
	비율	13.0%	10.3%	10.9%	10.2%	14.1%	8.1%	9.7%	13.1%	10.9%	11.8%	11.1%	12.8%	13.7%	11.3%	11.0%	12.0%
미국	지원액	876.4	864.3	1727.9	2432.5	2468.1	3349.5	3454.4	3507.1	5253.5	6159.3	6130.0	6320.8	6512.7	5521.7	6005.4	5387.3
	비율	8.8%	7.6%	13.0%	14.9%	12.5%	12.0%	14.7%	16.1%	19.9%	21.4%	20.7%	20.4%	21.2%	17.7%	18.1%	17.4%
한국	지원액	7.3	10.2	14.8	33.6	38.6	32.8	30.5	51.0	66.4	85.2	209.1	149.4	217.1	279.1	250.2	246.7
	비율	3.5%	3.9%	5.3%	9.2%	9.1%	4.4%	6.7%	7.3%	8.3%	10.4%	17.8%	11.3%	13.6%	15.9%	13.5%	12.9%
KOICA	지원액	7.1	10.0	14.0	31.7	32.1	20.5	22.8	42.0	59.8	75.1	188.5	119.3	137.2	144.9	162.9	154.5
	비율	3.3%	3.8%	5.0%	8.7%	7.6%	2.7%	5.0%	6.0%	7.5%	9.2%	16.1%	9.0%	8.6%	8.3%	8.8%	8.1%

출처: 저자 작성(stats.oecd.org, stat.koica.go.kr)

〈표 71〉 LDC 지원액 및 지원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DAC 평균	지원액	8221.5	7977.0	10679.2	16235.9	16040.5	16654.6	18242.5	20250.4	24878.7	24467.0	28245.1	32607.2	26715.4	30847.4	26124.1	23987.2
	비율	15.2%	15.1%	18.2%	23.3%	20.0%	15.4%	17.3%	19.3%	20.2%	20.3%	22.0%	24.1%	21.0%	22.9%	19.0%	18.2%
호주	지원액	197.1	142.5	162.4	193.8	282.5	317.2	334.1	511.6	631.9	568.1	852.1	1118.1	1247.6	994.8	885.8	678.8
	비율	20.0%	16.3%	16.4%	15.9%	19.3%	18.9%	15.7%	19.2%	21.4%	20.6%	22.3%	22.4%	23.1%	20.5%	20.2%	19.4%
일본	지원액	1347.8	1272.8	1109.8	1098.8	1661.4	1810.2	1375.1	2205.3	2288.7	1873.8	2516.1	3827.4	2687.7	6303.0	1876.5	1702.8
	비율	10.0%	12.9%	12.0%	12.4%	18.6%	13.8%	12.3%	28.7%	23.8%	19.8%	22.8%	34.5%	25.3%	55.0%	19.8%	18.5%
영국	지원액	1005.8	1083.3	887.2	1106.0	2096.2	1738.9	2159.1	2297.3	2547.6	2531.4	2593.9	3373.2	3061.4	3654.1	3889.0	3851.7
	비율	22.3%	23.7%	18.0%	17.7%	26.5%	16.1%	17.3%	23.3%	22.2%	22.4%	19.9%	24.4%	22.0%	20.4%	20.1%	20.8%
미국	지원액	1057.2	999.1	2089.9	4189.1	3412.2	4751.9	5396.4	4805.8	7248.6	8093.8	9110.9	10688.9	9193.7	8998.8	8740.9	9177.1
	비율	10.6%	8.7%	15.7%	25.7%	17.3%	17.0%	22.9%	22.1%	27.4%	28.1%	30.7%	34.5%	30.0%	28.8%	26.4%	29.6%
한국	지원액	5.6	7.1	18.1	35.2	43.8	36.4	36.9	64.6	90.8	86.3	207.0	157.4	246.8	313.6	295.0	316.7
	비율	2.7%	2.7%	6.5%	9.6%	10.3%	4.8%	8.1%	9.3%	11.3%	10.6%	17.6%	11.9%	15.4%	17.9%	15.9%	16.5%
KOICA	지원액	5.6	7.1	17.6	33.3	37.2	26.0	31.3	57.0	74.9	79.9	185.4	123.9	152.9	168.3	191.1	205.9
	비율	2.7%	2.7%	6.3%	9.1%	8.8%	3.5%	6.9%	8.2%	9.3%	9.8%	15.8%	9.4%	9.6%	9.6%	10.3%	10.7%

출처: 저자 작성(stats.oecd.org, stat.koica.go.kr)

5. 결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KOICA는 전반적으로 MDGs 달성을 위한 상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MDGs 2번(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MDGs 4번(아동사망률 감소), MDGs 5번(모성보건 증진), MDGs 6번(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의 경우 다른 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방향과 동일하게 MDGs 지원이 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과 보건의 경우 분야별 중기전략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분야별 정책에서 동일한 전략을 수립하여 강조하고 있었고, 또한 MDGs 목표 자체의 준위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어 이행 및 측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적인 이유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와 관련하여 살펴본 LDC, 내륙국, 소규모 도서국가 지원 비율의 경우, 한국 및 KOICA는 LDC 지원 정책에서도 지속적으로 LDC 지원 확대를 강조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LDC 지원 비중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 DAC 평균에는 조금 하회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륙국 지원 역시 지원실적의 확대와 함께, DAC 평균보다도 높은 비중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소규모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비율 확대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3개 지역에 대한 원조의 상당부분은 KOICA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OICA의 MDGs 관련 정책 중 '아프리카와 서남아지역 MDGs 달성 지원 강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저조하게 확인되었는데, KOICA 전체 ODA 중 MDGs 관련 사업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행된 비중이 평균 17%, 서남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지원된 MDGs 관련 사업 비중은 평균 8%로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도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도 확인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18]

18) 민관협력, 봉사단, 연수, 국제기구협력사업 등의 사업에서 MDGs 관련 정책 방향은 실적데이터를 사용하여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제외하였다.

Ⅴ. 시사점 및 결론

MDGs 목표달성 기한은 이미 종료가 되었으나, 이후 SDGs 목표가 수립되어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MDGs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SDGs 달성을 위한 KOICA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 및 성과측정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SDGs 총괄 정책 수립 및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KOICA 정책에 MDGs 관련 정책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단편적인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있거나, 단순한 명기 또는 포괄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MDGs의 달성 및 추진을 위한 총괄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향후 SDGs 이행 및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총괄 정책을 수립하고, 이후 한국정부 정책, KOICA 중장기 전략,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분야별 정책 등에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정책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DGs를 전담하는 총괄부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총괄부처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조직하여 범정부차원에서 한국의 SDGs 정책일관성 제고 및 정책 이행여부 점검(하단에서 상술) 등을 추진해야 한다.

2. SDGs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본 연구 결과 한국과 KOICA 모두 M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체계나 모니터링 체계도 부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행체계의 부재로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지 못했고,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인해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정책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SDGs 정책, 이행현황,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하여, 정책이 이행실적에 반영되고, 점검 결과가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SDGs 관련 지표수집 확대 및 성과측정 도입

본 연구는 앞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대상을 MDGs 목표 및 세부목표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표수준의 분석은 CRS++ 실적데이터로는 측정 및 연결이 불가능하고, 사업발굴 및 추진단계에서 지표와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측정 및 분석이 불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공여국의 실적데이터는 Activity 활동을 Input 레벨에서 보고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지는 구조적 한계점이다. 즉, Input 레벨의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Output 레벨의 성과를 측정하려니,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연결 또는 자료추출이 불가능한 목표나 세부목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Output 레벨의 데이터 추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Outcome 레벨의 정보를 연결 또는 생성해내기는 더욱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다.

SDGs의 경우, 현재 총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24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 DAC에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부목표들의 경우 약 50% 정도만 Activity 레벨의 목표이고, 나머지는 Outcome 레벨의 목표이기 때문에, CRS++ 통계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약 50%의 세부목표만이 연결하여 자료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OECD 2017). 즉,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OECD 제출용 실적자료를 중심으로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체계를 유지한다면, 2030년에도 SDGs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은 본 보고서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의 이행현황과 KOICA의 기여를 측정할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DGs 목표와 세부목표, 그리고 지표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현재 사업정보 및 통계정보 수집으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분류하고,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중 향후 KOICA에서 측정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해당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KOICA뿐만 아니라 다른 공여국 원조기관들도 성과지표를 수집하거나, 해당 기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개도국에 어떤 영향(impact)을 발생시켰는지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모든 SDG의 항목을 다 측정해낸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KOICA의 비교우위가 높은 부분에 전략적 지원 필요

보건 분야의 경우 MDGs 목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 이행 및 달성 현황을 상대적으로 측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수월한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ICA는 2000년 초기부터 2015년까지 한국 및 KOICA에 비교우위가 있는 보건 분야 사업 중 MDGs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자보건 사업과 전염병 퇴치 사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보다 사업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과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미국 역시 MDGs 목표 중 보건관련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지원해온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조 규모가 작은 한국과 KOICA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기타 전염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 것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비교우위를 삼을 수 있는 분야나 전략적으로 선택된 섹터 분야를 SDGs 목표와 연결하여 세밀하게 분석, 선정하여 이 부분에 집중 지원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발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LDC 국가 지원 비중 확대, 소규모 도서국가 지원 비중 확대, 내륙국 지원 비중 확대 등의 지표의 경우에도, 한국의 전체 지원금액 중 KOICA의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절대 다수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KOICA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선제적인 전략 수립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5. 데이터 관리 강화 및 이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 필요

MDGs 보다 목표, 세부목표, 지표들이 훨씬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SDGs 목표 이행 및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충실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여기관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는 단순히 해당기관의 통계부서 담당자만의 업무와 역할이 아니며,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담당자가 같이 실시하는 업무이다. 왜냐하면 사업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필요성 평가와 발굴이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 수행 및 종료 시의 지속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 또한 사업담당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KOICA의 데이터 품질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 사업 지원 확대 필요

SDGs 목표는 공여국과 개도국의 모두의 노력으로 이행 및 달성이 가능한 목표와 지표들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공여국의 지원 및 통계 측정, 관리가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개도국의 경제성장, 달성현황 등을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측정하고 수집할 수 없다면, SDGs의 정확한 달성현황 및 개발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KOICA의 인적, 제도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6) 2006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_____ (2007)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 (2008-2010).

_____ (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

_____ (2011) 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_____ (2012)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 14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10)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_____ (2011a) KOICA 보건의료 전략 2011~2015.

_____ (2011b) KOICA 교육분야 지원전략 2011~2015.

_____ (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KOICA ODA교육원 (2016)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시공미디어.

〈국외문헌〉

Asian Development Bank (2013) ADB’s Support for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net Goals. SES:REG 2013-05. ADB.

End Poverty 2015 Millennium Campaign (2010) "The United States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potlight on the Obama Administration Updated April 2010, www.endpoverty2015.org

European Commission (2013) The EU’s Contribution to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Key results from European Commission programm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_____ (2015) The EU’s Contribution to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Key results from European Commission programm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Mizuho Information & Research Institute, Inc. (2015) Evaluation of Japan's Contribution to the Achievement of the MDGs in the Health Sect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ECD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_____ (2017) Data Collection in the CRS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Suppor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CD/DAC/STAT(2017)20.

UN (2000)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55/2. New York, UN.

___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New York: UN.

UK (2005). "The UK's contribution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vailable at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dfid.gov.uk/pubs/ files/uk-cont-mdg-report.pdf (접속일 2017.11.29)

DFID (2013). "DFID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2-13"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fid-annual-report-and-accounts-2012-13 (접속일 2017.11.13)

_____ (2015). "DFID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4-15"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fid-annual-report-and-accounts-2014-2015 (접속일 2017.11.13)

MOFA(Japan) (2010). Japan's Official Development White Paper 2010, Toky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ICA (2012). JICA's Approach to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kyo: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orld Bank (2009). "The World Bank Annual Report 2009" available at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EXTAR2009/Resources/6223977-1252950831873/AR09_Complete.pdf (접속일 2017.11.29.)

_____ (2016). Global monitoring report 2015/2016: Development Goals in an Era of Demographic Change. Washington, D.C.: World Bank.

AusAID (2012a). "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2012-13" available at http://www.budget.gov.au/2012-13/content/ministerial_statements/ausaid/download/ausaid.pdf (접속일 2017.11.29)

_____ (2012b). “2011-12 Annual Review of Aid Effectiveness” available at http://dfat.gov.au/about-us/publications/Documents/annual-review-aid-effectiveness.pdf (접속일 2017.11.29.)

〈웹사이트〉

OECD 통계 사이트(OECD.Stat). http://stats.oecd.org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

부록

LIST OF CRS PURPOSE CODES AND VOLUNTARY BUDGET IDENTIFIER CODES

Updated May 2016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110			**EDUCATION**	**교육**
111			**Education, level unspecified**	**교육일반**
	11110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11120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교육 시설 및 특별연수**
	11130		Teacher training	**교사 훈련**
	11182		Educational research	**교육 연구**
112			**Basic education**	**기초교육**
	11220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
	11230		Basic life skills for youth and adults	**비정규 교육**
		11231	*Basic life skills for youth*	**청년 기초생활교육**
		11232	*Primary education equivalent for adults*	**성인 초등교육**
	11240		Early childhood education	**취학전 교육**
113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
	11320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
		11321	*Lower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
		11322	*Upper 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
	11330		Vocational training	**직업훈련**
114			**Post-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
	11420		Higher education	**전문대,대학, 대학원 교육**
	11430		Advanced technical and managerial training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120			**HEALTH**	**보건**
121			**Health, general**	**보건 일반**
	12110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12181		Medical education/training	**의료교육/ 훈련**
	12182		Medical research	**의료 연구**
	12191		Medical services	**의료 서비스**
122			**Basic health**	**기초 보건**
	12220		Basic health care	**기초 보건 진료**
	12230		Basic health infrastructure	**기초 의료 설비**
	12240		Basic nutrition	**영양**
	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	**전염병 관리**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12261		Health education	보건 교육
	12262		Malaria control	말라리아 퇴치
	12263		Tuberculosis control	결핵 퇴치
	12281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보건 인력개발
130			**POPULATION POLICIES/ PROGRAMMES AND REPRODUCTIVE HEALTH**	인구정책/ 시책 및 생식 보건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13020		Reproductive health care	생식보건
	13030		Family planning	가족계획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성병 대책 (HIV/ AIDS 포함)
	13081		Personnel development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인구 및 생식보건 부문 교육
140			**WATER AND SANITATION**	식수공급 및 위생
	14010		Water sector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수자원정책/ 행정관리
	14015		Water resources conservation (including data collection)	수자원보호
	14020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large systems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 대규모 시스템
	14021		Water supply - large systems	대규모 상수 시스템
	14022		Sanitation - large systems	대규모 하수 시스템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14031		Basic drinking water supply	소규모 상수 시스템
	14032		Basic sanitation	소규모 하수 시스템
	14040		River basins' development	하천 개발
	14050		Waste management / disposal	폐기물 관리/ 처리
	14081		Education and training i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 교육
150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51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general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5110		Public sector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15121	*Foreign affairs*	대외업무
		15122	*Diplomatic missions*	외교
		15123	*Administ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oreign aid*	개도국의 해외 원조 행정
		15124	*General personnel services*	인사 일반
		15125	*Central procurement*	중앙 조달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15126	*Other general public services*	기타 일반 공공 서비스
		15127	*National monitoring and evaluation*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15142	*Macroeconomic policy*	거시경제 정책
		15143	*Meteorological services*	기상 서비스
		15144	*N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국가 표준 개발
		15154	*Executive office*	행정부
	15111		Public Finance Management (PFM)	공공 재정 관리
		15117	*Budget planning*	예산편성
		15118	*National audit*	국가감사
		15119	*Debt and aid management*	채무 및 원조관리
	15112		Decentralisation and support to subnational government	분권화 및 지방정부 지원
		15128	*Local government finance*	지방정부 재정
		15129	*Other central transfers to institutions*	기관 앞 중앙정부의 지원
		15185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지방 정부 행정
	15113		Anti-corruption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부패방지기구 및 기관
	15114		Domestic Revenue Mobilisation	국내재원조성
		15116	*Tax collection*	세금 징수
		15155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support*	조세정책 및 행정지원
		15156	*Other non-tax revenue mobilisation*	기타 비조세 수익동원
	15130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15131	*Justice, law and order polic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사법 정책, 계획 및 행정
		15132	*Police*	경찰
		15133	*Fire and rescue services*	소방 및 구조 서비스
		15134	*Judicial affairs*	사법
		15135	*Ombudsman*	옴부즈만
		15136	*Immigration*	이민
		15137	*Prisons*	수감 제도
	15150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civil society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15151		Elections	선거
	15152		Legislatures and political parties	입법 및 정당
	15153		Media and free flow of information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
	15160		Human rights	인권 감시 및 교육
	15170		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성평등 조직 및 제도
	15180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 근절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152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peace and security**	분쟁예방 및 결의안, 평화와 안보
	15210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15220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예방
	15230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UN 평화유지군 활동
	15240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사회재합류 와 소형 무기 통제
	15250		Removal of land mines and explosive remnants of war	지뢰제거
	15261		Child soldiers (Prevention and demobilisation)	소년병 (예방 및 동원해제)
160			**OTHER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6010		Social/ welfare services	사회/복지 서비스
		16011	*Social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s polic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사회보호/복지 서비스 정책, 계획 및 행정
		16012	*Social security (excl pensions)*	사회 보장(연금 제외)
		16013	*General pensions*	일반 연금
		16014	*Civil service pensions*	공무원 연금
		16015	*Social services (incl youth development and women+ children)*	사회 서비스(청년개발, 여성, 아동)
	16020		Employment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16030		Hous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16040		Low-cost housing	저비용 주택개발
	16050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ial services	기초사회서비스부문 다부분 원조
	16061		Culture and recreation	문화 및 레크레이션
		16065	*Recreation and sport*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16066	*Culture*	문화
	16062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통계능력 강화
	16063		Narcotics control	마약 관리
	16064		Social mitigation of HIV/AIDS	AIDS 사회적영향완화
210			**TRANSPORT AND STORAGE**	운송 및 창고
	21010		Transport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운송 정책 및 행정관리
		21011	*Transport polic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운송 정책, 계획 및 행정
		21012	*Public transport services*	공공 운송 서비스
		21013	*Transport regulation*	운송 규제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21020		Road transport	도로 운송
		21021	*Feeder road construction*	지선도로 건설
		21022	*Feeder road maintenance*	지선도로 유지
		21023	*National road construction*	국도 건설
		21024	*National road maintenance*	국도 유지
	21030		Rail transport	철도 운송
	21040		Water transport	수로 운송
	21050		Air transport	항공 운송
	21061		Storage	창고
	21081		Education and training in transport and storage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220			**COMMUNICATIONS**	통신
	22010		Communications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통신 정책 및 행정 관리
		22011	*Communications polic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통신정책, 계획 및 행정
		22012	*Postal services*	우편 서비스
		22013	*Information services*	정보 서비스
	22020		Telecommunications	통신/ 전화
	22030		Radio/television/print media	라디오/ 텔레비젼/ 인쇄 매체
	2204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정보통신기술
230			**ENERGY GENERATION, DISTRIBUTION AND EFFICIENCY**	에너지 생산, 공급 및 효율성
231			**Energy generation, distribution and efficiency – general**	에너지 생산, 공급 및 효율성-일반
	23110		Energ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에너지 정책 및 행정 관리
		23111	*Energy sector polic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에너지 분야 정책, 계획 및 행정
		23112	*Energy regulation*	에너지 규제
	23181		Energy education/training	에너지 교육/ 훈련
	23182		Energy research	에너지 연구
	23183		Energy conservation and demand-side efficiency	에너지 보존 및 수요측 효율성
232			**Energy generation, renewable sources**	에너지 생산, 재생 자원
	23210		Energy generation, renewable sources – multiple technologies	에너지 생산, 재생 자원 사용 - 복합기술
	23220		Hydro-electric power plants	수력 발전소
	23230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
	23240		Wind energy	풍력 에너지
	23250		Marine energy	해양 에너지
	23260		Geothermal energy	지열 에너지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23270		Biofuel-fired power plants	바이오연료 발전소
233			**Energy generation, non-renewable sources**	에너지 생산, 재생불능 자원
	23310		Energy generation, non-renewable sources – unspecified	에너지 생산, 재생불능 자원 - 미분류
	23320		Coal-fired electric power plants	석탄화력 전기발전소
	23330		Oil-fired electric power plants	유류화력 전기발전소
	23340		Natural gas-fired electric power plants	천연가스화력 전기발전소
	23350		Fossil fuel electric power plants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탄소포집저장(CCS) 화석연료 전기발전소
	23360		Non-renewable waste-fired electric power plants	재생불능자원화력 발전소
234			**Hybrid energy electric power plants**	하이브리드 에너지 전기발전소
	23410		Hybrid energy electric power plants	하이브리드 에너지 전기발전소
235			**Nuclear energy electric power plants**	원자력 에너지 전기발전소
	23510		Nuclear energy electric power plants	원자력 에너지 전기발전소
236			**Heating, cooling and energy distribution**	냉난방 및 에너지 배분
	23610		Heat plants	난방발전소
	23620		District heating and cooling	지역냉난방
	23630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전력 송전 및 배전
	23640		Gas distribution	가스 공급
240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금융 및 재무서비스
	24010		Financi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24020		Monetary institutions	중앙금융기관
	24030		Formal sector financial intermediaries	공공 금융기관
	24040		Informal/semi-formal financial intermediaries	비정규/ 유사 금융기관
	24081		Education/training i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
250			**BUSINESS AND OTHER SERVICES**	비지니스 및 기타 서비스
	25010		Business support services and institutions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25020		Privatisation	민영화
311			**AGRICULTURE**	농업
	31110		Agricultur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31120		Agricultural development	농업개발
	31130		Agricultural land resources	농지개발
	31140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농업용수자원
	31150		Agricultural inputs	농업관련 기자재
	31161		Food crop production	식량 생산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31162		Industrial crops/export crops	경제 작물/ 수출 작물
	31163		Livestock	축산, 가축
	31164		Agrarian reform	농지제도 개혁(경지정리 등)
	31165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31166		Agricultural extension	농업 지도
	31181		Agricultural education/training	농업관련 교육/ 훈련
	31182		Agricultural research	농업 연구
	31191		Agricultural services	농업관련 서비스
	31192		Plant and post-harvest protection and pest control	병충해 구제
	31193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농업금융 서비스
	31194		Agricultural co-operatives	농업협동조합
	31195		Livestock/veterinary services	축산 진료
312			**FORESTRY**	임업
	31210		Forestr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임업 정책/ 행정/ 관리
	31220		Forestry development	임업 개발
	31261		Fuelwood/charcoal	연료용 목재/ 숯
	31281		Forestry education/training	임업 교육/ 훈련
	31282		Forestry research	임업 연구
	31291		Forestry services	임산물 유통 지원
313			**FISHING**	어업
	31310		Fish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어업 정책/ 행정/ 관리
	31320		Fishery development	어업 개발
	31381		Fishery education/training	어업 교육 및 훈련
	31382		Fishery research	어업 연구
	31391		Fishery services	수산물 유통 지원
321			**INDUSTRY**	공업
	32110		Industri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공업정책/ 행정/ 관리
	32120		Industrial development	공업개발
	3213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development	중소기업개발
	32140		Cottage industries and handicraft	가내공업 및 수공업
	32161		Agro-industries	농수산물 가공업
	32162		Forest industries	임산물 가공
	32163		Textiles, leather and substitutes	섬유, 피혁 및 대체소재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32164		Chemicals	화공
	32165		Fertilizer plants	비료공장
	32166		Cement/lime/plaster	시멘트/ 인조대리석/ 소석회
	32167		Energy manufacturing	에너지 가공
	32168		Pharmaceutical production	의약품 생산
	32169		Basic metal industries	철강 산업
	32170		Non-ferrous metal industries	비철금속 산업
	32171		Engineering	엔지니어링(기계공업)
	32172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수송기계 산업
	32182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기술연구 개발
322			**MINERAL RESOURCES AND MINING**	광물자원 및 광업
	32210		Mineral/min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광물/ 광업정책, 행정, 관리
	32220		Mineral prospection and exploration	광물탐사
	32261		Coal	석탄
	32262		Oil and gas	석유 및 가스
	32263		Ferrous metals	철금속
	32264		Nonferrous metals	비철금속
	32265		Precious metals/materials	귀금속/ 보석류
	32266		Industrial minerals	공업용 석재
	32267		Fertilizer minerals	비료용 광물
	32268		Offshore minerals	해양 광물
323			**CONSTRUCTION**	건설
	32310		Construc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건설 정책/행정/ 관리
331			**TRADE POLICY AND REGULATIONS AND TRADE-RELATED ADJUSTMENT**	통상 정책 및 규정, 무역 조정
	33110		Trade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통상정책, 행정 관리
	33120		Trade facilitation	무역진흥
	33130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지역무역협정
	3314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다자간무역협상
	33150		Trade-related adjustment	무역 조정
	33181		Trade education/training	무역교육 및 훈련
332			**TOURISM**	관광
	33210		Tourism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관광정책/행정/관리
410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보호
	41010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환경정책/ 행정/ 관리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41020		Biosphere protection	생물권역 보호
	41030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
	41040		Site preservation	자연문화유산 보호
	41050		Flood prevention/control	홍수방지/ 대책
	41081		Environmental education/ training	환경교육/ 훈련
	41082		Environmental research	환경 연구
430			**Other multisector**	기타 다부문
	43010		Multisector aid	다부문 원조
	43030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도시개발 및 관리
		43031	*Urban land policy and management*	도시 토지 정책 및 관리
		43032	*Urban development*	도시 개발
	43040		Rural development	농촌 개발
		43041	*Ru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농촌 토지 정책 및 관리
		43042	*Rural development*	농촌 개발
	43050		Non-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비농업분야 마약대체 개발
	43081		Multisector education/training	기타 교육
	43082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연구/ 과학연구소
510			**General budget support**	일반예산지원
	51010		General budget support-related aid	일반예산지원 관련 원조
520			**Developmental food aid/Food security assistance**	개발 식량원조 / 식량안보
	52010		Food aid/Food security programmes	식량 원조 식량 안보 프로그램
530			**Other commodity assistance**	기타 소비재 지원
	53030		Import support (capital goods)	수입 지원 (자본재)
	53040		Import support (commodities)	수입지원 (소비재)
600			**Debt relief**	채무 관련 지원활동
	60010		Action relating to debt	채무 관련 지원활동
	60020		Debt forgiveness	채무 탕감
	60030		Relief of multilateral debt	다자간 부채 구제
	60040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채무재조정 및 재융자
	60061		Debt for development swap	개발관련 부채 스와프
	60062		Other debt swap	타 부채 스와프
	60063		Debt buy-back	부채 환매
720			**Emergency Response**	긴급구호
	72010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DAC 5 CODE	CRS CODE	voluntary code	DESCRIPTION	국문설명
	72040		Emergency food aid	긴급식량원조
	72050		Relief co-ordination;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긴급구호 조정/보호 및 안전확보
730			**Reconstr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재건 구호
	73010		Reconstr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재건 구호
740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재난방지 및 대비
	74010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재난방지 및 대비
910			**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	원조국 행정비용
	91010		Administrative costs (non-sector allocable)	행정 비용
93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난민지원 (공여국 내)
	9301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non-sector allocable)	난민지원 (공여국 내)
998			**UNALLOCATED/ UNSPECIFIED**	비배분/ 비특정
	99810		Sectors not specified	비 특정 분야
	99820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non-sector allocable)	개발인식 증진

연구자료 ODA연구 2017-23-134

KOICA의 MDGs 이행실적 및 시사점

발　　행　2017년 12월
발 행 인　이미경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KOICA아카데미 ODA연구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47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트프린팅
I S B N　978-89-6469-468-8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ODA연구 2017-23-134

ISBN 978-89-6469-468-8 93320

KOICA의 MDGs
이행실적 및 시사점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247
http://www.koica.go.kr